

성남, 도시에 말 걸기

2021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_성남 결과보고서



섬남, 도시에 말 걸기

2021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_섬남 결과보고서



목차

기획하며

한 눈에 보기

진행과정

참여자 소개

들여다보기 : 강의/개별 발표

공간과 장소에 대하여

좋은 도시(마을)의 조건

(특강) 성남의 도시 유래와 마을 이야기

나와 ‘타인’을 보는 장소/팀별 활동을 위한 팀 구성하기

새롭게 보기 : 팀별 장소 찾기/발표

모란·도촌_스토리팀

남이 님_구술기록팀

탄천팀

장소의 관점으로 읽기

함께 나눈 이야기

프로젝트를 마치며

 4

10

13

18

40

56

66



80

93

106

121

132

142



기획하며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와 <미래유물전>으로
펼치는 마을 읽기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는 <마을큐레이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 마을큐레이터란?

- 마을큐레이터는 문화해설사가 갖지 못하는 생활문화,
일상문화를 더욱 촘촘히 읽어내고
- 마을의 경제적, 공간적, 사회적인 변화가 일상생활
양식에 미치고 있는 현재진행형 요인을 발견하고
- 지역문화의 특성을 현재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지역주민을 말합니다.

경기도 지역문화원이 ‘마을’을 ‘다시 읽어’ 지역 ‘재발견’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이 아닌 ‘마을’로 접근한다는 점.

두 번째, 기존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지역을 ‘현재적 시점’으로 다시 읽어낸다는 점.

세 번째, 역사학자나 민속학자가 아닌 ‘주민 주도의 지역 읽기를 통한 지역 재발견’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문화원과 함께 만들어 나가하고자 했습니다.

첫째, 지역문화원이 참여한 주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의 의미를 찾고 ‘지역다움’을 발견하고,

둘째, 지역 커뮤니티 연결망 구성을 통해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주민활동가(마을큐레이터)들의 새로운 지역읽기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의왕문화원, 하남문화원, 오산문화원, 성남문화원이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협력했고, 이천문화원과 의정부문화원은 새로운 형태의 마을 읽기 사업을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했습니다.

6개 지역문화원의 활동과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마다 다른 사정과 특성들이 있겠지만, 이제 경기도 지역문화원이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 현재적

접근’이라는 차원에서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나 자평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이 많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막 첫 걸음을 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지역문화원과 협력하여 최종적으로는 지역 생활문화활성화를 지원하는 플랫폼 구조를 완성하고, 그것의 완성을 위한 구조적, 조직적 시스템을 마련하기까지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을 조사하고 재발견하는데서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적 시점에서 새롭게 발견된 마을의 이야기가 앞으로 지금까지와 다른 특별한 마을로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솔루션이 도출되어야 하고, 그것에 기초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 추진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이 살 만한 곳’, ‘주민들이 애정 하는 곳’, ‘주민들이 자랑할 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각 지역문화원은 ‘오픈 플랫폼으로의 전환’과 ‘자발적, 창의적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연결망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하는 또 다른 프로젝트 <미래유물전>에 대해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유물전>은 시민들의 주도적 마을 읽기를 바탕으로 생산된 콘텐츠와 예술 작가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아카이브전>이라는 성격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애당초 기획 단계부터 마을큐레이터 사업의 연결선 상에 존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미래유물전>을 시작할 당시 경기도 지역문화원에게 ‘주민 주도적 마을의 현재 읽기’라는 제안은 대단히 낮은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향토문화유물전의 성격을 띠기도 하고, 지역의 과거를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학습시키는 전시가 되기도 하고, 지역 예술가들이 지역을 표현한 작품을 전시하기도 하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는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와 <미래유물전>을 통해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지역문화원의 일련의 사업들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에 대해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익숙하게, 무심하게 지나쳤던 지역을 낯설게 만들고, 매핑을 통해 마을을 새롭게 감각해 보는 작업으로 연결된 의왕지역 마을큐레이터 활동은 3년차에 접어들면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추진했던 기획전 <미래유물전>으로의 연결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의왕 지역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는 3년의 과정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을과 삶에 대한 감각, 스위치 켜기’라는 주제로 지역주민이 다양한 감각 축수를 활성화하여, 기존에 무심코 지나쳤던 거리들을, 사람들을, 건물들을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가만이 아닌, 전시 기획자만이 아닌 마을 주민들이 직접 조사, 재발견한 마을의 일상을 비로소 보여줄 수 있는 전시가 의왕문화원과 의왕 주민들에 의해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첫 걸음은 <두터운 현재>라는 주제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당시의 현재인 과거가 켜켜이 쌓여 지금의 현재를 구성하고, 그 현재들이 쌓여 미래가 된다는 선언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문화원이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의 맥락적 전복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본 궤도에 오른 두 개 프로젝트의 진정한 실험이 의왕지역에서 성남지역으로 옮겨 <성남, 도시에 말 걸기>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남이라는 공간과 장소성에 대한 낯선 접근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에 의한 새로운 접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의 현재적 재발견 프로젝트’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와 지역아카이브기획전 <미래유물전>이 이제서야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의 걸음과 실험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 성남지역 주민에 의해 발견된 지역이, 마을이 예술가와의 결합을 통해 어떻게 지역아카이브기획전 <미래유물전>으로 펼쳐질지 기대하며….

여 백

한 눈에 보기



_진행과정
_참여자 소개



한 눈에 보기 진행과정



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 11명으로 참여자가 확정 되었다.



나를 소개하고, 서로에 대해 탐색해 보는 워크숍, 개별 보드에 자기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 한 뒤 3명씩 앞에 나와 발표한다. 청중은 관심 있는 발표자를 선택해,조를 나눠 2차 탐색한다.



1차시

8월 27일

11월 12일

수료식/발표



수료한 11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팀별로 전시한 내용을 발표한다.



둘러앉아 평가와 소회를 나눴다.

참여자가 직접 경험한 성남의 장소를 사진과 물건을 가져와 소개한다.



이민희 퍼실리테이터가 도시를 바라보는 기준, '나'와 '타인', '예술성', '사회성', '역사성'에 대해 설명한다.



민병은 퍼실리테이터가 참고가 될 수 있는 마을읽기의 여러 사례들을 공유한다.



참여자가 강의를 듣고 다시한 번 어슬렁거리며 발견한 것들을 소개한다.

윤종준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상임위원이 '성남의 도시 유래와 마을 이야기'라는 주제로 특강한다.

공간과 장소의 개념으로 도시를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민희 퍼실리테이터가 강의한다.



2차시
9월 3일



3차시
9월 10일



4차시
9월 24일

11월 5일
10차시

10월 29일
9차시



재료와 자료를 활용하여 본격적인 전시 준비를 한다.



이민희 퍼실리테이터가 지금까지 참여자가 발표하고, 활동한 것의 의미를 강의와 연결지어 읽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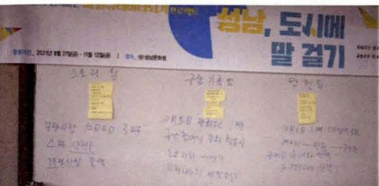


팀별로 전시할 장소를 정하고, 어떻게 전시로 나타낼지 구상한다.





참여자 '나'만의 장소, '타자'를 들여다보는 장소, '타자'와 교류하는 장소를 찾아보고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소개한다.



각자의 관심 영역을 바탕으로 팀별 워크숍을 위해 세 개의 팀을 구성한다.



1조. 모란·도촌_스토리팀은 모란시장의 한 곳 아쉬운 점을 탐색한다.



2조. 남이 님_구술기록팀은 문화원에서 경규남 님의 인생사를 듣고, 기록한다.



3조. 탄천팀은 누군가와 함께 걷는 탄천길을 염두에 두고 탄천을 걷는다.

5차시

10월 1일

팀별 장소 찾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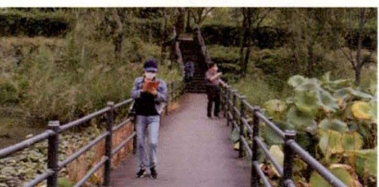
8차시

6차시

팀별 장소 찾기 1

10월 15일

7차시



1조. 모란·도촌_스토리팀은 도촌 섬마을 사는 길의 한 곳 아쉬운 점을 탐색한다.



2조. 남이 님_구술기록팀은 각자의 관점에서 경규남 님의 인생사를 기록한다.



3조. 탄천팀은 내가 함께 걷는 상대하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탄천을 걷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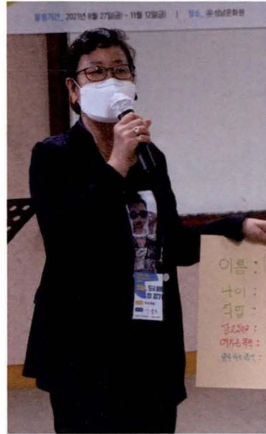
팀별 활동한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한다.



민병은 퍼실리테이터는 각 팀별 활동에 대해 피드백하고, 다음 팀별 활동에 대한 미션을 제시한다.

한 눈에 보기

참여자 소개



이점분(피오나공주)_

슈렉의 피오나 공주가 자신의 노력으로 예쁜 공주가 된 것처럼
본인도 열심히 살다보면 예쁜 공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피오나 공주라고 불리고 싶다는 점분 님.

공인중개사이면서 카페도 운영하시는 CEO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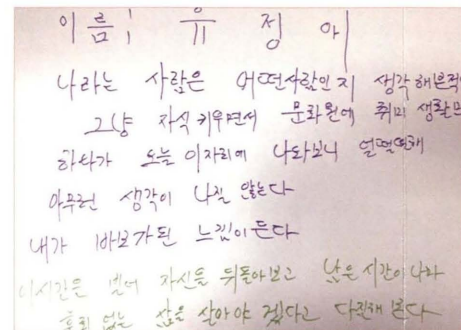
모란·도촌_스토리팀이 되어 자신의 출,퇴근 길이자, 산책길인 도촌동 섬마을 가는 길을 소개한다.



유정애(정애님)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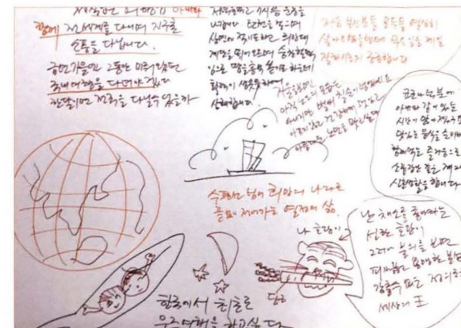
하대원에 사는 정애님은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에 참여한지 10년이 넘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배우고,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네요.”라며 수줍게 발표하신 정애님은 매 시간 원고지에 글을 써와 발표하시고, 스스럼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김광열(호돌)

여행업을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셨지만 국내는 많이 못 다녀서 올해는 전국 일주를 하고 싶다고 한다. 호돌이라는 별명처럼 호탕하시다. 호돌님의 제안으로 모란·도촌_스토리팀은 모란시장 주변을 둘러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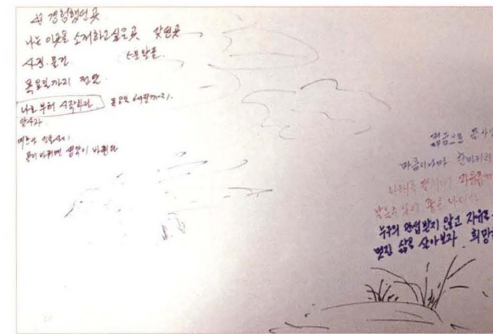


“...무조건 푸른 하늘을 그렸어요. 그리고 새 한마리를 그렸어요.
마음은 항상 한 마리 새처럼 날아보고 싶은 마음에... 날개를 펴고 자유롭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경규남(남이)_

이번 모임에 가장 나이가 많으시며, 새로운 도전을 가장 많이 하신 분.
이번 프로젝트는 마을을 돌아다니는 활동이 기본인데, 아픈 허리 때문에 걱정이 크다. 첫 시간인데 재밌다,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열정을 다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성남에서 여성문화 강좌 참여 경험은 구술팀이 만들어진 배경이 되었다.



유정춘(엘리할머니)_

살면서 여태까지 한 일 중에 가장 행복하고 좋은 일이 할머니가 된 거라는 엘리할머니.
발표에서도 미국에 있는 손녀 엘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둔촌주공아파트 기록 활동을 인상 깊게 보시고 참여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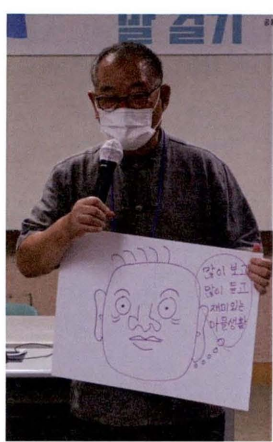
한 눈에 보기

참여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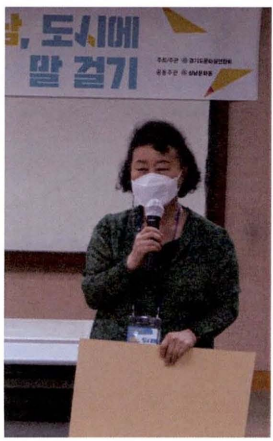
박화양(그린)_

분당에 거주하는 그린님은 친구 따라 2차시부터 참여하셨다. 취미는 영화관에서 영화보기, 가끔 혼자서도 영화관에 가신다. 책도 구경하고, 맛집도 들르고, 산책도 할 수 있어서 지금 사는 곳을 만족스러워 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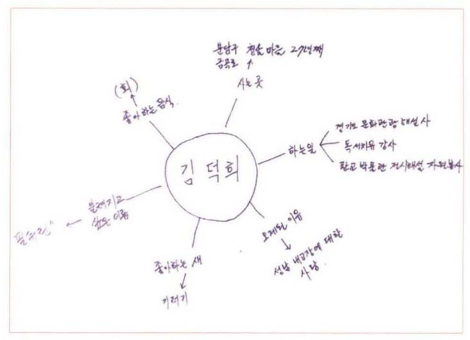
고종철_

야탑동에 사는 고종철님은 “집에 있는 것 보다 하나라도 배우는 게 보람이 될 것 같아” 참여하셨다. ‘야탑동이라는 데가 재미있는 데구나’, ‘여기 살만한 데구나’,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발표하시면서 노래도 부르시고, 시도 읊으시고, 영화 이야기도 하시고 동네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표현하셨다.



김덕희(필유린 | 必有隣)_

분당에 30년 가까이 살면서 마을이 사라지는걸 많이 봐온 필유린님은 사라져가는 걸 기록하고 싶어 참여했다. 필유린은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항상 이웃이 있다는 뜻이다. 중앙도서관에서 독서치유강사, 경기은빛독서나눔미, 판교박물관에서 전시해설자원봉사와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까지 다양한 일을 하신다.



틀여다보기 : 강의/개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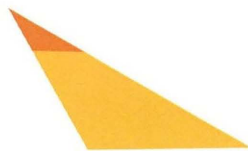
_공간과 장소에 대하여

_좋은 도시(마을)의 조건

_(특강) 성남의 도시 유래와 마을 이야기

_‘나’와 ‘타인’을 보는 장소/

팀별 장소 찾기를 위한 팀 구성하기



들여다보기 1_

공간과 장소에 대하여

[내가 경험한 성남의 장소 소개하기]

“새벽에 일어나니까 이 동네 냄새가 다르더라구요”

고종철 님이 전 시간에 해준 이야기로 보는 방법 말고 다른 감각을 활용해 마을을 돌아다녀도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나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여야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했다. 나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지, 나는 뭘 좋아하는지,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 등 남이 들려준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다.

“오늘 아침밥 피오나 님! 뭐 드시고 오셨어요?” 커피숍을 운영하는 피오나 님은 카페 오픈 준비를 하면서 커피를 마셨다고 한다. 나를 위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았다. 오늘 아침에 밥을 지었다. 된장찌개를 끓였다. 남편이 좋아하니까... 오늘 저녁에 불고기를 재웠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니까... 나는 평생 30년을 밥을 지어 왔는데 나를 위해서 지은 적은 있었나? 평생을 일 했는데 나를 위한



무엇을 해보았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쯤 가만히 멈춰 생각해보기를, 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오늘 새벽에 우리 동네 야탑동 어딜 걸었는데 거리 어디쯤에서 이런 향기가 나는데... 다들 것 없는 익숙한 그곳이 예의 그곳이 아니게 되는 순간이다. 감각이 살아난다는 것은 몸의 확장이기도하다. 몸이 바뀌면 생각도 바뀐다. 그곳에 대한 기억도 바뀐다.

첫 시간, 민병은 퍼실리테이터는 숙제를 제시했다. ‘내가 직접 경험했던 성남의 장소를 소개하기’이다. ‘마을큐레이터’는 있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과 달리 내가 경험하고, 해석하고, 감각하는 ‘당사자’되기가 중요하고 강조했다.

참여자들은 각자 소개할 내용과 관련된 사진 또는 물건을 가져와서 발표했다.



[고종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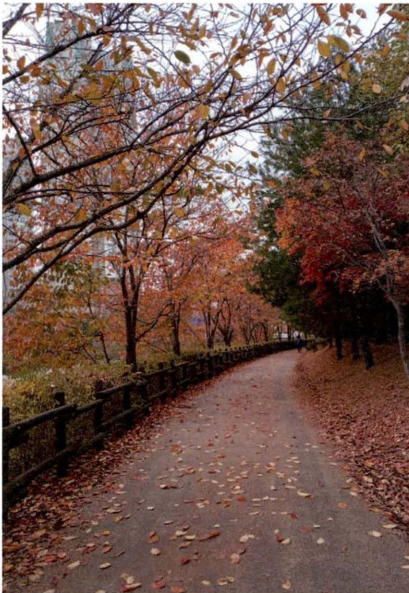
운중공원에는 팔각정이 있고 거기에는 또 분수가 아주 아름답게 있습니다.

저는 운중천 따라 걷는 길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야탑동에 살고 있는데 야탑천이 있어요. 그 야탑천을 쪽 따라 올라가다 보면 야탑 8교가 있습니다. 8교 아래에 기러기가 살고 있습니다.

애네들이 원래는 철새인데 텃새가 돼버렸어요.

부부가 거기에 터 잡은 지 한 3,4년 됐는데 새끼를 여섯 마리 낳아요. 그곳에 기러기 가족이 있습니다.



지금 운중천 따라 걷는 길을 말하고 있는데 탄천은 하천예요. 그리고 나머지 저쪽에서 이렇게 그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드는 데에는 야탑천, 여수천, 대원천, 독정천 등 여러 개가 있고 또 저쪽에서 내려오는 계상적천, 운중천, 금토천 다 합해서 11개가 있습니다.

이 하천 수량이 적셔줄 수 있는 논밭이 145개나 되요.

그러니까 성남은 옛날서부터 수량이 풍부했기 때문에 아주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여기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중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수량이 줄줄줄 흐르지 않아요. 수량이 많아요. 막 잉어도 있고 뭐 물고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불어서 새들도 많아요. 백로라든가 중대백로 쇠백로 여러 가지 자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민물가마우지가 중국에서 넘어왔어요. 애네들도 몇 십 마리가 탄천에서 또 떼를 지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남은 아주 생태가 살아있는 좋은 곳 그중에서도
저는 뭐 이 야탑천이니 대원천이 심지어는 요새 새로 제일
나중에 개편된 게 독정천인데 여기도 아름답지만 제일
아름다운 데는 바로 이 운중천 따라 걷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초대하고 싶습니다.



[김광열(호돌)]

저는 모란 민속 오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62년 김창숙 대령이라는 군인이 있었어요. 그 군인이
성남에 개척단을 모집해서 50여 명의 장병들이 대원천 복개
전에 대원천에 제방을 쌓고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서
모란 개발을 한 것이 그 시초가 됐어요.

모란이 이렇게 개척이 되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생필품을 파는 장이 서게
되고 그 장이 이어져서 4일 9일 5일 간격으로 서는
민속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1990년에 대원천을 복개 합니다. 복개가
되면서 약 3천 평 부지에 하루에 10만 명이 넘는 그런
시민들이 수도권에서 찾아오는 그런 아주 큰 시장으로
커지게 됐습니다. 손님과 장돌뱅이들이 모여드는 전국
최고의 민속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어요. 민속 모란장은
삼호선 모란역에 내려서 5번 출구로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란장이 쭉 펼쳐지는데 뭐 보자기만 피면 서로 물건을
주고 사는 그런 장터로 변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봄이 되면 노지에서 손수 호미로 그냥



깨은 썩이라든가 냉이 달래 또 곡식, 조나 수수 기장 그런 잡곡을 참 손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원래가 시골 장터 하면은 뒷박으로 이렇게 재서 이렇게 팔고 또 그냥 손으로 덮고 그냥 더 얹어서 덤도 주고 하는 것이 민심이었는데, 지금은 계량법 때문에 저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저울로만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모란장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란장을 많이 널리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희(필유린 | 必有隣)]

저는 우리 동네 역사 역사하고 그중에서 자랑하고 싶은 의미 있는 서울대 병원을 소개하고자 갖고 왔는데요.

그 전에 소개하고 싶은 곳은 제가 우리 동네에서 지하철도를 건널 때 거기서 클래식 음악이 나와요. 동네 양 옆에 이제 아이들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 지나다니면서 들으라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클래식 음악이 들릴 때는 제가 좀 격상된 느낌? 기분이 이렇게 좀... 나도 여기서 품격이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에 가스공사가 있고 토지공사가 있었어요.

토지공사는 지금 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센터로 바뀌었는데 토지공사가 사라지는 장면을 어느 날 제가 다 보게 되었어요. 한 순간에 먼지로, 연기로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폭삭 가라앉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서울대 병원인데 최초로 서울대 병원의 분원이 여기 분당 서울대 병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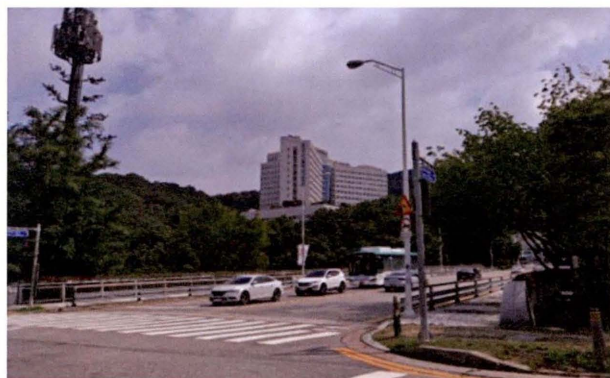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됐어요. 왼팔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제 의지대로 올라가지도 않고 이쪽 손으로 이렇게 올려야하데, 해서 서울대 병원 응급실이 집 앞이니까 갔지요. 그게 절차를 밟아서 가면 굉장히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응급실로 가서 몇 번 진료 받고 이렇게 완쾌가 됐고요.

제가 또 가까이 서울대병원이 있다 보니 저 멀리서도 못 고치는 병을 여기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친척 분 중에 시 부모님도 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결국은 여기 서울대병원에 오시게 되고 오시면서 또 제가 또 병문안도 가고. 유명한 그 병원이 집 앞에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자랑이고요. 또 나이 들수록 장례식장도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저도 수월치 않은 나이에 여기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가는 데는 순서 없잖아요. 제가 듣기로 3대가 적선을 해야 거기 가신다는데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렇게 주변에 교통 가깝고, 병원 가깝고, 장례식장 가까운 저희 집 앞에 서울대 병원을 자랑하고자 나왔습니다.



[김정자(세레나)]

성남동에 사는 저는 고마운 옥상 자투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성남에 와서 우리 친구 집에 갔는데, 옥상에 나를 데리고 갔는데 야채를 심었는데 정말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걸 좀 해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 집을 지을 때 거기 이렇게 자투리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집 짓는 사람에게 30만 원을 주니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얼마나 유용한지 딱 초봄이 되면은 가만 놔둬도 어떤 해는 비듬 나물 그 다음에 또 돈나물 있죠? 그래 갖고 봄에 야채 귀할 때 뜯어 먹고 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쓰레기, 우리 집에 음식물 쓰레기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보통 음식물 쓰레기가 과일 껍질이잖아요. 짬 음식 찌꺼기는 설거지 할 때 그냥 거기다 놔두면 물에 다 씻겨갖고 짬기가 나가고... 과일은 그냥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옆에 한 땅에다 파고 묻어요. 모든 쓰레기는 우리 두 식구, 세 식구 지금은 두 식구인데, 음식 쓰레기 나오는 게 싹 거기로 다가요. 그래서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서 너무 좋아 그거 이제 말씀드리고자 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과일 같은 거 버리니까 안심어도 저절로 나요. 안심은 호박이 나길래 놔뒀더니 단호박이 한 4개는 열려요. 올해는 이런 누른 호박이 처음부터 여는 걸 가만히 놔뒀더니 두 개가 열렸어요. 어느 해 생강을 심었는데 생강을 너무 많이 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취미를 본 거지. 그런데 쓰레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쓰레기를 저런 자투리 공간이 조금만 있어도 되고 화분에도 돼요. 화분에다 파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흙보다 싹혀서 다음 해에 내가 뭐 심을 때 이렇게 흙에다 섞어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먹습니다.

[유정춘(엘리할머니)]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이 야탑동에 있는 성남아트센터인데요.

분당에 한 30년가량 지금 살고 있는데 다녀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 참 정감 있는 장소가 아트센터가 아닌가 싶어요. 아트센터는 오페라하우스 그 다음에 콘서트홀 또 미술관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건물 자체가 아름다운 게 전면에 있는 아트 오페라하우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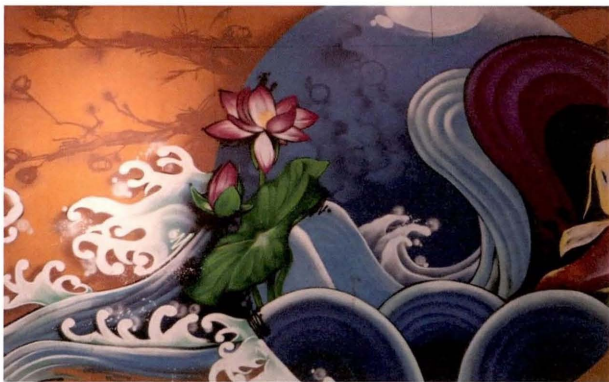
근데 이 오페라하우스가 처음에 개관할 무렵인데 강수진 발레리나가 독일의 발레단을 초청해서 우리들한테 보여줬는데 너무나 천상의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커피숍도 있고 집에서 가까워서 자주 들락거리는 텐데 같은 공간인데도 강수진 발레를 볼 적에는 천국과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한 5~6년 전에 양희은 콘서트를 봤어요.

같은 오페라하우스였는데, 저도 벌써 나이가 들었지만 나이 들어서 노래하는 양희은 목소리가 너무 듣기가 거북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곳이었는데도 10만 원 주고 들어갔던 콘서트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같은 공간이라도 느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구나... 그렇게 느꼈죠. 그리고 이 앞에는 서울의 그 올림픽 조각 공원처럼

굉장히 멋진 조각들이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내려오면 이매동으로 들어가는 지하도가 있는데 거기에 그래피티를 학생들이 그려서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유치할 정도였던 것이 요새는 아주 전문가들이 멋진 그래피티 예술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남에 있는 건물 중에서 또 장소 중에서 가장 가볼만 하고 즐겨 찾을 만하고 또 우리 주변에 이런 게 더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싶은 아트센터를 소개합니다.





[이점분(피오나공주)]

저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을이 무르익는 것 같죠.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물건이 하나 또 있어요. 요 물건 혹시 아시나요. 저 꼭 판매 사원 같죠.(ㅎㅎ) 근데 요거는 코뚜레라고 해요.



그리고 저 길이 어디냐면 저는 하대원 사는데 저희 카페가 도촌동에 있어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거리를 걷다 보니까 저 정겨운 호박이 세상에나! 소나무에 저렇게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놀하고서 봤는데, 순간 아빠 생각이 갑자기 밀려오는 거예요. 아빠가 저희가 어렸을 때 이것을 소에 코를 꿰어주는데, 아빠 이렇게 송아지가 힘들어하는데 왜 이런 걸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른이 되면 상투를 틀듯 송아지도 크면 이거 코를 꿰어서 농사지을 때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용도로 쓰셨대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 제가 부동산을 하잖아요. 가끔 집에 가면 이게 딱 걸려 있어요. 어머 저거 뭐지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이게 집이 안 나갈 때 요거를 갖다 걸어 놓으면은 집이 잘 나간다고 해갖고 그래서 걸어놓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직접 사용한 게 또 효력이...

이게 지금 몇 십 년 된 건데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를 소개할 기회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하대원에서 도천동까지 걸어가는데 40분 정도 걸리잖아요. 눈이 억수로 많이 온 날이 있었어요. 작년에 눈이 그렇게 올 때 제설 작업이 하나도 안 된 거야. 카페를 문을 열어야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걸어서 갔더니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도 어느 날 갑자기 나쁜
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차를 버리고 (제가
오토바이도 잘 타요) 우리 부릉이도 버리고 내가 걸어보자!
그래서 요즘에는 걸어요. 도촌동까지 걸기가 참 좋더라고요.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인도가 없어요. 차도는 있고 인도가 없어서 이 상황을 조금 알리고 싶기도 하고, 거기를 가다 보면 섬마을 공원이 있는데 제가 한 7~8년 동안 카페를 하면서 그쪽에 섬마을 공원이 그렇게 예쁜 곳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나는 우리 이 문화원에 지난주에 처음 왔듯이 이번에도 그
섬마을 공원을 한번 소개를 해서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화양(그린)]

안녕하세요. 전 그린입니다. 저 건물은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이에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집 앞에 있는 청소년 수련을 제가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저건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혀 있지만.

제가 강남에서 한 40년 가까이 살다가 5년 전에 분당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저희 동네에 시니어 플라자라는
복지센터가 하나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길가에 크게

생기면서 건물이 아주 훌륭했어요. 그리고 강사분들을 참 좋은 분들을 모셔서 거기 강남뿐만이 아니라 분당에서도 오고 다른 곳에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운동도 하고 올드 팝송도 부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여기 와서 다닐 곳을 찾다 보니까 저곳이 있어서 갔더니 너무 많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와서 같이 뛰어 놀고 또 그 아이들이 있는 그 공간에서 그림도 그리고 요가도 하고 이렇게 저기를 잘 이용을 했어요. 바리스타 교육 하는 데서는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도 하고 또 악기를 또 배우는 데서 좋은 소리가 나고 해서 그 공간이 참 우리에게 풍성한 문화적인 혜택을 주는구나 하고 좋아하게 되면서 더군다나 이렇게 노인과 아이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이 참 편안했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라서 좋아했어요.

그리고 도서관이 있는데 책들은 좀 오래됐어요. 십 년이 훨씬 넘은 누런 책들, 보기는 좀 상하지만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따로 드러누워 책을 보고, 또 가운데는 어른들이 앉아 있고 다른 구석에는 아이들이 앉아서 자기 책을 보기도하고 핸드폰을 보고... 조용히 같은 공간에서 그런 뭔가를 향유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젊은이와 나이드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서 어떤 풍요로움 같은 것들을 느껴서 참 좋았습니다.

급하게 찍어오기는 했는데 건물은 별로 예쁘지 않아요. 운영을 잘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저 건물이 있으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지금 휴관이에요. 그래서 참 아쉬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문을 닫고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길게 말했는데 빨리네요. 그만하겠습니다.



[신미자(미자님)]

신흥1동에 살고 있는 신미자입니다.

여기도 지금 신흥1동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개를 살짝 넘으면 여기가 다 신흥1동이에요. 이 문화원도 신흥1동입니다.

저 모습은 옛날 2009년 이전 성남시청입니다. 2009년 7월에 지금의 중원구 야탑동으로 성남시청이 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웬만큼 큰 주민센터 같은 그런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객관적인 얘기만 하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것 때문에 우리 동네 주민들이 굉장히 데모도 많이 하고 정말 민원도 엄청나게 넣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객관적인 얘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자기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진짜 막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잠깐 순간적으로.

근데 이유는 2009년에 이사를 가서 2019년에도 이 시립의료원이 문을 못 열었습니다. 작년 7월에 열었어요. 2020년 7월에 우여곡절 끝에. 반대 또 그 다음에 짓는 사람들도 여러 번 바뀌었고 건설사도 여러 번 바뀌고 그리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시청 이사한다고 할 때 우리 주민들은 통장단들이나 유관단체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수정구청이 갔으면 좋겠다. 구시청자리에. 시민회관이 그 옆에 있어요. 구청을 하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여기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서명을 받더라고 아주 진짜 죽기 살기로 서명을 받았어요. 근데 시민의 발의로 세워진 최초의 성남시의료원이다. 이렇게 하지만 시민의 발의라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그때는 불과 만 명이 좀 넘는 시민단체 회원들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서명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사실은 우리가 만 명이라 그러면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그거 진짜 서명 받는 게요, 막 한 달을 받아도 겨우
200명을 받을까말까 정도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가 시립의료원이 생겼는데 그동안에
그 10년 이상이 시청이 있어서 그렇게 장사가 옛날에 잘
됐다는 거를 생각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는 시청 사람들 한 명도 안 와. 뭐 시청 이사 가면
어때!’ 이랬어요. 근데 일단 이사를 가고 나니까 거기에
관련된 업종들 완전히 다 사라지고. 동네가 완전히 은하철도
999를 보는 것 같아요. 황량한 우주. 아주 잊어버린 세계가
바로 여기. 우리 집은 신흥1동, 수정로만 바로 건너 옆어지면
코 닿는 데가 태평2동입니다. 거기가 바로 시민회관, 지금은
성남시 의료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여 년을 하여튼 간에
얼마나 그 상인들의 마음 고통이 많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지금은 여기가 성남시의료원이 감염병 전문의료원으로
지정돼서 생각보다 굉장히 사람도 많이 오고요. 대부분
공공기관이 전부 다 문 닫았잖아요. 여기는 사람이
넘쳐가지고 난리예요. 네 그래서 지금 좋습니다.

[유정애(정애님)]

저는 하대원에서 온 유정애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선생님이 글을 써오라는 줄 알고 남한산성 갔다 온 소감을 써왔거든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주에 문화원에서 마을큐레이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인 적이 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큐레이터라는 생소한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참가를 했었다.

가서 보니 글도 쓰라시고 무슨 발표를 하라고 하시는데 난 4~50년 전에 글을 써보고 처음으로 이런 걸 써보는 것 같아 막상 펜을 들고 보니 알파벳 영어도 고사하고 한글도 제대로 써지는지... 그랬다. 그날은 자기소개와 대충 끝내고 끝나고 나서 다음 주 숙제를 내주시어 부담감도 들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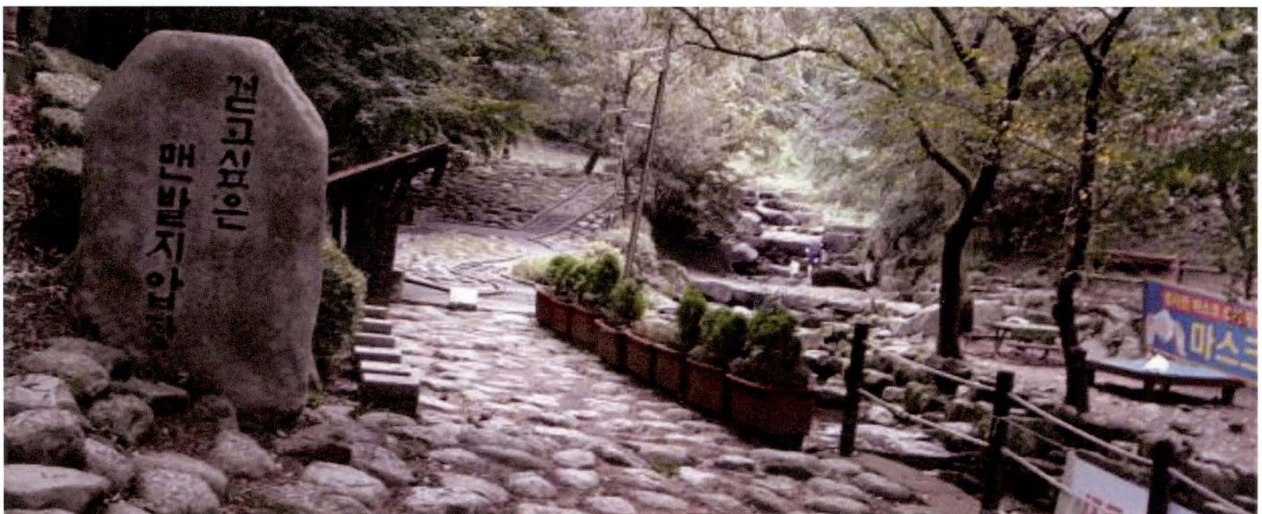
그래서 오늘은 무작정 길을 나서 보려고 했다. 그래도 성남 하면 남한산성이 으뜸인 것 같아 남한산성으로 발길을 돌려 보았다.

지난 세월을 그냥저냥 생각 없이 왔다갔다 다녀본 것 같다. 그래, 오늘은 마음먹고 한번 가보려고 마음을 먹었다. 남한산성 가는 길목에 금강 시장이란 시장이 있어 따라 올라가는데 한쪽 길목에 좌판을 놓고 물건을 파시는 분들을 보면서 할머니께서 채소 몇 단을 갖다 놓고 꼬깃꼬깃한 1천 원짜리를 가지런히 세시고 계셨다. 그중에 그런 중에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 바지 속 주머니에서 천 원짜리 몇 장을 내시면서 채소 한 꾸러미를 들고 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정겨운 느낌이 들었다. 저기 깨끗하고 신선한 백화점 물건도 좋겠지만 그곳에는 그런 정이 없을 것 같다. 성남은 도시정비 사업

으로 하루가 다르게 고속으로 발전하는 생각을 하니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머릿속에 찍어두고 싶은 사진이었다. 시장에 와서 모두들 바쁘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발길을 돌려 남한산성으로 올라가 보았다.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산천초목들이 싱그럽게 맞이하여 주었다. 며칠 전만 해도 무라도 녹일 듯이 이글거리는 태양이 고개를 숙여 어느덧 시원한 바람이 분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는가 보다. 마치 청량한 사이다 한 잔을 마신 느낌이 들었다. 새삼 남한산성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싶었다. 시설도 잘 되어 있구나. 감사하구나 생각이 들어 성남 시

민들이 축복받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깨끗하게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나부터 조그만 실천으로 일회용컵 하나라도 줄이고, 휴지 한 조각이라도 잘 버려 깨끗하게 잘 살아 보려고 노력해야겠다.



[마을읽기의 여러 사례]

참여자들의 발표를 듣고 혹시 필요할지 몰라 챙겨왔던 몇 개의 사진을 준비되지 않은 채 급히 소개하기로 했다. 사례가 모범이 될까 우려되어 미리 소개하지 않고자 했던 것도 있었다. 동네 관찰이란 무엇을 보란 것인지,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소문난 맛집이나 쾌적한 카페 같은 나름 멋진 공간을 발견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는, 잡히지 않는 모호함과 해보지 않은 생경함이 난제가 된 듯했다.

동네읽기의 다양함, 자기경험으로 소개하는 마을에 대해 아주 간단히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민병은 퍼실리테이터]

동네 관찰에 대해 다양한 방식을 소개하려고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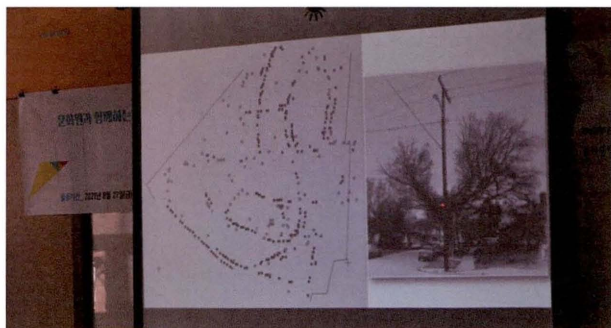
이 사진은 데니스 우드라고 학자가 자기 동네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쪽이 뺀쪽 나와 있는 요런 모양새의 동네입니다.

이 지도는 동그라미도로 뭔가를 나타냈어요. 이 표시는 가로수를 표시 한 건데요. 검은 동라미는 공중에 지나가는 전선 아래에 있는 나무를 표시한 거구요. 하얀 동그라미는 전선에 걸려 곁가지를 쳐낸 나무입니다.

사진을 보면 나무의 형태가 전봇대로 인해 가운데 부분이 잘려나갔어요.

이 사진과 지도를 본다면 도대체 왜 나무를 이렇게 했을까? 전봇대를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질문이 생기죠. 이걸 보면 이 지도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더 볼까요? 이걸 뭐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그 동네 맞아쥬. 밤에 불 밝힌 것을
표현한 거 맞습니다.

네... 밤에 가로등불을 켜진 것인데요.

가로등이 있는 장소도 장소지만 그 불의

밝기가 어느 만큼 밝혀줄 수 있는가? 밝기가 퍼지는 정도를 나타낸 거예요.

가로등이 있어도 꺼져 있으면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고, 가로등이 있는데 비춰주지 못한다면 역시 있어도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가로등의 역할은 켜져 있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넓게 밝혀 주느냐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동네를 쭉레쭉레 다니다가 어느 날 이건 뭐지? 어디는 어둡고 어디는 밝은데 어디는 가로등이 있어도 미치지 못하네?

이 지도를 보고 있으면 가로등이 왜 설치되어있는지 다시 묻게 됩니다.



이런 방식의 지도, 우리는 이런 걸 지도라고 생각 안하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는 도로가 표시되어있고 편리하고 목적지를 바로 찾을 수 있는 것만을 지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갖고 있는 도로 교통지도를 좀 머릿속에서 지워보셨으면 좋겠다, 또 우리 동네를 이런 방식으로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아까 피오나 공주님이 그 얘기했죠? ‘걸어보니 걷는 이를 위한 보행 도로가 없더라’고. 안 걸으면 모르셨을 거예요. 부릉이만 타고 다녔으면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길은 누구를 위한 길일까?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다니지? 어딘가에 보행도로가 나있나? 물음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해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 드려볼게요.

이 사례는 한 3~4년 전에 의왕시에서 했던, 어느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시작한 분들 이야기예요.

주민분들이 어느 동네를 어슬렁어슬렁 다녀왔습니다.

숙제가 ‘동네를 그냥 다녀보세요’ 였거든요.

처음에는 도대체 뭘 보라는거죠? 모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시 가보시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모르는 동네를 두 번째 다니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상점 간판에 써있는 두 자리 전화번호를 봤다는 거예요.

00-0000, 두 자리 국번호를 아직도 사용하는 있는 간판이 눈에 많이 띄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시대 동네인데 이 간판이 아직도 있지?



그러다 동네 간판을 지도에 표시해 보기로 했습니다. 의류가게, 미용실, 세탁소....지도에 표시하다보니 생각지도 않게 설비집이 많단 걸 알게 된 거죠.

집 고장나거면 수리 해주는 철물점과 출장서비스를 해주는 가게가 많았던 거죠. 왜 그럴까 질문이 생겼어요.

이 동네는 오랫동안 재개발 가능지역으로 무수한 얘기만 오갔던 동네였던 거예요. 재개발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고장 난 집을 수리하면서 살게 된 거지요.

이 또한 많은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동네였다면 이런 경로를 거치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선입견이 질문을 막아버리기도 하지요. 이 과정은 2년에 걸쳐 진행된 내용입니다.

이 낮설게 보는 방식 중 하나가 나를 다른 곳에 갖다 놓는 거예요.

아마 이제 모란시장에 가보셨을 때 많이 익숙했을 거예요.

다른 오일장을 가봤다면 또 다른 게 보일 수 있겠죠.

나를 다른 곳에 두었을 때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인 거죠.

다른 이야기를 볼게요.

나로부터 시작된 산책길을 소개한 사례입니다.

이분은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예요. 의사는 아니구요.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다니던 산책길을 그린거예요.

이분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3년차에 가능했어요.

집안일도 그렇고 병원 일도 그렇고 누구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별이라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다니면서 강아지한테 하소연했던 거죠. 근데 이 강아지가 어느 날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반려견이 죽은 것에 대한 죄책감, 내가 계속 나쁜 얘기만 듣게 해서 암에 걸린 것 같다는 죄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슬펐다고 그래요. 별이와 나눈 얘기는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정말 많이 울면서 얘기했었어요.

두 번째 별이를 입양해서 키우면서 즐거운 얘기를 나누면서 다니는 길이 되었다고 해요.

이런 자기만의 산책길을 발표한 이후에 죽은 별이가 다시 생각나기도 했고, 별이한테 받은 위로를 환아들과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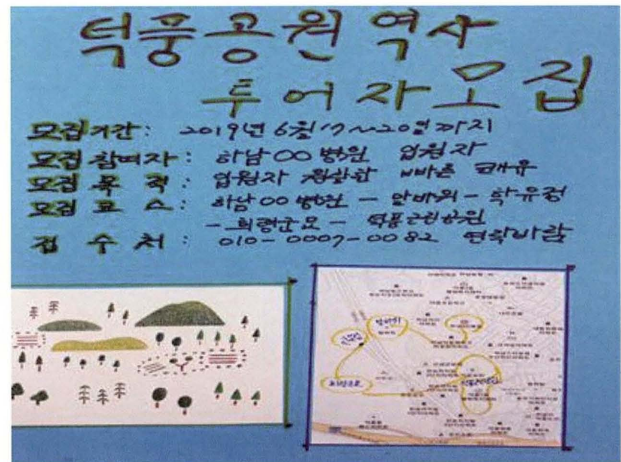


병원 휴게실에 산책길 투어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이 병원은 대장암 수술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환자 두 분이 신청을 했어요.

산책길 경로를 자세히 설명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걷는데 몇 시간 걸립니다.



후일담이 더 재밌어요.

갈 때는 그렇게 한스러운 하소연을 하신대요.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대장암에 걸려서...등 근데 돌아올 때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어요. 퇴원하면 뭘 할거예요...

뭘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하면서 이것은 퇴원하신 한 분이 엽서를 써서 보내주신거라고 하네요. 살림을 다 정리하면서 버릴 거 버리면서

산책 다녀왔던 때를 다시 한 번
회상했다하는...
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나를 다시 보게
만들더라구요.

늘 봤던 거를 한번 다시 보고, 뻔한 것에
한번 질문을 해보고
원래 그랬다는데 진짜 원래 그런 건가?
물음표를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이 분은 오후 3시에 노모와 산책하는 오후
3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결혼 안 하신 독신 50대 여성인데 친정
엄마랑 같이 살아요.
엄마가 80이 넘으셨어요. 거동이 불편하지만
가능한 매일 산책을 하세요. 3시 이후에
해가 기우는 시간에. 근데 엄마랑 매번
산책할 땐 몰랐는데 숙제도 할 겸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산책 중 힘들면 잠시 쉬는데, 엄마가 앉아서
쉬는 의자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등받이가 있는 벤치에서만 쉬시는
거였어요. 허리를 받쳐주는 등받이 벤치에
앉아야 쉬이 가능했던 거죠. ‘노모와의
산책’을 글로 쓰면서 인식하게 된 거죠.

우리도 1인 1 에세이 쓰는 게 마지막에

숙제예요.

계속 활동을 하시면서 유정에 넘처럼 글을
써놓으세요.

나중에 1인 1 에세이 쓰실 때 안 힘드실 수
있어요.

팀 활동을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을 내 감성으로 쓰실 거예요.

글 쓴다는 게 큰 도전이겠지만 한번
해봄직하다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강의: 공간과 장소에 대하여]

이민희 퍼실리테이터는 도시계획과 토목공학을 공부했고, 도시를 인문학적, 철학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이민희 퍼실리테이터가 이번 활동의 주제인 ‘도시에 말 걸기’에 대한 의미를 ‘장소애’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앞서 참여자가 자신이 경험한 장소에 대해 설명한 것이 ‘당사자성’에 따라 도시를 읽어가는 첫 시작이라는 연결성을 가지고 강의를 이어갔다.

[이민희 퍼실리테이터]

“마을큐레이터: 도시에 말 걸기” 얼핏 보면 나란히 등장한 단어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보통 말을 거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말을 거는 이유는 여럿 있지만, 들을 답변이 있거나 대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 영화 개봉을 앞둔 배우의 인터뷰를 떠올려 봅시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의도와 방향성을 띤 질문을 배우에게 건네면, 인터뷰 대상인 배우는 자신의 언어로 적절히 대답합니다. 이 인터뷰로 영화의 정보, 촬영 에피소드, 배우 개인의 서사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화에 대해 상상합니다. ‘영화 개봉하면 꼭 봐야지!’라든가 ‘이 시국에 정말 적절한 영화네. 좋은 영화로군.’ 등 어떤 판단도 합니다. 영화가 만족스러우면 내가 이해한 대로 누군가에게 영화와 배우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때 사실만 나열하거나 배우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들은 그대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각 경험과 감상을 곁들여 이야기를 구성하고 전달하지요. 영화 내용과 비슷한 기억을 떠올려 덧붙이기도 하고 영화를 본 날 상황을 함께 말하기도 합니다. 한편의 영화와 그 영화가 놓인 여러 맥락에서 편집하고 취사선택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일종의 큐레이션 작업입니다.

도시에 말을 거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선 의도와 방향성을 갖고 도시를 구성하는 사람들, 도시의 역사와 정치 사회적 현황, 건축물, 사건·사고 등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를 볼 때 스토리의 맥락을 이해하듯이, 도시를 채우는 구성 요소들과 그 경관을 살피고 경관이 놓인 상황과 조건을 읽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나의 의도와 방향성, 즉 “당사자성”을 갖고 “내가 사는 도시”를 인터뷰

하고, 역시 “당사자성”에 따라 도시의 경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 같은 장소더라도 관찰자가 어떤 태도로 보느냐에 따라 경관은 다른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됩니다. 도시에 말을 걸고 경관을 읽는 관찰자는 주어진 대로 습득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 아름다운지, 흉물스러운지 등 오감으로 경험하고 느낍니다. 과거와 지금의 차이를 살피고 개인의 기억과 역사를 비교합니다. 읽어낸 도시의 모습을 근거로 가치 판단을 하지요. 개인의 필요이든 공익이든, 도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사자성을 갖고 읽어 낸 도시의 이야기를 정리한 후, 전달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작업이 마을큐레이션입니다.

이처럼 마을큐레이터는 자신이 움직이는 공간에 담긴 의미 있는 이야기, 달리 말해 자신과 관련된 기억, 사람, 사건 등을 찾고 해석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행정구역 상한 곳일 뿐인 도시가 개인의 삶과 경험, 감정을 통해 의미로 가득 찬 애뜻하고 구체적인 장소로 전환됩니다. 큐레이터는 장소에 담긴 이야기를 큐레이션 할수록, 지난 삶을 기억하고 현재와 자신을 돌아보며 관계적 맥락을 살피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 성찰을 하지요. 마을큐레이터는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으며, 반대로 자신의 장소를 갖고 있기에 간단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실존주

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사람의 존재를 고민하고 연구할 때, 사람과 그가 사는 장소를 서로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장소’는 인간 실존이 외부와 맺는 유대를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실재성의 깊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위치시킨다.”(『장소의 존재론적 사유』, 에드워드 켈프의 <장소와 장소상실>(2005, 논형)에서 재인용) 인간은 당사자성을 매개로 장소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말을 걸고, 도시도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5세기 로마제국에서 활동한 신학자이자 성직자인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오랜 시절을 함께 보낸 목숨 같은 친구가 세상을 떠나자, 친구와의 추억이 서린 장소에 대해 “그와 함께 말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그가 없음으로 해서 내게는 괴로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내 눈은 사방을 두루 살펴 그를 찾았으나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있지 않는 모든 장소를 싫어했습니다. 이런 장소들은 그가 아직 살아 있을 때 어디에 가 있으면 “자, 조금 있으면 곧 올 것이야.”라고 말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과 장소의 관계, 장소를 가지려는 인간의 바람은 인간 본연의 성향일 수 있습니다.

장소를 갖겠다는 욕망을 지리학자 이

푸투안은 토포필리아(Topophilia)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스어로 “장소, 땅”을 뜻하는 “토포스(topos)”와 “우정, 사랑, 병적인 애호”를 뜻한 “필리아(philia)”의 합성어로, 인간과 장소 사이의 정서적 유대 및 결속을 뜻합니다. 이푸투안에 따르면, 사람은 경험과 감정, 그리고 자신만의 문화를 가지고 어떤 공간과 만나며,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누적되면서 막연히 추상적이었던 공간은 친밀하고 의미 있는 장소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장소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감정을 이입해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포필리아를 장소애(場所愛), 토지애와 비슷한 느낌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대하소설 <토지>의 주인공인 최서희가 끝내고향으로 돌아가 토지문서와 본가를 되찾으려고 했던 원동력은 바로 이 토포필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포필리아는 단순히 어떤 공간을 향한 애착 정도가 아닙니다. 자연이든 인공 환경이든 그 공간을 통해 내 이야기를 하려는 욕망, 그 환경을 내 장소로 빚어내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성향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주변 세계에서 개인적 안전과 안정의 느낌을 얻고, 뿌리내리는 장소로 구조화하려는 성향입니다. 토포필리아는 이런 장소화의 욕구, 갈망, 과정을 보여줍니다. 즉 장소를 갖겠다는 성향, 내 정체성을 드러낼 이야기를 만들겠다는 욕구는 바로 이곳에 내가 실존

함을 선언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마을큐레이터: 도시에 말 걸기”는 바로 이 토포필리아를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동시에 다른 이의 장소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의 삶을 인정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내 실존의 욕구를 들여다보면서 혹시나 장소를 빼앗긴 타자는 없는지, 인간 본연의 성향을 억압당하는 타자는 없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에 말을 걸면서 우리는 이 도시에 함께 존재하는 모든 이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이 있을 장소가 있어야 하고, 사회는 사람이 되려는 인간을 환대해 주어야 한다.

장소는 직업, 집 같은 것들이고, 환대는 그 사람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말을 듣고 그와 소통하는 것이다.”

(김현경의 <사람, 장소, 환대>에서 인용)

들여다보기 2.

좋은 도시(마을)의 조건

[강의: 좋은 도시(마을)의 조건]

큐레이터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 장소를 선별하고, 맥락을 만들어 전달한다. 따라서 자신이 그 장소를 선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이민희 퍼실리테이터는 좋은 도시(마을, 장소)란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이민희 퍼실리테이터]

대다수 현대인들이 삶을 일구는 장소는 도시입니다. 시골의 반대말로 도시를 떠올리기 쉽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이 모여 사는 동네 중 요즘은 도시(도시화된 지역)가 아닌 곳을 찾기 더 어렵습니다. 다만 도시의 범위와 규모, 계획도시인지 자연발생 도시인지 여부, 도시의 기능 등으로 도시를 구분 지을 수는 있겠죠. 우리의 거주지, 일터, 쉼터 등 삶의 전반적이 장소를 제공하는 영역이 도시에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 우리는 존재를 드러내거나 적절한 장소를 점유하지 못해 존재를 억압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인의 다른 표현은 도시 종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삶이 일어난다는 말은 일정기간 반복

적인 활동으로 구성된 일상을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이 일어나는 장소를 누군가와 공유할 때, 그들과 동질감을 느낍니다. 이런 장소감을 갖고 타자를 환대하거나 연대하기도 합니다. 앞서, 구체적 위치에 내가 실존함을 선언하려는 욕망이 토포필리아라고 했지요. 이렇게 도시는 언제나 다양한 구성원의 실존 이야기, 생존권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도시는 인간 개인의 생존권이 보장되며, 동시에 사회 및 공공생활의 사회성이 이루어지는 영역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도시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적절한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고향이나 집, 화장실, 내 몸 자체는 지극히 개인적인 장소입니다. 반면 마을회관, 공원, 다리나 길처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만남이 일어

나는 장소도 있습니다. 한 도시에 살고 있을 때 딱히 인지하지 않았지만 불현 듯 타인을 들여다보게 되는 장소도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한 거주지역의 식당, 종로의 탑골공원처럼 노인들이 주로 모이는 공간 등입니다. 도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야기들을 충분히, 건강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좋은 도시란 어떤 도시일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를 홍보하는 슬로건이나 개발계획의 주된 목표, 지역 정치인이 해당 도시민들에게 읍소하는 말을 떠올려봅시다. 여기에는 이들이 생각하는 좋은 도시의 기준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높은 집값,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재개발 및 재건축 시행, 최첨단 전자기술을 도입한 인프라 등이죠. 사실 우리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대하기보다 자연스레 이런 것들을 갖춰야 좋은 도시라고 여깁니다. 내가 사는 곳이 이런 효율과 안전이 보장된 곳, 돈으로 매진 가치가 높고 편리한 곳이길 바랍니다. 이런 바람이 전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이런 기준들이 남겨놓은 폐해들을 곳곳에서 자주 발견합니다. 청년들은 직장과 집이라는 장소를 얻기 어려워졌습니다. 극소수만 누릴 수 있는 효율과 안전을 챙기느라 다수가 위험에 처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건축물이 우리 시선을 빼앗는 동안 지금껏 도시를 구축하고 지탱했던 역사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이들이 있는 반면, 난민이나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처럼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아직 도시 구성원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도 또 어떨까요? 이들은 마치 정해진 구역에서만 활동해야 하는 듯, 도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집단, 생산성이 높은 집단에게 맞춰 돌아갑니다. 지금껏 우리가 좋은 도시라고 여겼던 기준을 따를 때, 과연 도시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토포필리아를 정당하고 건강하게 드러내고 있을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장소를 향한 본연의 성향을 인정받고 있을까요? 일부만이 자신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도시는 달리 말해 나머지에겐 폭력과 배제를 일삼는 도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율과 안전이라는 기준을 보완할 어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여럿 있겠지만, 예술성, 사회성, 역사성을 갖추고 균형을 이룬 도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시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겉모양이 화려하거나 세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주하는 도시 안에서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주하는 도시를 예찬하고 감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나 그림 등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삶이 주는 가치 실현의 만족감이 구체적

이고 강력해야 합니다. 삶에서 충만감, 아름다움을 느껴야 하지요. 또한 도시는 개인과 공동체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여러 목적과 모습을 지닌 공동체들이 도시를 공유합니다. 개인은 반드시 사회 일부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공동의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회 활동은 개인을 지우거나 합계로 남겨두지 않고, 오히려 개인은 사회 활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경제 활동 가능성을 떠나 적절한 사회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동체를 이루는데 필요하다면 도시는 끊임없이 교육 수단과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도시 공동체원의 삶은 성인지감수성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시 안에서 자연스레 관련 교육을 받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도시 분위기 안에서 관계를 넓히고 친구를 사귄다 수 있어야겠지요. 도시의 정치와 경제 계획, 제도는 실제 시민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도시의 행정은 시민의 존재를 드러내야 합니다. 마지막 역사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유명한 유적지나 유물, 거창한 과거 이야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접하는 방식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짓고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도시에서 삶을 일구는 이들이 최소한 자기 이야기만큼은 돌아보고 쌓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씨줄과 날줄을

엮어 천을 짜듯이, 자신의 역사를 도시의 역사와 함께 어울려 짜서 이야기를 짓고, 미래 이야기를 남겨야 합니다.

기술과 부동산 가치, 아파트라는 최종 목적 대신 조금 낮설지만 예술성, 사회성, 역사성이 균형을 이룬 도시를 가치 있게 여기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삶이 존중받고 가능한 많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장소를 충분히, 건강하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슬렁거리며 발견한 것 소개하기]

이민희 퍼실리테이터는 지난 시간 공간과 장소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공간에서 사람, 사건, 의미 등을 찾고 해석하는 작업, 성남이란 도시 공간을 읽고, 공간과 대화하고 이야기를 발견하는 작업이 바로 성남의 장소들을 찾는 작업이다.” 라고 했다.

이어 참여자에게 장소의 개념으로 동네를 다시 한 번 어슬렁거리면서 새롭게 보이는 것을 소개하는 과제를 제시했다.



[김광열(호돌)]

모란장은 가장 큰 민속 장으로서 그 모습이 보기가 좋았습니다. 전에는 모란장에 여러 번 가도 관심이 없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런 상징물이 있었습니다.

저게 버섯 모양이랍니다. 모란시장의 상징물이라요. 저게 뭔가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기둥인 줄 알았어요.

저런 상징물도 있고 다양한 상품들이 먹거리서부터 옛날 동전부터 없는 게 없어요. 둘러보면서 저는 여기를 조금 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 이런 게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옛날에는 입구 대로변이 주차장이었는데요. 거기를 장날이 되면 차를 다 치우고 입구에서부터 꽃부터 할머니들이 들에서 밭에서 따온 나물, 수수 이런 곡물 해가지고 저 끝까지 들어가면 한 눈에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장이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서기 때문에 바깥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도 아 저게 모란장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안에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은 굉장히 잘 꾸며놨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새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잘 꾸며놨지만은 상수도 이런 것을 조금 더 위생적으로 잘 갖추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덕희(필유린 | 必有隣)]

우연히 마을큐레이터에 참여하게 되면서 무디기만 했던 내면의 나를 흔들어 깨우는 것 같았고 이곳 분당에 처음 동지를 틀었던 그때의 감성으로 유턴되는 것 같아 신기하기만 하다.

늘 그렇게 그냥 스쳐 지나쳤던 집 앞 베란다 나뭇가지 사이를 오가며 날아드는 새소리와 엇그제까지만 해도 땀땀 울어대던 매미소리 대신에 간간히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에 ‘벌써 가을이네’ 하며 설레임도 느낀다.

집 앞 탄천 산책길에 징검다리를 건너며 비 온 뒤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와 가을바람에 울긋불긋 살짝 물들기 시작하는 나뭇잎들이 노래하듯 부딪히며 사사삭 나는 소리와 푸르른 녹색의 강아지풀들이 서로 어깨동무하며

누렇게 물든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인다.
이렇게 멋진 곳 분당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먼저 이야기했듯이 나의
노후 건강은 가까이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또 노인 교육과 노후의 여유 시간을 알차게
취미와 정보 소통 및 교류 활동을 보낼 수
있는 꼭 필요한 곳인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이
걸어서 산책길에 있음에 또한 감사한다.
전에는 나와는 거리가 먼 곳으로 느껴졌던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이었는데 새롭게 또
절실하게 다가온다. 그만큼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나 보다.

이 탄천길을 처음 대할 때에는 정비되지
않았던 흙길이었었다. 어느 해에는 홍수로
탄천이 넘치고 그 물이 빠진 후 커다란
물고기들이 산책길에 나뒹구는 모습을
구경하며 신기해했던 기억도 아련하다.
지금의 탄천은 친환경으로 잘 정비되었고
성남의 역사와 함께 풍광이 아름다워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우리 마을의
자랑스러운 곳이다.



[고종철]

저기 기러기인 거 아시죠? 야탑8교
아래예요.

국민학교 때 배운 노래입니다.

“달 밝은 가을밤에 기러기들이
찬서리 맞으면서 어디로들 가나요”

중,고등학교 때 배운 노래입니다.

“기러기 울어에는 하늘 구만리
바람이 싸늘불어 가을은 깊었네”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이 돼서 배운
노래입니다.

“꽃잎이 한잎 두잎 바람에 떨어지고
작 잃은 기러기는 슬피 울며 어디가나”

여기 전부 기러기의 이미지가 외롭다,
슬프다, 저 하늘 구만리이다….

우리 생활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산책길에서 만난 저 기러기 떼를
보고 “기러기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저씨가 “저 기러기는 여기 터 잡은
지가 4-5년 됐는데 작년에는 새끼가 두
마리였는데 올해 여섯 마리를 또 까서
8마리가 됐어요” 라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기러기네요, 겨울 철새예요. 가을에 왔다가
봄에 가는데 대체적으로 애네들이 시웃자로
이렇게 짹 날아갔다 날아오고 이러는데

어느 한 놈이 병이 들거나 이제 다치거나 해서 더 이상 그 무리에 못 끼면 한 두 마리가 같이 남아준대요. 그 놈을 돌봐주기 위해서요. 그러다가 여기 성남 야탑 쪽에 터를 잡았는데 살기 좋은 거예요. 굳이 북쪽으로 갈 필요도 없고 이러니까 아주 여기에 터를 잡았어요. 그래서 저거를 보면서 오늘 공부한 대로 이 기러기가 살아있는, 살고 있는 이 야탑8교 아래가 바로 야탑동민들의 교류의 장소다.



왜냐, 공통된 화제가 있으니까요. 애네들이 겨울에는 저기 뒤에 보이는 덩불 속에 애네들이 살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물이 야탑천인데 붕어, 미꾸라지 이런 게 많아요. 먹이도 걱정 없고 그러니까는 굳이 애네들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야탑동은 저 아름다운 기러기 가족을 함께 품고 있는 그런 좋은 마을에서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정자(세레나)]

저는 우리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환경과 공기, 나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가까운 길은 거의 다 걸어다니고 있는데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일이 없으니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뿐이죠. 그런데 가다가 위를 쳐다보니 걸려 있는 공기 측정기를 보았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기죠. 길이란 길에는 다 차가 다니죠, 그러니 공기가 좋을 리가 없죠.



어떻게 해야 할까 곰곰히 생각했어요. ‘나무를 심어야 하는



데'라고요.

골목을 가다 보면 집 앞에 화분에 나무를 심은 집, 꽃을 심은 집, 채소를 심은 집, 여러 종류의 화분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흙이 있는 빈 공간이면 어느 곳에나 나무를 심어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중원구청 사거리에서 보면 가로수가 다 있어요. 그런데 모란으로 가는 길은 가로수가 없어요.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성당을 가야 하는데 걸어서 가는데 그곳만 가로수가 없어서 여름에는 나무 생각이 많이 나곤 했어요. 이제라도 가로수를 조성할 수는 없을까 생각했어요.

문화원에 올라오다 보니 가게 앞에 나무를 예쁘게 심어놓은 걸 보았어요. 그런데 건너 다른 가게는 나무가 없었어요. 저렇게 나무를 심으면 그것도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또 거기 천사의 나팔꽃은 정말 예쁘고요, 그래서 저도 천사의 나팔꽃을 구해다가 심었더니 하얀 꽃이 피었습니다. 잘 키워 내가 본 문화원으로 오는 길에 있는 나팔꽃처럼 잘 키워서 집안 공기도 맑게 하고 싶어요.



[유정애(정애님)]

저는 이 길이(사진) 저 건너 학교 길이거든요.

제가 그 길 이름을 아름답고 희망이 있는 길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한번 써봤어요.

이 길은 초,중,고등학교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길이다. 이 길은 몇 년 전만 해도 무척이나 위험천만한 길이었다. 좁은 길에다 아침저녁 학생들이 학생들 등굣길에 오가는 차들과 뒤엉켜가지고 학생들을 위협하면서 곡예를 하듯이 다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불상사가 일어났다.

뉴스에도 나오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도 이 길을 10여 년을 넘게 다니다가 무서워서 옆길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요즘 숙제를 하라 그래서 그 길을 가봤더니 그 길은 다시 보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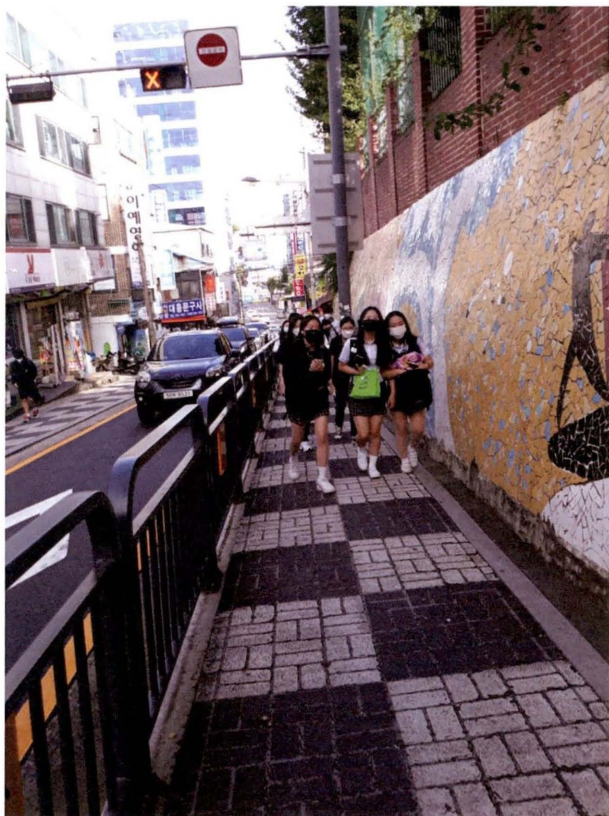
깜짝 놀랐다. 너무 아름답고 질서 정연하게 바뀌었다. 차들도 일반 통행으로 질서 정연하게 다니고 그 길에는 학생들이 맑은 웃음소리, 유행가 가사처럼 손대면 툭하고 터질 것 같은 아침 이슬을 잔뜩 머금고 너무 맑고 아름다운 꽃들 같다.

그런 학생들이 너무나 예뻐요. 그들과 잘 어울리는 벽화, 길바닥에 그려 있는 바둑판 무늬 하물며 길바닥에 노란 교통선 까지 정말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그 길을 지났는데 세련되게 리모델링한 가게도 보였고, 예쁘게 단장한 가게들은 참 좋아 보였다. 난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본다.

저 학생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판사, 변호사, 아니면 더 훌륭한 사람 저 꽃같이 예쁜 학생은 연예인? 하면서 미래에 우리나라 기둥들이 여기 다 모여 있구나 하면서. 나는 그 젊은 기운을 받으면서 건강이 허락받는 날까지 그 길을 계속 다니려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점분(피오나공주)]

하대원동에서 도촌동 걸어가는 길.

비가 온다. 빗소리에 잠에서 깨서 잠시 망설여 본다 동네를
어슬렁거리보려 했는데 갈까 말까

5분 동안 잠자리를 뒤척이다. 벌떡 일어나 운동검 숙제 검
집을 나섰다.

아름다운 석양이 시야에 가득하다. 하대원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난 석양이 있었나? 나름 하대원 토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또한 아니었나? 귀뚜라미를 보는
거는 무서운데 새벽 공기 속 귀뚜라미 소리는 내 귀에
피아노 건반 소리처럼 아름답다. 풀내음의 싱그러움은 이른
아침을 느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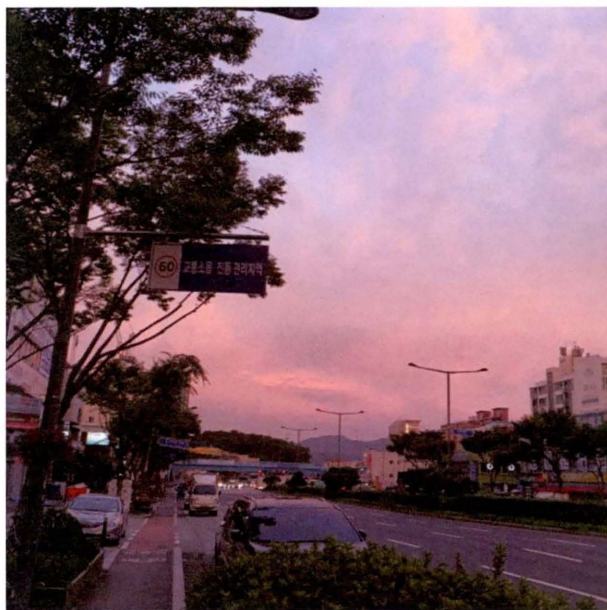
탄천 쪽으로 걸었다. 눈앞에 보이던 시청 안쪽 길에서
탄천으로 향하니 시골에서 물이 없어서 펌프질해서 먹던
수도 펌프가 정겹게 놓여져 있다. 황금빛 물가에서 인증샷
날리고 길가의 코스모스는 조금씩 네가 예쁘니? 내가
예쁘니? 하고 꽃단장을 하듯 조금씩 피어난다.

비를 살짝 머금은 모습은 꼭 여름 내내 농부들의 땀방울이
결실을 맺은 듯 금방이라도 손에 올려놓고 토란잎에 넓은
앞에 물방울을 올려놓고 떨어뜨리지 않기 내기 하던 아이
시절이 떠오른다.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지하철에서 보면 핸드폰 안만지는 사람들이 없다.
자연과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무언가 새로움을
찾기는 참 어려운데 생소한 마을큐레이터 덕에 오늘도
걸는다. 하루 300걸음이 힘들었던 나에게 만보기가 올린다.
만보 목표 달성하셨다고...

새벽 공기 맞으며 동네를 어슬렁거리길 참 잘했다. 스스로

칭찬해 준다. 생각보다 새벽 운동하시는 사람들이 많다. 가족이 걷고 다리가 불편한 연세 많은 어머님도 걷고, 이어폰을 귀에 꽂고 걷는 직장인도 보인다. 탄천 조금 더 걸으니 밤새 비가 와서인지 흐르는 물소리는 폭포수 같다. 가슴까지 확 트이는 듯 걷다 보니 많이 보인다.

그러나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닌 듯, 한 집 건너 빈 상가가 보이고 특히 원상 복구란 상가를 보면 남의 일만은 아닌 듯 마음 한 구석이 어두워진다. 가을이 무르 익어가는 호박꽃이 피어나는 이 예쁜 가을을 손잡고 걷고, 따스한 아메리카노에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러는 코로나 없던 그 시절이 다시 왔으면... 상인들과 무르 익어가는 가을 향기에 취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아침이었다. 길을 걷다 보면 쉽게 접하는 임대문의의 아픔을 뒤로 하고 오늘도 마을을 읽기 위해 나는 걷는다.





[유정춘(엘리할머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기는 성남 아트센터입니다. 왼쪽에 이렇게 쇠로 된 창살 같은 거 보이죠? 그건 대문이 아니고 약기 하프입니다. 하프를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손이 하나 보이는데 하프 하는 그 모습을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건물을 지을 적에 우리나라 법에 건물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조각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아마 저기 아트센터도 수억의 돈을 들여 지으면서 그 비용의 몇 퍼센트를 각 작품을 하라 그래가지고 아마 했는 것 같은데 오른쪽에 거는 손등에 남자 하나가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아마 손가락으로 아트센터 건물을 가리키면서 굉장히 예술적인 고뇌를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트센터를 이렇게 자주 살펴보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많이 알게 됐는데 이 아트센터는 음악당과 콘서트홀 그다음에 그림 주로 전시하는 큐브 박스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소지는 오페라하우스하고 콘서트홀은 학동에 속하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 전시하는 아트박스 같은 데는 큐브박스 그거는 이매동에 속하는 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조각 같은 거는 야탑동 쪽 오페라하우스 앞쪽에 많이 설치돼 있는데 계단으로 위로 올라가면 또 바이올린 조각이 또 있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계단이 많아가지고 좀 걸어 올라가기에는 좀 귀찮은데 더 올라가다 보면 계단 자체를 전부 다 피아노

그 건반으로 표시해 놓은 것도 있고 기타 등등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트센터 주위를 둘러보면은 우리가 빼놓지 않고 꼭 봐야 될 게 그 앞에 바로 있는 지하도의 그래피티 그림인데요. 우리나라 작가가 아니더라고요 프랑스의 유명한 그래피티 아티스트에게 주문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림의 제목이 수복강녕전 오래 살고 복 받고 정말로 건강하게 살라는 의미로 수복강녕전인데 두 개의 큰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하나는 용이고 하나는 봉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이매동에 내려오는 전설로 이무기가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의 슬픈 전설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림으로 그걸 용으로 승천을 시켰어요. 그래서 정의를 이겨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복을 갖다 주라는 의미고 봉황은 의미하는 게 건강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매동 사람들과 야탑동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을 사람들의 염원을 갖다가 외국인 예술가가 그것을 그림으로 표시한 게 이 수복강녕전입니다.

그 그래피티 아트가 생각 보느라 굉장히 아름다워요 특히 그냥 지하도를 쭉 지나치니 누가 옆에 있는 그림 그렇게 살피게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의 의미라든가 또 그림 하나하나를 보니까는 정말 아름다운데 우리가 이렇게 마을큐레이터 이 수업을 통해가지고 자세히 보고 또 자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을에 대한 사랑이 저절로 솟아납니다.

지나가면서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박화양(그린)]

지난 비 오는 화요일 날 갔던 장소가 청소년 수련원이어서 화요일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길에 두 바퀴를 돌았어요. 특이한 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는데 제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 안에는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가 계속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고 청소년 수련관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꼭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것 같더라고요. 안에 입구에 아무나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출입금지 표시 같아서 좀 착잡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출입구 앞 계단에 조그마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2,3학년 되는 아이 둘이 앉아서 계단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코로나가 건물의 그 핵인 사람을 접근 금지시키고 건물은 죽어가고 아이들은 바깥에서 맴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녁에 좀 그런 기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큐레이터라는게 이렇게 건물의 어떤 걸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감성을 끌어내는 작업인 모양이다 하고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도 그 생각이 계속 나네요. 너무 아름다운 마음들을 표현하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또 시도 지어오시고 발표하는 걸 보면서 소년, 소녀들의 그런 감성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아서 참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또 느낀 기분은 강사분들이 언어가 너무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곳에서도 잘 듣지 못했던 얘기들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장소애라는 그 속에 들어

있는 여러가지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참 저에게 의미가 있는 수업이다 하고, 이 수업에 대해서 애착이 더 생겼습니다.



[경규남(남이)]

지금 듣는 순간순간마다 저도 그냥 무심코 살아온 이 성남이 지금 말씀들 듣는 순간에 떠오른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여기 성남에 온 지가 87년도에 온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제가 성남시내를 다 걸어 다녔는데 지금은 기본이 3천 원이에요. 그만큼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여기는 그때 당시 교육청이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여기 성남시에 배울 데가 여성복지관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밤을 세워가면서 거기서 새벽 1시에 와서 대기자로 기다리는 생각이 나요. 여성 복지관 하나 밖에 없고 지금은 이만큼 성남이 그동안에 많이 발전이 됐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은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때 당시에 꽃꽂이부터 이제 신청을 하는데 7월달에 시작할 것을 6월 달에 접수하는데 그날따라 우박이 엄청 왔어요.

아직도 그게 생생한데 거기에 경비하시는 분이 “9시에 와야 돼요.” 그래서 아니 9시에 접수 받는데 어떻게 9시에 오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니요, 밤에 9시에 와야지 된대요. 어머 깜짝 놀랐죠. 그때는 여성 복지관밖에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새벽 1시에 택시 타고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문 앞을 딱 가로막고 거기서 쭉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던 생각이 나요.

가니까는 딱 한 분이 앉아 계세요. 근데 낮에 우박이 와서 해가지고, 밤이니까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 안 되겠습니까. 아침까지 있으려면 우리 얼어 죽어” 그래가지고 앞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거기 계단이 열려 있더라고요. 여기 가서 기다립시다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밤중에 갔으니까 준비라도 해가지고 갔어야지, 문을 당연히 열어놓는 줄 알았죠. 거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 오기 시작하는거야 그 밤중에도.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계단에서 이제 쭉그리고 앉아서 이제 기다리는데 밖에서 소리가 저기 온다. 저기 온다. 다음 이제 순서로 이렇게 쭉르륵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사람이 많이 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갔는데 새벽에 네시가 다섯시 되니까 그때 이제 경비 아저씨가 문을 열어줘. 가서 강당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는 선착순이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선착순이기는 하지만 그때는 거기 하나밖에 없었고, 몇백 명이 붙어가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커피 자판기가 다 동이나. 또 여러 번 다녔던 사람들은 아니 이게 뭐야 부르스타까지 가져오고 담요까지 와서 거기서 화투를 해요. 근데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이 남자분 앉아 있어요. 근데 남자분은 왜 앉아있냐 하니까는 여자는 밥을 해야지 밥해 놓고 교대를 하는 거야. 이 정도였었는데 지금들은 너무나 여기저기 많이 생겨가지고 동사무소고 뭐고 이제 또 그만큼 이 프로그램도 많이 생겼고... 저도 역시 몇 십 년 여기 살면서 이 큐레이터는 처음이고 없던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가지고 많이 발전된 거 보면은...

그리고 보면 다른 지역에도 배울 거리가 많고 이렇게 좋아졌나 싶은 게 좀 궁금해요. 몇 십 년을 여기만 주저앉아서 살다 보니까. 근데 지금 내가 부지런만 하고 게으르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배울 게 많아요. 내가 게으르고 시간이 없는 것뿐이지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하려면은 저 역시 좀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여기서만 뱅뱅 돌다 보니까... 저는 사진 찍은 게 없어요. 다음에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들여다보기 3_

(특강) 성남 도시 유래와 마을이야기

8.10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50주년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황무지를 낙원으로 개척한 성남사람들

윤종준(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상임위원)

50년 전 성남시의 사진들을 들여다보면 가슴 깊은 데서 체한 듯 먹먹해 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새들도 집이 있다는데 ‘집도 절도 없는’ 거친 산비탈 황무지에 더구나 생계유지를 위한 산업시설이 전혀 없는 곳에 천막을 치고 살아가야 했던 당시 주민들에게 희망이라는 게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런데 50년이 흐르는 동안 성남 시민들은 스스로 잘 살기 위해 노력해왔고, 억척같이 삶터를 가꾸어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했다. 집은 누구에게나 고단한 삶에서 회복되는 공간이며 해가 지면 돌아가야 할 안식처이다.

1. 평화롭던 숯골 마을

성남 원도심에 1968년 ‘광주대단지’라는 괴물 신도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숯을 굽는 사람들이 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전형적인 산촌이었다. 숯골, 탄동(炭洞), 탄리(炭里), 탄천(炭川)이 이 고장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명들이다. 고려 말의 학자로 요승 신돈(辛旽)에게 바른말을 했다가 귀양을 가기도 했던 이달충(李達衷, 1309~1385)은 숯골에 새로 집을 짓고 시를 남겼다.

고기는 강과 바다에서 놀고 새는 숲에 사나니, 얕으면 옷을 걷고, 깊으면 벗고 건너면 되지, 돌 털고 이끼에 앉아 다리를 쭉 뻗고, 샘 찾아 물을 움켜 가슴 속을 씻어내네. 흥이 나면 필탁처럼 술도 도둑질해 먹고, 늙어가니 소문(昭文)은 거문고를 타지 않네. 취하여 타호 침이 진실로 우스워라, 명상으로 앉아 있는 그지없는 맛이여.

필탁(畢卓)은 중국 진(晉)나라 사람인데 술을 몹시 즐겨하여, 옆집의 빗어 익은 술을 밤중에 독 밑에 들어가 훔쳐 마시다가 관리인에게 들켜 꿈꿨다가 아침이 밝아서 보니, 필이부(畢吏部)라, 그 결박을

풀고 주인이 와서 술 독 옆에서 잔치를 벌이고 갔다. 취하여 타호를 치는 것은 늙은 나이에 노래를 하면서, 타호(唾壺, 침 뱉는 그릇)를 쳐 장단을 맞추는데, 타호의 가장자리가 다 찌그러졌다는 옛이야기를 비유한 것이다. 숯골에서의 한적하고 여유로운 정경이 잘 그려져 있다.

2. 빗줄기에도 꺼지지 아니하고 타오른 분노의 불꽃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황무지에서 주린 배를 움켜쥐고 살아야 했던 주민들에 대하여 하늘이 흘린 눈물이었으리라. 1971년 8월 10일이었다. 하루 전에 밤늦게까지 진행된 서울시 부시장과의 협상이 결렬되고 “모이자, 뭉치자, 꺾기하자, 시정(是正) 대열에!”라는 전단지가 뿌려졌고, 장맛비가 쏟아지는데도 주민들은 순식간에 1만 명이 넘고 5만 명으로 늘어났다.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겠다던 양택식 서울시장의 약속된 11시에 나타나지 않자 군중들의 분노는 폭발하였다.

주민들은 격분하여 “배고파 우는 사람 세금으로 자극 말라.”, “일자리를 달라.” “천원에 매수한 땅 만원에 폭리 말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비가 내리는 중인데도 광주군 중부면 출장소와 서울시 사업소, 관용차·경찰차 4대를 불태우고 파출소를 파괴하는 등 격렬한 항쟁을 전개하였다.

45분이나 지각한 서울시장은 주민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2km 떨어진 제1공단의 삼성전자 회의실에서 전성천 등 주민대표를 만났다. 주민들의 시위는 점점 과격해져서 “우리를 또 속였다.” “시장이 시간을 어겼다.” 외치며 10여 명이 서울시사업소로 몰려가자 또 수십 명이 뒤를 따랐고, 출장소 앞 서울시 환지과장 ‘서울관 1-356호’ 지프를 부수고 개울에 처넣은 후 사업소 내 100여 평 안 5개 사무실의 집기를 부숴다. 출동한 경찰관 20여 명도 접근하지 못하였다.

200여m 떨어진 중부면 성남출장소(150여 평) 본관 내부가 전소되었고, ‘경기관 7-492호’ 반 트럭을 불태워 개울에 밀어 넣으니 출동한 소방차 2대가 접근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광주경찰서 성남지서 건물 유리창이 파괴되고, 경찰차도 불태워졌다. 청소년 50여 명은 시영버스를 빼앗아 지붕에 올라가 탄리천길을 주행하면서 서울로 가려다가 회차하여 대단지 거리를 순회하였고, 구경하던 20~30대 주민들도 시영버스와 삼륜차를

몰고 다니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경찰기동대가 도착한 후 시위 군중은 모란파출소 앞, 대단지 입구 고개, 수진리고개 등 3곳에서 대치하였다. 대단지 입구 아치 앞(가천대학교 앞 부근)에서 지프 1대가 추가로 소각되었고, 신문사 차량 2대의 유리창이 부서지고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

이에 양택식 시장은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모두 들어주기로 함으로써 6시간 만에 시위는 진정되었다.

이날의 과격한 시위는 참혹한 주거와 생활환경과 폭등한 땅값, 그리고 그해 4월의 대통령 선거와 5월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밋빛 공약이 남발되어 황무지 땅에 철거민 뿐 아니라, 전국에서 희망을 품고 몰려온 주민들에게 서울시는 일자리 등 아무런 생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굶주림 때문에 아기를 삶아 먹었다는 풍문이 돌 정도로 주민의 생활상은 참혹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은 폭발 직전의 화약고나 다름없었다.

광주대단지 사건은 광주대단지 내에 이주된 주민들이 주택과 상하수도과 변소 등 주거시설은 물론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 시설이 없던 상태에서
전매입주자에게 철거이주민(평당 2천원)보다
비싼 평당 8천원 ~ 1만6천원 부과 조치 및
7월초 전매입주자 302명에게 일시불 고지서
발부(서울시), 8월 초 지상 건물에 취득세
고지서 발부(경기도) 등은 주민들의 분노를
격양시켰고, 사건은 터지고 말았다.
이날의 시위로 광주대단지는 성남시로
승격되었고, 우리나라 신도시건설 정책이
‘선입주 후개발’에서 ‘선개발 후입주’로
전환되어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건설의
기본적 원칙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3. 구름 위에 세워진 도시 <광주대단지>

사상누각(砂上樓閣)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이라는 뜻으로,
매우 부실하여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걸만 번지르르하고 내실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와우아파트 붕괴였다.
서울시장 김현옥은 ‘불도저 시장’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돌격’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헬멧을 쓰고 다녔다. 그는 청와대에서
잘 보이도록 마포 와우산(臥牛山)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준공된 지 103일밖에

안 된 5층짜리 와우아파트가 1970년 4월
8일 붕괴하여 34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6.25 전쟁 이후 서울에는 무허가건축물이
급증하여 60년대 후반에 136,650동이
집계되었는데, 이들 일부는 아파트에
입주시키고 일부는 토지매입가격이 낮은
남한산성 자락의 한적한 산골 마을로 보낼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1969년 1년 동안
서울에 406동 15,840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되었고, 광주대단지에도 5월부터 철거민
이주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사상누각보다도
못한 신도시 계획이 ‘광주대단지
건설’이었다.

1969년 5월 10일부터 27일까지 1차로
서울시내 서울역과 영등포역 주변 등
철로변의 무허가 주택 3,057채를 우선
이주시키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철거민들은
이주되기 시작했는데, 산촌마을의 나무를
뽑아내고 바둑판처럼 나누어진 땅에 집도
지어놓지 않은 채 겨우 천막 한 장씩만
지급한 채 이주가 강행되었다.

▶ 딱지

여기서 말하는 ‘딱지’라는 것은
철거민들에게 주어진 입주증이다. 서울시는

1가구당 20평씩 평당 2천 원에 분양해주고, 그 대금을 2년 거치 3년 상환토록 했으나, 부동산 투기 붐이 일면서 평당 8천 ~ 1만6천 원으로 치솟자 땅값을 일시불로 내게 하고, 취득세·재산세·영업세·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했다.

광주대단지에서 먹고 살 길이 없는 철거민 중에는 이 딱지를 전당포에 맡기거나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에게 전매하고 돈을 받아 다시 서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 집도 절도 없는 동네 - 천막과 허가된 판잣집
철거민들이 실려 온 광주대단지에는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없었고, 산을 깎아내고 바둑판처럼 줄이 그어진 황무지 땅만 있었다. 철거민들에게는 서울시, 또는 구청 명칭이 새겨진 천막을 나누어 주고 살게 했다. ‘난민촌’ 수준의 광주대단지에서는 1970년 12월에 일가족이 천막 속에서 얼어 죽기도 했고, 일곱 식구가 한 평 반 천막에 포개서 자야 했다. 천막생활에서 조금 나아진 것이 판잣집인데 서울에서는 무허가였고, 광주대단지에서는 허가난 판잣집일 뿐 생활상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 단지 내 무허가 판잣집
철거민 중에는 서울의 무허가 판잣집에 세

들어 살다가 함께 광주대단지로 철거되어 온 주민이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그나마 20평의 ‘딱지’도 지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단지 안에서 다시 무허가로 판잣집을 짓고 살았는데, 무려 5,121채에 달했다.

▶ 샷갓집
단지 내 무허가 판잣집 주민들은 ‘달나라 별나라’로 불렸던 은행동 일대로 다시 철거되었다. 은행동 지역이 포함된 단대리 일대는 1990년대 까지 <한성1,2,3지구>, <자혜지구> 등으로 불려 왔다. 금광2동과 은행동 지역을 자혜촌(慈惠村)이라고 불렀는데, 광주대단지에서 철거된 주민 4,300가구 2만여 명이 8평의 땅에 ‘샷갓집’이라고 하는 움막을 짓고,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식구들이 포개서 자야만 했다. 암사동 선사시대 움막도 이렇게 좁지는 않았다. 주민들은 장마철이면 넘쳐흐르는 재래식 변소 6개를 공동 사용해야 했다. 동아일보 1971년 10월 12일 <알몸월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런 처참한 생활상이 알려졌다.

▶ 루뽕집
루핑(roofing)집이다. 소주를 찌주라 하듯이 루뽕집이라 한다. 아스팔트 콜타르 찌꺼기로 코팅을 한 두꺼운 종으로 지붕을 덮은

집이다. 판잣집 보다는 빗물이 가려지는
조금 나아진 주거환경인 셈이다.

▶부로꾸집, 벽돌집, 함석집, 슬레이트집
건축 재료에 따라서도 집을 부르는 명칭은
다양하다. block을 일본식으로 보루꾸,
부로꾸 등으로 발음한 것이다. 시멘트로
찍은 블록이나 벽돌을 사용해서 지어진
집이다. 함석집과 루뽕집은 여름에 장대비가
쏟아지면 지붕이 쿵 붓는 소리처럼
요란했다.

▶돌기와집과 기와집
돌을 얇게 켜서 지붕을 얹은 돌기와집이나
기와집은 이전부터 있었던 집들이고
부잣집이었다. 창곡동에도 돌기와집이 몇
채 있었는데, 위례신도시 건설로 사라졌다.
금토동에도 있는데, 성남문화원과 시청
당국의 노력으로 이전 복원하게 되었다.

▶비둘기집
문득 노랫말이 생각난다.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작사를 한 전우(본명
전승우)는 일본 대중가요 형식의 잔재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황손 이석(李錫)이
불러 70년대에 유행했다. 밝으면서도
현실에서의 그리움과 외로움이 배어 있는

노래이다. 성남에 비둘기집이 지어진 것이다.
단대천을 따라 금광동 방향으로 10평
정도의 공간에 벽돌을 쌓고 지붕만 얹어서
분양했는데 줄지어 똑같은 모양의 집이
들어서서 ‘비둘기집’이라고 불렸다.

▶꿈을 키우던 공간 - 천막학교
50년 전의 광주대단지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청소년들이 많았고, 야학이 여러
곳에서 열렸다. 그 중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제일실업학교가 1971년 11월 천막에서
시작되었고, 최규성 교장과 연세대
학생 교사들이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태풍에 천막교실이
날아가서 학생들은 스스로 비탈을 깎고
가마니에 흙을 퍼 나르며 학교를 지었지만,
시유지 무허가 건축물이라 철거반이
들어닥쳤다. “벽돌 한 장 마다 우리들
손끝이 안 닿은 곳이 없다. 저 교실은
우리들의 몸과 같다.”는 학생들의 애원을
듣고, 철거반원들조차 눈시울을 붉히며
되돌아갔다. 제일실업학교는 창세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배움을
갈망하는 이들의 등불이 되고 있다.

4. 성남을 지칭하는 별명들

성남을 지칭하는 명칭은 여러 가지이다. 성남(城南)이라는 지명은 성의 남쪽이라는 뜻으로, 전국의 수많은 성의 남쪽을 성남이라고 부른다. 한양성의 남쪽인 지금의 용산구와 관악구 일대도 성남이라고 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성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약 600년 전에 세종대왕이 아버지 태종 헌릉의 풍수 지맥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학자 최양선의 건의로 달래내고개 쪽에 토성을 쌓고 인마(人馬)의 출입을 통제하였기에 그 아래쪽 마을을 성내미, 성남리라고 했다. 일본이 한일강제합방 이전에 몰래 도둑 측량하여 작성된 지도에도 표기되어 있다.

성남 명칭은 해방 직후에 남한산성 안에 있던 광주군 중부면 출장소를 두면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1968년에 서울시의 철거민 수용 신도시를 만들면서 광주대단지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1973년 7월 성남시로 되었다.

시 승격 전후로 성남시는 그 당시 언론사에 다양한 형태로 공식명칭이 아닌 명칭으로 불렸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합중시(合衆市)’, ‘한국 속의 아메리카합중국’이었다. 미국을 아메리카합중국이라 부르듯이 성남에는

전국 8도의 주민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합중시라 불렸다. 합중도시 성남의 주민 94%가 외지인이었고, 원주민은 6%에 불과했다. 그나마 6%조차도 광주대단지 지역 즉 광주군 중부면 원주민은 거의 없고 지금의 분당구인 돌마면과 판교의 낙생면 주민들이었다. 합중시에 담긴 의미는 ‘정력적이고 개척정신이 왕성하며 시민의 자질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활동 시설이 부족해서 서울로 돈 벌러 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하숙도시 성남’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생겨난 것이 ‘호적심기 고향운동’이었다. 70년대에 우리나라는 고향심기 운동이 있었는데, 다른 지방은 고향에서 가져온 나무를 심는 것이었지만 성남시의 고향심기 운동은 호적을 성남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호적을 옮긴다는 것은 전통적 가치관으로는 ‘호적을 파 버린다.’는 말처럼 무서운 게 없어서 주민들은 “당신은 조상도 없느냐.”면서 반발하였다. 처음 호적을 옮긴 어떤 이는 “조상들에게 죄송하고 면목이 없지만 성남에서 10년 넘게 살아 왔으니 이젠 여기가 고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 밖에 ‘서울을 돌보려는 마음이 닮은 터’, ‘구름 위의 도시’, ‘회색도시’, ‘젯빛도시’, ‘도시화의 사생아’, 중원구청 앞 ‘복지촌’,

단대동 일대 ‘한성1,2지구’, 은행동과 금광2동 일대 ‘자혜촌(慈惠村)’. ‘古蹟드문新天地’ 등이 있었다.

1971년 8월 10일 벌어진 주민들의 항쟁으로 우리나라 신도시 건설계획이 ‘선입주 후투자’에서 ‘선투자 후입주’로 일대전환을 하면서 처음 생긴 신도시가 1기 신도시라고 불리는 5개의 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부천중동)였다. 분당을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부르고, 처음 분당 신도시가 생길 때는 ‘독립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분당을 성남시가 아닌 ‘분당시’로 만들자는 운동이었다.

그 후 2010년에 성남, 광주, 하남 통합시가 추진(당시 김대진 성남시의회 의장이 추진위원장) 되었으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5. 성남의 얼굴전 <Beyond & space>

성남시 초창기 주민들 생활 공간의 모습을 되돌아보았다. 현재 성남문화재단이 아트센터 큐브미술관에서 ‘2021성남의 얼굴전’ <Beyond & space> 전시를 하고

있다.

성남인의 생활 공간구조 변화 발전을 되새겨 보고, 이제 그 공간들이 새로운 미래의 공간에 추억과 예술로 승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집은 열심히 꿈을 이루어 가는 일터일 수도 있고,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돌아와 편안한 휴식과 회복을 하는 곳일 수도 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다양한 목적이 있는 공간인데,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집의 의미는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50주년 기념으로 12명의 작가들이 집이 가지는 의미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전시를 열게 된 것은 뜻깊은 일이다.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다.

“나의 집은 온통 너였다”, “우리의 목적지, 집”, “그럼에도 다시 걷기” 등 작가 노트를 통해 작품을 바라보면 집이 가지는 아늑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글은 딱딱하지만 작가 노트에 담긴 글은 생생한 현장감을 준다. 집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려지고, 기억이 그려지고, 추억이 재현되는 작품들이다. 생활 주변에서 발견되는 모든 사물들이 그 소재가 된다. 낡은 문짝과 창문은 물론이고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콜라주 작업으로 피어난 꽃은 경이롭다. 자연의 일부에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산다는 것도 콜라주와 닮았다고 하는 작가의 생각에 공감한다. ‘하늘을 나는 꿈’도 집이 있기에 가능하겠고, 작업실과 주변의 화초와 벌레들조차 삶의 일부로 재현되었다.

인류는 동굴에서 살기 시작하여 움막집에서도 살면서 지금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 왔다. 세한도(歲寒圖)를 배경으로 한 천막 작품을 통해 새로운 집들을 지으며 황무지를 행복한 삶터로 가꾸어 온 우리 성남이 자랑스럽다.

6. 마을 이야기, 낮선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마을 이야기에서 생각해 볼 주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다. 명절 때 같으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옛사람들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공통점 발견하기라든지 가족과 이웃간의 관계, 추억 등이 있을 수 있고,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집이 가지는 의미 등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성남시에서는 <기억수집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성남은 합중시라서 다른 어느 도시보다 다양한 스토리가 하늘의 별처럼

펼쳐져 있다. 전국 8도의 문화가 서로 융화되어 간다. 서로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 낮선 사람에게 다가서고 낮선 목소리에 귀기울이면 좋겠다.

- (1) 성남의 물과 숲과 사람들 : 청계산, 남한산성, 탄천 등 자연환경과 어울리면서 문화를 만들어 온 사람들
- (2) 성남 사람들의 일과 생활이야기 : 개인의 부귀와 영광을 버리고 타인들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 타인의 삶에 모범이 된 사람들 스토리, 내 인생 내 뜻대로 살기 등등
- (3) 땅과 거리에 붙여진 이름과 그곳에 사연 있는 사람들 이야기 : 산책길이나 출퇴근길 등 거리마다 붙여진 마을 이름의 유래를 통해 본 사람들의 꿈과 희망, 사랑, 미래 찾아보기
- (4) 소소한 일상에서 발견하는 행복한 것들이나, 개인의 인생에서 변곡점과 성장.
- (5) 마을이야기 어디서 어떻게? : 사진, 일기, 구술
- (6) 사람마다 다른 관심사를 고려하고 다른 문화(다문화)도 고려
- (7) 참고 : <비전성남> 추억소환 / 경기신문 <윤종준의 경기여지승람>



수진동의 계단



活民富國(활민부국)

활민교회(최규성 목사)

제일실업학교 (야학)



1960년대 성남사람들의 회갑 잔치



1971년 8월 10일
버스위로 올라가거나 삼륜차를 타고 시위를
벌이는 주민들

들여다보기 4_

‘나’와 ‘타인’을 보는 장소/팀별 장소 찾기를 위한 팀 구성

[‘나’와 ‘타인’을 보는 장소 소개하기]

이민희 퍼실리테이터는 ‘좋은 도시(마을)의 조건’에 대해 강의하면서 도시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적절한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의하면서 장소를 ‘개인적인 장소’‘타자를 들여다보는 장소’‘타자와 교류하는 장소’로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과제는 자신이 경험한 ‘개인의 장소’‘타자를 들여다보는 장소’‘타자와 교류하는 장소’를 찾아 발표하는 것이다. 성남이 ‘나’뿐만 아니라 ‘타자’에게도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팀 구성에 있어 서로의 관심사를 탐색해보기 위함이었다.



[고종철]

“제 지극히 개인적인 장소는 저희집 베란다예요. 베란다에서 보면은 롯데 타워가 보여요. 그 보이는 날은 날이 맑은 날이에요. 그 롯데 타워가 안 보이는 날은 공기가 안 좋은 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서향이기 때문에 해가 지는 게 보여요. 며칠 전에 아주 그냥 시뻘건 황혼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아름답다 어렸을 때 생각한다. 항상 거기 저녁 먹고 나가서 멍하니 있는게 습관이고요.

저기 보이는 다리가 여수천교예요. 꽃 이름이 분홍가시꽃이에요. 그 다음 이런 국화꽃, 이런 꽃도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6.25 전에 태어났는데 학교에서 우유가루



배급을 받고, 밀가루 배급을 받고 그랬어요. 그거 받는 날에는 어머니가 많이 받아오라고 알루미늄 도시락을 주시곤 했는데 ... 어렸을 때 그와 같이 항상 굶주리고, 배고프던 그런 시절에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손바닥만한 땅이 있어도 꽃씨를 뿌렸어요. 아실 거예요. 코스모스, 채송화, 과꽃, 맨드라미, 국화 이런거. 꽃 피면 그렇게 행복해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 이 꽃밭을 오늘도 새로 심었어요. 갈 때마다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사진 찍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꽃은 우리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꽃길이다.'

'참, 마음에 와 닿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덕희(필유린 | 必有隣)]

저는 생각해 보니 지극히 나만의 공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집은 저만의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바깥으로 나가서 혼자 벤치에 앉아있으면 아래 탄천이 짝 보여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도 보이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여요. 가끔 여기 앉아있을 때가 저만의 공간인 것 같아요.

소통의 공간으로 해서 징검다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 계단을 내려가면 바로 징검다리가 있다. 탄천 정비가 되기 전 초기에는 징검다리가 없었고 건너편으로 가려면 돌아가야 했다. 오랜 기간 동안 이곳에 살다 보니 마음으로는 머물고만 있다고 생각한 시간들이 벌써 산천이 두어 번 바뀔 정도로 흐른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함께 공존하는 이곳에서
 변함없이 흐르며 현재와 소통하는 것 같다.
 강원도 산천 계곡까지 멀리 가지 않아도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를 들을 수 있고
 징검다리 한가운데 서 있으면 가을 바람
 소리가 사사삭 온몸을 스치며 세상을 다
 가진 듯 마음이 가볍고 상쾌한 기분이
 든다. 물속에선 잉어와 이름 모를 물고기
 떼들이 헤엄쳐 다니고 청둥오리 가족들이
 유유히 노니는 물속에 나를 비춰보며 마냥
 한가롭게 마음으로 인사를 하며 징검다리를
 걷는다. 징검다리 건너 나뭇가지 위에는
 커다란 가마우지가 가끔 앉아 있기도 하고
 백로가 떼를 지어 군락을 이루기도 한다.
 폭우로 징검다리가 물에 잠기면 저
 건너편으로 쉽게 건너가고 건너오는 일상의
 소중함과 편리함이 멈추는 아쉬움이
 있고 물이 빠지면 늘 그 자리를 지켜주는
 징검다리의 고마움이 새삼 느껴지기도
 한다. 과거와 현재의 추억 끈을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의 한가운데에서 잠시 멈춰 지금의
 나를 잊게 하고 미래의 내가 또 후손들이
 살 이곳이 저 먹는 날까지 아름답게 잘
 보존되기를 바라본다 바람 소리 물소리 새
 소리와 더불어 화려한 사계절의 절경이 운치
 있게 어우러져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고
 생활에 활력을 더해주는 우리 마을 탄천
 산책길을 나는 사랑한다.



[박화양(그린)]

이 건물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오리역에 있는 애플프라자 라는 건물인데 모든 게 한 건물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가운데 뽕 뚫려 있는 그 공간도 여유롭고 좋고,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더 저에게 소중한게 다가오는 장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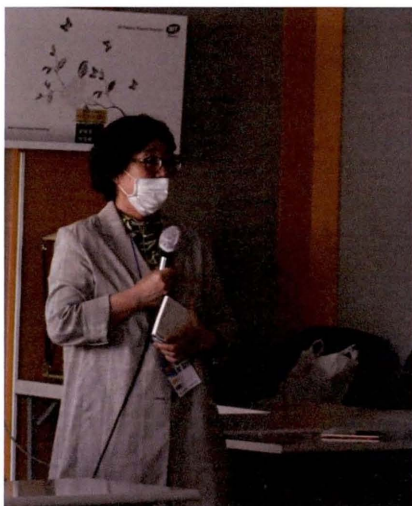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너무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혼자 나오면 쭈뼛쭈뼛 하게 되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한가해서 그런지 한가해서 작년에는 한 100여 편이 넘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층에는 영풍문고가 있어요. 책방에 들어서 한가롭게 신간을 구경하기도 하고 적당한 의자들이 놓여 있어서 한두 시간 책을 보기도 하고, 갈 때마다 들어서 한 세 번정도 들리면 책 한 권을 다 읽게 되요.

그런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가 갖고 있다는 게 분당에 사는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오면 탄천도 금방 접근하기 쉬워요. 영화보고, 밥먹고

난 다음에는 차를 한 잔 들고 탄천을 걷기도 하고 중년인 제가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도 소개합니다.





[유정춘(엘리할머니)]

저의 가장 개인적인 장소는 탄천입니다.
탄천 중에서도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앞에
굉장히 넓은 축구장만큼의 잔디밭이 있어요. 옆에는
또 롤러스케이트를 탄다던가, 애들이 보드를 탈 수
있는 시멘트로 된 평평한 공간이 있는데 벤치에 그냥
멍하니 가만히 앉아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운동하면서
왔다갔다하고, 노인들은 노인 나름대로 두, 세 명씩
짜지어서 얘기도 하고, 아주 보기가 좋은, 그러니까 멍하니
앉아가지고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산책을 나갔다가 앉아서
길게는 1시간, 짧게는 30분 앉았다가 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점분(피오나공주)]

제 카페예요. 오늘 아침 첫 손님이 들어오셔서 바닐라
라떼를 한잔 주문하신 후, “제가 첫 손님이죠? 오늘 대박
나시라고 현금 드릴게요.”라면서 만 원짜리 지폐를 딱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하고...카페 사정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7시에 문 여시죠? 사장님 부지런하셔요. 오늘도 대박 나세요.” 1분도 안 되는 시간 엄청 힘이 나요. 손님들과 대화로 서로 정감을 나눕니다. 우리 가게는 그런 가게예요... 제가 또 도촌동에서 농사를 지어요. 농사지은 수확물을 카페 오시는 손님들한테 무료로 나누기도 하고요. 카페에서는 우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럼 많은 우유팩과 페트병을 모아서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자원순환가게에 가져가면 상품권으로 바꿔줘요. 이런 일들이 카페에서 일어나요. 손님들과 정도 쌓고 이렇게 정리도 하면서 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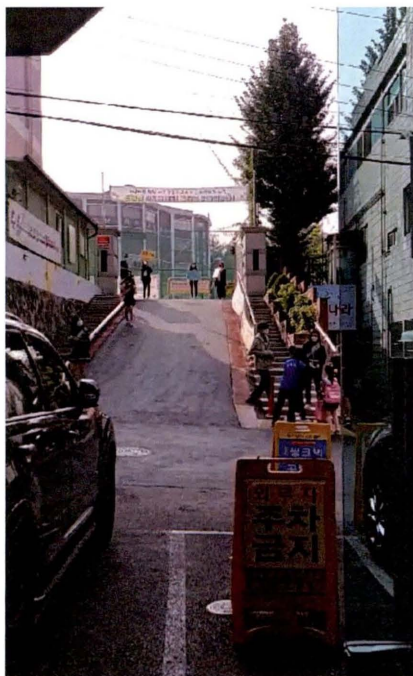


[경규남(남이)]

예 이것은 저기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앞에 있고 지금 여기 가까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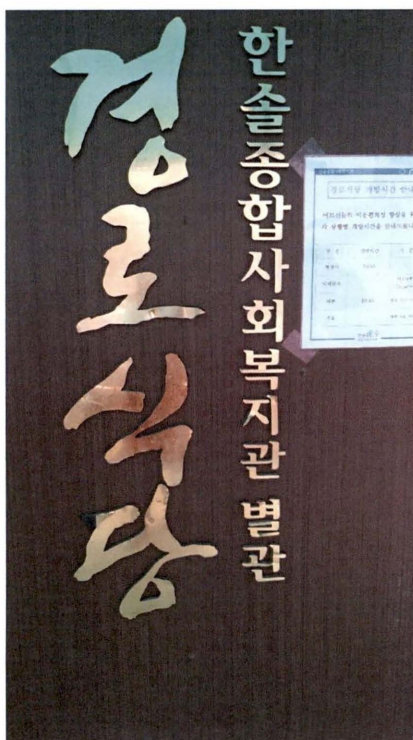
초등학교인데요. 아침에 애들 등교하는 걸 찍었는데 평상시에는 사람이 학생들이 많았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사진 좀 찍으려니까 좀 숫자가 적네요.

그런데 왜 여기를 찍었느냐하면은 제가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아이의 엄마가 여기 성남에 태어나서 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 앞에서 살면서 또 그 자녀가 돌이나 되는데 여기 학교를



지금 하나는 졸업했고 하나는 지금 다니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 연역 찾아보니까 초등학교가 40년이 좀
넘었든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한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학교에서 내 자녀까지 다녔다는 것이, 그리고 또 이 엄마가
공부방을 하면서 그 학생들을 또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한 40대 후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신랑도 또 남편도
여기서 토박이예요.

내 엄마가 선배이자 또 내 후배들을 그 학생들 후배들을
또 가르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전에는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이 큐레이터를 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것이 공부구나라는 것을
좀 배웠어요.



[유정애(정애님)]

몇 년 전부터 한 봉사단에 가입해 분당 정자동의 한솔
복지관으로 봉사를 다녔어요. 목요일마다 소외된 할머니,
할아버지 점심식사를 챙기는 곳이에요. 가서 보면 점심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친부모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요. 오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아 몸도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요양보호사가 모시고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치매가 있어 아침 7시부터 점심을 드시러 나와
11시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거동을 못하시는
어른들께는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저도 한 번 가봤어요.
아파트 층층을 다니면서 배달하는데, 노크를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게 귀가 어두워 가지고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이렇게 소외된 계층의 어른들이 많아요... 그

어른들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고 빨리 보고도 싶고 그래요.

[김정자(세레나)]

작은 예수회의 장애인 공동체입니다. 서울에 본원이 있고 여기 성남은 분원이지요. 이곳은 30여 년 전, 국가의 복지가 거의 없어 사정이 어려울 때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살렸습니다. 저도 10년 간 식사 챙기기, 청소, 세탁, 목욕 등 작은 도움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분이 자신의 집을 팔아 헌 주택을 사서 기증을 한 이후, 지금은 대기업의 기부, 국가 지원 등이 생겨서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모두 차별 없는 세상에서 평등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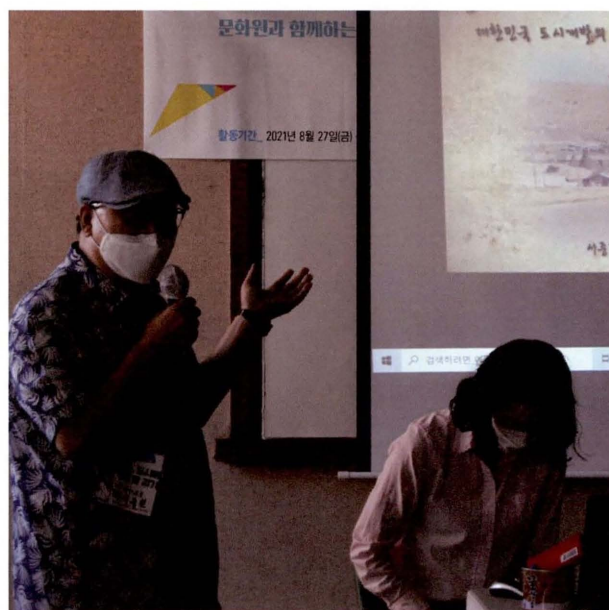
[서종철]

이 자료는 제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우리가 이제 성남에 노인정과 학교 다니면서 성남의 역사, 그 다음 내 고장 성남 알리기 하면서 또 그다음 우리 문화원에서도 공부하면서 이 자료를 만들어 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의 옛날 구도시 때 처음에 우리가 여기 왔을 때 그때부터 그 귀한 자금이 된 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마을큐레이터를 하려면 옛날 우리 성남의 성남 모습이 어떠하였는가 우리 동네 다니면서 사진도 찍겠지만 옛날 사진도 여러분들이 좀 봐 놓으시면 많은 참고가 되고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청계천에서 철거 성남으로 유지해 와서 성남시 최초의 아주 처음 생겼을 때 우리 문화원 앞에 이 개천, 저 남한산성 앞에 개천, 그 다음에 구 시청 앞에 개천 있었던 그때 그 자료들입니다.



[신미자(미자님)]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장소에 관해서는요, 저는 제가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자동차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항상 자동차를 suv만 썼어요. 7인승, 그거를 타는 이유가 키가 작아서요. 앉으면은 승용차는 이게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suv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좀 멀리도 보여서 키도 작아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장사를 하면서 도시락점을 했습니다. 청기와 도시락이라고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요. 그전에 도시락을 할 때 한 박스를 30개 정도 300개까지 차에 실을 수가 있었어요. 웬만해서는 300개 안에 다 주문이 돼요. 그러면 한 번 배달 봤더니 300만 원 어치를 파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거를 탔던 결정적인 이유는 성남에서 아이 셋을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부터 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은 여기 구시가지가 제일 열악한 것이 학원이 없어요. 아이들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서울에 있는 학원에 데려다 주고, 아이들은 차 안에서 도시락 먹고, 그리고 강남에 있는 학원을 보내고 또 논술 학원 끝나면 2시쯤 됐어요. 그때

차에서 자다가 애들이 나오면 태우고 집에 와서 이제 다 집집마다 애들 데려다 주고 오면은 이제 거의 3시가 이제 훌쩍 넘어가죠.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도시락 아침 도시락 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젊은 날의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정말 노력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자동차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장소는 자동차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는 장소는 저희 집 건너편에 저희 가게 건너편에 이마트가 있는데 이마트에서 대각선 쪽으로 우리 홈마트라고 작은 마트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지금 성남사랑 상품권이나 이런 지역 상품권도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데인데 제가 여기를 뽑은 이유는 갑자기 이제 번개세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든 안 사든 벌써 줄을 가서 서요. 나부터도 이제 막 카트 팽개치고 막 가서 줄을 서고 이제 또 이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썬 것만 찾아다니시는 어른들도 계세요. 젊은 사람도 이렇게 묶어놓은 거 야채도 하루 이틀 지난 거 이런 거 묶어놓은 거를 살려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오늘 들어온 거 비싸도 신선한 거, 좋은 거, 큰 거 이런 거를 고르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서 또 서로 서로 모르는 분들끼리도 저거 찐데 우리 같이 사서 둘이 나눕시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마트를 선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타자와 교류에 해당되는 성남의 장소는 저는 교보문고 바로 뒤에 있는 스마일 카페를 뽑고 싶어요. 이것이 생기고 나서 사실은 여기가 이제 문화예술이나 교육의 불모지였어요. 어른들은 특히 우리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낮에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스마일 카페는 성남시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바리스타 교육부터 시작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다 무료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도 그리고 유화도 하고 종이 접기도 하고 음식 만드는 것도 하고 그러니까 자격증도 따고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장사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남 시민 모두가 무료로 와서 다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진행으로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상인 대학이라는 걸 개설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우리 이 상인들한테 우리가

옛날에는 다 배웠지만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그런 판매하는 그런 도덕성, 정의로움 또 이렇게 반드시 좋은 물건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런 그런 자긍심도 주고 그런 거를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스마일 카페에서 많은 친구들도 사귀고요. 내가 다루고 있지 않은 업종 그런 분들하고도 많이 친해졌고, 그 다음에 성남시 전체에 있는 상인들과 다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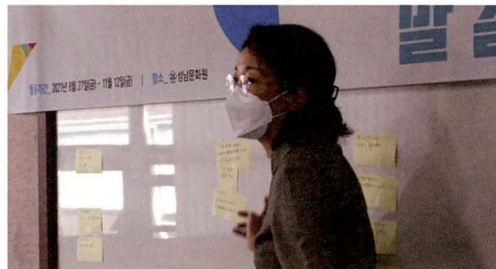


[김광열(호돌)]

지극히 개인적인 장소는 WC라고 했는데,
 워터 클로짓(water closet), 즉 수세식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토일렛(toilet)이기도 하고,
 또 고급스럽게 말하면 레스트룸(restroom),
 요새는 남녀 구별해 멘스룸(men's room)
 레이디스룸(ladies' room)으로 불리는
 화장실입니다. 옛날에는 화장실을 공용으로
 썼지만, 요즘은 한 집에도 화장실이 두세
 개씩 있어요. 굉장히 자기만의 공간이에요.
 나 혼자 들어가서 몸과 마음을 다
 내려놓는 그런 공간이 됐죠. 혼자 있으면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습니다...타자와
 교류하는 곳은, 성남에는 남한산성 등
 사람들이 모이는 여러 장소가 있는데 그중
 한 곳이 우리 동네에 있는 공판장이에요.
 매일 사람들이 모여 소통합니다. 또
 정월대보름 같은 명절에는 풍물패도 오고
 주민들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를 합니다.
 옛날 같으면 우물이나 빨래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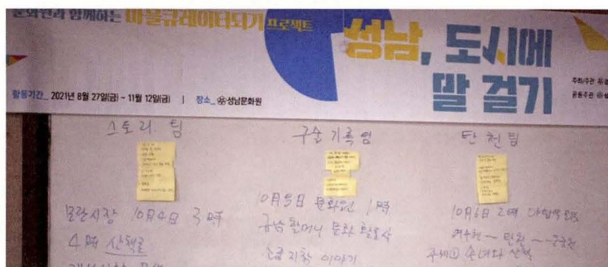
[팀별 장소 찾기를 위한 팀 구성하기]

민병은 퍼실리테이터는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포스트잇에 키워드를 적어 칠판에 나열했다. 자신과 비슷한 관심을 가졌거나 함께하고 싶은 팀원을 직접 선택해보되, 너무 한 쪽으로 몰리는 경우 진행 팀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각자가 관심 있는 주제 또는 장소에 따라 세 팀이 만들어졌고, 이민희, 민병은, 오다예가 각 팀의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여 세부 주제를 정하도록 이끌었다.

모란시장과 도촌동 섬마을 산책길의 한 곳 아쉬운 점 찾기를 주제로 정한 스토리팀과 참여자 경규남 님의 문화활동 역사를 구술하면서 성남의 도시변화를 살펴보기로 한 구술기록팀, 어린이, 유모차, 친구, 연인 각기 다른 '타인'과 함께하는 산책길을 소개하기로 한 탄천팀. 세 팀은 주제를 정하고 팀별 장소 찾기 일정과 계획을 발표했다.



여 백

새롭게 보기 : 팀별 장소 찾기/발표



_모란·도춘_스토리팀

_남이 님_구슬기록팀

_탄천팀

_장소의 관점으로 읽기



새롭게 보기 1_

모란·도촌_스토리팀

피오나 공주님, 정애님, 호돌님, 세레나님으로 구성된 스토리팀에게 성남은 몇 십 년 거주하며 삶을 일궈온 곳이다. 스토리팀 각자의 이야기가 성남이라는 도시 곳곳에 담겼다. 그래서 타지역 사람에게는 단지 성남의 랜드마크인 곳들이 더 애뜻하고 자랑스러운 장소가 되고, 동시에 남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보완해야할 부분들이 더 잘 보인다. 이는 누군가의 설명이나 유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확인하기 위해 잠시 훑어보는 관광지 같은 장소가 아니라, 직접 사람을 만나고 일상을 보내는 장소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스토리팀은 모란시장과 도촌동 산책길 및 섬마을 공원을 둘러보고 불편한 부분을 찾아본 후, 성남 시민으로서 개인이 시도할 만한 개선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1차 모란시장 장소 찾기

1차 팀별 장소 찾기(6차시)에서는 모란시장을 둘러 본 후, 발견한 불편 사항들과 어떻게 개선되길 바라는지를 도표로 정리했다. 모란시장은 주요 방문객의 연령이 다소 높은 점, 카드보다 현금 매매가 더 많을 것이라는 점, 실외 시장의 특성 상 일반 마트에 비교해 상품 분류와 계량이 덜 명확할 수 있다는 점, 점차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들의 방문 등을 염두에 두고 고민했다. 이런 개선 방안들을 적용하기 좋은 지리적 위치 및 재방문시 확인할 지점을 지도에서 확인했다.

2차 팀별 장소 찾기 때(8차시)는 모란시장 외 또 다른 장소인 도촌동 산책길을 걸어서 섬마을 공원에 가보기로 했다. 사람 걷는 길이 필요한 구간을 지도 및 사진으로 확인했고, 산책 노선을 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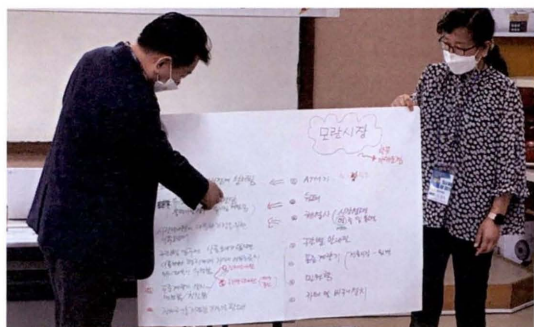


2차 도촌동 섬마을 공원 장소 찾기

우리는 10월 4일 월요일 3시에 만나서 모란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점과 필요한 설치물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모란시장에서 한 끝 아쉬운 점 중 첫째로 현금 인출을 위한 ATM이 필요할 것 같아 어디에 두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모란시장 입구 편의점에 설치가 돼 있었어요. 두 번째는 쉼터입니다. 대부분 모란시장 이용자가 다 고령인데, 앉아서 쉴 공간이 없어요...해서 저희가 모란 상임회장님을 만나서 그런 불편 사항을 접수를 했고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다음으로 다문화 시대에 시장을 설명해주고 통역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시장 안내원이죠. 요새는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영어권 국가가 아닌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다문화 가정도 많고. 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기네 언어로 물건도 사고 동향 사람들도 만나고. 이러면 그곳이 만남의 장으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간별 안내판입니다. 처음 가시는 분은 어디서 뭘 파는지 알기 어려워요. 바늘 하나 사려고 갔는데 찾기 어렵단 말이죠. 지도를 보면, 여기가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이에요.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모란시장입니다. 입구에, 예를 들면 가나다라 순으로 어디에서 뭘 파는지 알려주는 전체 안내판이 있다면, 그리고 구간마다 상세하게 뭘 파는지 알려주면 이곳에서 장보기가 훨씬 편리할 것 같아요. 구간별 안내판은 바닥에 안내 글귀를 보기 좋게 써도 되고 노래방 풍선 같은 해놓아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잔치 분위기도 나고 한 눈에도 보기 좋고 말이죠.



그 다음, 민원함.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했던 상황, 아니면 이런 건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참 좋았다, 이런 걸 시장에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좋겠어요.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들한테도 잘한 건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 더 신이 나서 더 좋은 쪽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장바구니 재사용 등 여러 아이디어가 많아요.

[발표 준비]



[팀별 발표]

모란민속시장과 섬마을 가는 길



[김광열(호돌)]

이번 큐레이터를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산에 오를 때 못 본 것을 내려올 때 본다는 말처럼, 그렇게 천천히 둘러보니까 평소에 눈에 띄지 않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용객들에게 시장을 잘 알릴 수 있는 표지판, 외국인들, 다문화 가정들이 쉽게 이해하고 이요할 수 있는 안내 등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김정자(세레나)]

이번에 가보니 싸기도 싸고 없는 게
없어요...자세히 보니까 국산은 국산,
중국산은 중국산 다 표시를 해 놔어요...



[유정애(정애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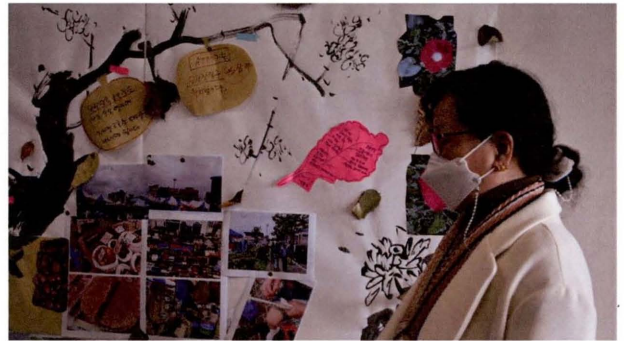
저는 섬마을 공원 가는 길을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직접 걸어봤어요. 주변이 정말
좋은데 정말 사람 걷는 길이 없더라고요...한
30분 걸어가면 공원도 너무 멋있는데, 길만
잘 돼있으면 진짜 산책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걷다보니 사람 걸을 길 널 충분한
땅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요.

[이점분(피오나공주)]

하대원에서 도촌동까지 가는 산책길과
섬마을 공원은 제가 우연찮게 발견했어요.
이번 마을 큐레이터에서 꼭 소개하고 싶었던
아주 멋진 곳이에요.

공원 안으로 들어가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곳까지 가는 길이 없어요. 사람
걷는 길이 없으니 너무 위험해요. 도착하면
너무 멋진데 다다를 길이 없다...이게
아쉽고요.

마을큐레이터라는 걸 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낯설고 두려웠는데, 친분이 쌓이고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돼 너무 좋습니다.



[참여 후기]

마을 큐레이터에 대하여 알게 된 것

경험하지 못한 체험과 느낌 이었습니다.

문화원 팀장님과 강의 담당선생님의 장소에 대한 강의내용이 생소하였으나 삶에서 우리 주변을 지나쳐 다니는 삶의 현장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주변을 더듬어 보고 살펴보고 감사 하여야 할 사건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되돌아보고 고쳐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팀원들과의 만남과 교류, 모두들 자기 맡은 숙제를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운 사화를 이루는 것이라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서로서로 공유하며 발표하고 카톡에 올려 탄천의 꽃 탐험도 했습니다.

모두들 아름다운 경치를 올려 다시 한 번 성남시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큐레이터를 열어주신 문화원 관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글을 이렇게 써보지 않았는데 쓰는 경험도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느낀 것은?

이전에는 모란장의 이모저모를 잘 살펴보지 않았는데

재래시장의 매력도 새로워서 자주 이용할 생각입니다.
신토불이국산으로 구매하면 상인들도 외국산물품을
판매하지 않겠지요. 생산지 표시가 되었지만 속이면 처벌을
강화 하면 속이지 않겠지요.

섬마을과 섬마을고원길이 어데 있는지 모르고 처음 갔을
때 먼 곳인 줄 알았는데 다시 가보니 하대원에서 약40분,
연꽃이 필 때는 자주 가야지 생각하였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 하여야할 일

우리 삶에서 물건을 너무 버려, 쓰레기와 자원낭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음식물 과일 쓰레기는 농사에 밑거름이
되는 것이니 조그만 빈 통에 넣어 썩혀 거름으로 이용하면
환경과 작물 키우는데 일석이조라 생각합니다.

생활용품 중 사용가능한 것들을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처리 하는데 많은 수고가 많은데 수집하는 장소 등 좀 더
적극적인 제도화로 활용 할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 본답니다.

2021년 11월 3일 성남동 김정자 (세레나)

성남 마을큐레이터 되기 과정을 마치고

2021년 성남문화원에서 개강한
마을큐레이터 프로젝트 수업신청을 하였다.
그동안 문화원의 여러 문화프로그램에서
함께 했던 반가운 벗들도 보인다.

민병은 퍼실리테이터는 마을큐레이터
수업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셨는데,
들을 때는 이해가 쏙쏙 되었으나, 돌아서면
금방 다 잊어버렸다.

평소에 내가 알았던 제2의 고향 성남의
장소 중에서, 하나의 공간을 정하여 나의
관점에서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다른
방향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글로 표현하고, 발표까지 하란다.

어떤 장소를 나의 주제로 삼을까 생각하다가
앗싸~ 성남~! 하면 [모란민속5일장] 이
아니더냐~!

내가 처음 소개하는 나의 장소는 이렇게
4일, 9일, 5일마다 열리는 [모란민속5일장]
으로 결정하였다.

모란장에 가서 이리기웃, 저리기웃 해보고,
꼼꼼히 살펴보니

예전에 내가 알던 모란민속5일장이
아니더라

뒷박숨씨 자랑하던 그흔한 장돌뱅이도
없으려니와, 잡곡 한두가지, 이름 모를
산나물 한두가지 들고 나온 얼굴 시커먼
할매들과 ‘한줌 더 달라’고 흥정을 하면서
북새통을 이루던 그 모습도 사라졌다.
고추모종과 꽃모종으로 발 디딜 틈 없는
한 뼀 길 사이사이를, 구경하는 재미로
요리조리 신나게 다니던, 선남선녀도 이제는
없다.

하지만 새롭게 조성된 버섯모양의 조형물
주변으로 뻗뻗이 들어선 익숙한
노점상에는 지금도,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더라.

장날~~하면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지
기름시장 골목으로 이어지는 전통한과 골목,
순대국 골목과 대형 가마솥에서 끊임없이
튀기는 따끈따끈한 통닭골목에서 마시는
시원한 생맥주 한잔도 언제나 우리를
반겨주더라~

아~! 역시 전국최고의 모란민속장,
5일장이로다~!
우리 팀원 4명은 [모란민속시장과

섬마을이야기]]로 주제를 정하고, 모란장날이 열리는 어느 날, 모란에서 뭉쳤다.

이리저리 골목골목,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하나라도 놓칠새라 열심히 보고 느끼고, 다시한번 학습하고, 아쉬운 부분을 챙기는 팀원들,

사진과 준비물을 전시 하는데, 재치만점 우리 팀원들, 멋진 글과 낙엽까지 준비해서 작품을 만드는데, 내가 봐도 멋드러지고 낭만이 넘친다.

배움이 이렇게도 재미있었던가~?
학창시절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 했더라면,
아마도 우리모두 서울대학교에 갔을 것이 분명하다 ~!

모란민속시장 팀원 여러분~ 우리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민병은 선생님과, 오다예 강사님, 이민희 강사님, 심기환 담당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을큐레이터” 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김대진 성남문화원장님과 윤종준 관장님, 김정진 사무국장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김광열(호돌)

큐레이터를 마치고 나서...

큐레이터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설레이기도 하고 약간 걱정도 되면서 참석 한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끝이나 이런 글을 쓰게 되니 아쉽기도 하고 좀 더 잘할 걸 섭섭한 마음이 들어 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 회원님을 통하여 지금까지 접하지 못한 것도 생각해 보기도 하고 현장에 나가 답사도 해 보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성남의 역사, 탄천의 아름다움, 모란장의 장점과 단점, 산책길 정비, 구슬팀 이야기. 큐레이터 하기 전에는 무심코 지나친 것도 다시 한 번 보게 되고 보이지 않던 것도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성남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열심히 참여하여 이번에 미비한 점을 고쳐 잘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정애(정애님)

2021년 성남 마을큐레이터 되기 과정

무언가 새로움은 늘 낯설은 듯 성남에 살면서도 막상 바쁘다는 핑계로 길거리 낙엽 하나도 사진에 담에 볼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

인터넷에 보니 마을큐레이터? 낯선 강의가 있어서 물어 물어 입과를 했다.

성남문화원에도 처음 발을 디어봤고 매번 무얼할까? 어찌 진행될까?

첫날부터 자기소개를 해보는데 오호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도 자기소개부터 해서 인지 다들 말씀도 잘하시고 서로 낯설던 얼굴이 자꾸 관심도 갖고 반갑기도 했다.

매주 숙제를 하기 위함도 있고 배워가는 힘도 있고 해서 생전 걸어보지도 않던 일을 시작해 봤다.

보이지 않는 일들이 나의 눈에 비친다.

산책길도 걸어보고 꽃도 찍어보고 냇가에 피어있는 보랏빛 꽃도 섬마을 공원에 연꽃도 피었다가 지는 모습도 보고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걷기 시작하고 그 느낌을 사진으로 담아 보는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나에겐 무안 행복을 담겨줬다.

아!!!! 무언가 새롭게 하는 거는 두렵지만

지속적으로 방법을 따라 하니 그 또한
어렵지 않았다. 매주 무슨 일을 할까?
궁금증 속에서도 매주 숙제가 해결되었다.

발표는 여전히 낯설지만 그래도 참 재밌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했던 시간 속에
마스크 잘 끼고 사진 찍기위해 걷고 걸으면
핸폰속에 느낌을 담고 그 느낌을 살려서
발표도 해보고 이런거구나 ~~~
흐름을 따라하듯 나의 느낌을 발표도
해보지만 다른 이들이 걷던 길을 발표를
통해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느껴보고
한번쯤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갖게 되고
참 좋은 시간속의 행복함이었던 것 같다.
내 얘기를 들어주고 타인의 얘기도 들어주고
서로 공유도 해보고 그런거구나 내가 보고
느낀 점도 좋지만 타인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음도 또 다른 세계의 힘이었던거 같다.

보통 문화원 하면 짜여 있는 얘기 책속의
베끼기 듯한 이야기 느낌인데 마을큐레이터는
책속에서 보지도 듣지도 않는 나의 얘기,
같은 동기의 얘기 새로움 그 자체였다.
사진을 담아가면서 느낌을 발표하다 보니
나의 발자취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되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어슬렁 거려 보니 이
또한 건강해지는 느낌도 들고 걸을수 있음이
더욱 기쁨의 시간인 듯

시간의 여행?
두달여의 여행을 다녀온 느낌?
상큼 그 자체인 듯

어뭘 발표회를 하기 위한 뒤에 작품을
만들던 날은
팀원님들의 협동이 최고인듯 어느새 가을
내음이 물씬 풍기게 낙엽을 주워와서 완성
하고 획을 굵듯 붓 그림으로 기둥을 만들고
사진을 오리고 붙이고 그 소녀 소년 같은
감성이 물씬 풍겨났다.

모란시장을 경험하기 위해 걷고 묻고 경험
할때는 그저 혼자가면 모란시장의 느낌이
아닌 관심을 갖어보는 기회가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불편할까? 무엇이 관심있었을까?
둘러볼 기회가 되었던 시간.

허리, 다리 아프다 하니 크 팀원님들 모두
체험도 해보고 식해도 나눠 먹어보고
걸어도 보고 더욱 더 모란시장을 알리는
기회도 맹글어 볼 수도 있고, 하대원도
재건축하기 전부터 살았으면서도 막상 걸을
일이 적었는데 큐레이터 덕에 걷는 거를
배워서 차를 타고 부릉이를 타고 보이지
않던 다른 세상을 볼수 있었던 시간들이라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추억으로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에 감사 한다.

도촌동에 하대원에서 30~40분 걸으니
그리 이쁜 섬 마을 공원이 있음을 길거니
나팔꽃이 반기고 시골에서 보던 호박꽃도
보게 되고 어느새 감나무에 감이 빨갭게
물들어 가듯 한층 더 나의 2021년 한
페이지도 익어간 듯싶다.

매번 새롭게 그 무얼할까 궁금하기도 아구
바쁘다 바빠 매주 시간을 빼는 것도 쉽지는
않았지만 다행이 11월 말에는 천 포기
김치하러 가야하는데 다행히 조금 덜 바쁜
타임의 시간 할애 속에 생각지 않은 새로운
여행을 다녀온 듯싶다.

기회가 되면 도장 파는 것도 재밌을 듯.
하하 그저 욕심이 많아서 시간이 날지
모르지만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여행을
배움의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

2021년 11월 5일 이점분(피오나 공주)

새롭게 보기 2_

남이 님_구술기록팀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에서 강조한 것은 자기 일상에 대한 관찰이고 감각한 것이 무엇이 되었든 스스로 말해보는 과정이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출발하여 저만치 나를 데려다 놓고 다시 내가 놓여 있었던 자리를 바라보는 그런 활동이다. 구술기록은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주된 활동이다. 때문에 구술 기록활동은 애초 기획에 들어있지 않았다. 구술기록 팀이 생긴 것은 참여자 특성을 감안하여 진행팀이 참여자에게 제안하여 만들어졌다.

경규남 님은 허리통증으로 걷는 것을 힘들어하셨다. 자기 장소 소개와 간 곳을 여러 번 어슬렁거려보라는 숙제에 난감해하셨다. 경규남 님은 장소 찾기 숙제 대신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에 올 수 있었던 이유를 오래 전 성남시 여성회관에서의 ‘문화활동’ 경험의 연장으로 설명해주셨다. 80년대 활발했던 문화강좌, 특히 여성들을 위한 교양활동으로 분류되었던 자수와 꽃꽂이, 서예반에 대한 인기로 새벽1시부터 줄을 섰어야했다는 이야기. 지금은 문화원과 복지관, 자치센터 등 강좌를 들을 수 있어 좋다는 편리함과 다양함에 대한 감사로 이야기는 이어졌다. 혹시나 중도에 불참할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는 팀별활동이 핵심이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 듣고 맞장구쳐주는 이가 있다는

것, 다니던 같은 동네를 걸으면서도 다른 것을 보고 다른 얘기를 해보는 것, 어떠한 형식으로든 정식으로 품을 갖춰 품 나게 발표해보는 것으로 이어진다. 진행팀은 경규남 님의 '문화교양강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구술팀을 만드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른 이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생각보다 쉽지않다) 끝까지 눈을 마주하고 들어주시는 신 미자님, 성남시의 역사를 많이 알고계시고 관찰자 시점으로 이야기하는, 다시 말해 자신의 이야기를 잘 안하시는 서종철 님 이렇게 세 분이 팀이 되는 방안이었다. 다행이 팀 짜기 워크숍에서 두 분이 선뜻 함께 해주기로 하셨다.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취미활동, 문화활동, 교양강좌 뭐가 되었든 성남시에서의 공식적인 여성여가활동에 대한 기록이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솔직히 있었다. 지극히 개인적인 여가활동과 성남의 도시화과정을 연결 지을 수 있다면 흥미로운 구술기록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이 팀은 10월 8일 따로 문화원에서 만나 경규남 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15일 워크숍에서 팀별 활동내용을 공유했다.



구술기록팀의 듣는 사람은 서종철, 신미자이고 말하는 사람은 경규남 님, 2021년 10월 8일 문화원 5강의실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제목은 언제나 청춘 경규남 님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분의 삶의 터전의 변화, 새로운 시작. 그다음 제2번은 배움의 길, 3번은 우뚝 선 깊은 결실을 맺다 4번은 30여 년을 쉬지 않고 배움의 열정을 태우다, 그 다음은 앞으로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밴드에 올려놨고, 아직 완성이 덜 됐기 때문에 나머지 작업을 하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서종철은 그 안에 있는 글을 완성해서 정리할 거고, 신미자님은 듣게 된 이야기를 다시 잘 기록하면서 궁금한 점을 다시 물어가지고 기록할 겁니다.

이상 우리 구술 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민병은 퍼실리테이터는 들으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듣기에 집중하기 위해 녹음하는 방식을 요청했다. 기록을 위한 취재 혹은 인터뷰가 아니라 동네 선배언니에게 옛날이야기 듣듯, 수다 떨어보기를. 그리고 눈을 맞대고 맞장구쳐주면서 이야기 나누기를 제안했다.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사건과 사건 사이 규남 님이 느꼈던 감정을 느껴보기를, 사적인 궁금함은 접어두고 듣기에 집중하기를 요청했다. 예상하지 못한 구술기록팀이 만들어져 진행하게 되었지만, 사람마다 꺼내기 어려운 깊은 사연들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 진행팀은 세 분이 같은 이야기를 듣겠지만, 들은 것을 각자 써보기를

권했다. 내 이야기를 내가 쓰는 것 못지않게 들은 이야기를
내가 써보는 것도 자기 생각 없이 하기 어려운 작업이기도
했고,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변주되는 가를 보는 것도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활동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발표에는
하나의 글만 올라갔다.

[발표 준비]



[팀별 발표]

언제나 청춘인 남이남의 이야기



언제나 청춘인 남이님의 이야기 -

구술자 (인터뷰이) : ‘남이’

기록자 (인터뷰어) : 서종철, 신미자

1. 삶의 터전의 변화 / 새로운 시작

주인공 남이는 39세 되던 1987년 가을, 경기도 광주에서 성남 상대원으로 이주하여 30여 년 동안 제2의 고향으로 정착하였다.

외지인이 모두 모여 성남이라는 도시를 형성하였기에, 삶이 아주 팍팍했었지만, 지금까지도 잊지 못할 사연이 하나 있다, 감기몸살이 아주 심하였지만 수중에 가진 돈 한 톨 없었기에, 망설이다 들어선 상대원 ‘민당약국’, 주인 약사님이 생전 알지도 못하는 남이님에게

외상으로 감기약을 선뜻 지어주셨는데, 그 약사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여 독한 감기몸살은 씻은 듯이 사라졌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있는 성남시민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나도 이런 온정을 베풀 수 있을까~ 생각하니 얼굴도 모르는 민당약국 약사님에게 존경의 마음이 샘솟았다.

2. 배움의 길로 입문하다

남이는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었던 1988년 동네 서예학원에서 한글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취미생활을 누리고 싶었던 남이는 그당시 유일한 단대동 여성복지회관에서 꽃꽂이를 배우게 되었는데, 수강을 하려면, 하루전날 밤부터 줄을서서 신청접수 해야 한다는 회관 관계자의 말을 듣고, 새벽 1시에 택시를 타고 복지회관에 도착하였다.

그 당시는 인신매매가 극심하여 민심이 흉흉한 시절이었다.

배움에 목마른 남이는 걱정할새도 없이 복지회관에 갔는데, 어떤 아내사랑 남자분 한분이 아내를 대신하여 꼭두새벽에 나와 있었다.

남이가 두 번째 줄을 섰다.

그 전날에 우박이 내려 날씨가 몹시 추웠지만, 새벽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고, 추위에 떨던 남이는 새벽4~5시경 강당으로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9시정각에 두 번째로 꽃꽂이 강좌 수강신청을 하였다. 처음 1주일에 한번씩 꽃꽂이를 배우기 시작하여, 표구, 양재, 한지공예, 기계자수, 종이접기등등 쉬지않고 수강신청하여 배웠는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1년에 두

번, 한학기 6개월 과정을 두 번이상 수강신청할 수 없고,
심화과정을 배울수 없었기에 굉장히 아쉬웠다.
그 이상은 전문학원에서 배워야 했지만, 재정상
주머니사정이 여의치 않았으리라.

3. 우뚝선 기쁨 /결실을 맺다

남이는 꽃꽂이 초급자격증도 따고, 여성기에대회에 여러번
참가하여
수상도 여러차례 하였는데, 부상으로는 찬합과 밥그릇세트,
사전 등등을 받아 배움의 결실을 이루었다. 가슴 벅차도록
기뻐으리라.
그중에도 붓글씨에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듯한데,
붓글씨부문
우수상을 수상 하였는데, 대상도 아니고, 최우수상도 아닌
‘남이’님의 우수상 작품이 성남시 책표지에 떡~!하니 실려서
그 감회가 너무 새로웠다.
남이가 알고 있기로 그 당시에는, 한문 붓글씨 작품만이
대상이나,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고 한다.

4. 30여년을 씬없이 배움의 열정을 불태우다

남이는 평생을 놀지 않고, 장사를 하면서도 배우고 또
배웠다.
그후로 주민센터와 문화원에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생겼고, 장구와
캘리그래피도 배웠다.

남이는 오늘도 성남문화원에서 ‘마을큐레이터되기’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5. 과거로의 회상

남이는 19세 소녀시절에 서울 종로에 위치한 신신백화점 학생교복부에 근무하였는데, 그때 그시절부터 배우고싶었던 것은 ‘피아노’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재정상, 시간상 문제로 아직까지 피아노는 현재 진행형이다. 19세 시절의 옛이야기를 하는 남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꿈을 꾸듯 목소리가 해맑았다.

6. 앞으로의 여정

언제나 청춘’ 남이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성남과 함께 성장하고, 성남과 함께 성숙해지고, 성남과 함께 쉽 없이 전진하는

꽃보다 아름다운 만년소녀‘남이’~!

‘언제나 청춘’ ‘남이’ 님에게 존경과 사랑을
담아 박수를 보낸다.

※주인공 ‘남이’는 큐레이터되기 과정을 함께하는
동료입니다.

[참여 후기]

큐레이터를 마치면서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쯤 우리
성남문화원에서 처음으로 마을큐레이터를
시작하였다. 큐레이터를 정확히는 몰라도
어렵פות이 알 것 같은 의구심에 무엇이든
배움의 열정으로 참석하였다.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각각 재미있는 자기소개로
낮설지 않는 분위기 로 시작되었다.

큐레이터를 통하여 성남생활 40여년 가까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하나하나
발자취를 더듬으며 까맣게 잊고 있던
문화생활, 그때그때의 즐거웠던 시간들,
하나하나 작품의 완성 될 때의 기쁨, 동료들
간의 완성작품의 서로 칭찬해 주던 모습이
새롭게 기억에 떠오른다.

오래되어 얼마 남지 않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소품들, 큐레이터를 배우면서 작은
소품이지만 나의 발자취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다시금 소중하게 느껴지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나는 이제 짧은 시간에 미흡하지만
큐레이터란 또 하나의 공부를 하고 여러가지
경험도 하였다. 다음에는 또 어떠한 새로운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또 어떠한 것을
찾아갈까? 나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찾아서 조금이나마 배움의 삶을 키우려
한다.

더위의 끝자락에 시작하여 초겨울이
시작하니 한 계절이 되었네요. 큐레이터의
길을 열어주신 문화원장님 큐레이터 선생님,
담당 직원 선생님 모두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규남(남이)

성남 마을큐레이터 되기 수업을 마치고~

2021년 9월, 성남문화원에서 진행한
마을큐레이터 프로젝트 수업에 남편의
수강신청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마을큐레이터라는 3개월 과정 수업은 처음
접해보는 분야라서, 많은 기대와 호기심이
생겼다.

우리 성남이라는 도시의 공간, 장소를,
평면으로만, 지도상으로만 보던 수평적인
생각, 익숙했던 고정관념은 떨쳐버리고 잠시
접어두자. 평소에 내가 알았던 우리 마을
하나의 공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보고
말하고 발표하라는데,
공간을 읽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은 그저
막막하기만 하였다.

하지만 민병은 퍼실리테이터님의 적극적인
지도로 새로운 관점에서 공간을 보게
되는 것을 배우고, 하나의 공간에 대해서,
내 자신이 관찰자가 되어, 나의 경험과
감정을 통해서 나만의 이야기를 막연하게
해본다. 무작정 따라 해보니 어느새 나의
장소를 새로운 시각으로 돌아보게 되었고,
마을큐레이터라는 수업에 조금씩 흥미가
생겼다.

내가 처음 소개하는 나의 장소는 나에게
애증의 장소 "성남시의료원" 이었는데,
내가 왜 "성남시의료원"으로 정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그곳은 원래 성남시청 자리였다.
성남시청이 야탑 신청사로 이전한
후, 수정구청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랐던 동네주민들의 염원은 처절하게
묵살되었는데, 시청을 구청으로 사용하고,
시민회관을 구민회관으로 사용했다면
약간의 개·보수면 충분 했을텐데... 그리고
지역경제의 붕괴도 없었을텐데...

그후 "성남시의료원"이 완공되고 개원한
것은 10여년이 흐른 뒤다.

그동안 주택가격, 건물가격이 완전히
붕괴되어, 끝없이 뒷걸음쳤고 상권이
몰락하여 초토화 되었던 슬픈 기억으로
나에게는 원한 맺힌 장소, 눈을 흘기던
장소이다.

하지만 마을큐레이터 장소찾기 수업을
하면서,
그냥 지나치기만 하던 그곳, 다시 생각하고
싶지않은, 코로나로 인하여 2020년 봄,
급하게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을 처음으로

찾아가 보았다.

우리집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하지만,
완벽하게 낫선 성남시의료원을 새로운
시각에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사진도
찍고 발표도 하였는데, 그때 그 시절이
새록새록 생각나서 마음이 이상했다.
하지만 성남시의료원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좋은가? 필요한가? 잘한건가? 잘된건가?
혼란스럽게도 여태까지의 고정관념이
약간은 흔들린듯하다.

그 후 팀별활동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우리 3명은 "구술·기록팀"이라는 생소한
팀이었다.

팀원이신 남이남의 이야기를 종철님과 내가
둘이 함께 기록하였는데, 난생처음으로 남의
이야기를 몇 시간씩 진지하게 경청하고,
녹음까지 해서, 듣고 또 들은 이야기를 글을
쓰는 작업이었다.

마지막 수업인 전시회를 준비 하는데,
우리의 멋진 작품을 만들기위해 열심히 풀
바르고, 색칠도 하고~
지끈으로 제목도 한자한자 이어보고~
약간은 유치하게 어린 동심으로 돌아갔다.
드디어 ["언제나 청춘" "남이남"의 이야기]

가 대형책으로 완성되었다.

다음기회에 또 마을큐레이터 수업이
생긴다면,
우리 모두 다함께 참여하자고 약속도 했다.

막막하기만 했던 나에게 마을큐레이터라는
과정을 알기 쉽게, 열정적으로 강의하시고
멘토해주신 민병은 퍼실리테이터님,
소중한 강의는 물론, 전시할 작품에
찢찢매는 우리팀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오다예 강사님, 이민희 강사님, 심기환
담당자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언제나 유쾌하신 우리팀 종철님과 항상
웃는 남이님, 감사합니다.
함께 수업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좋은 인연입니다.
고맙습니다.

신미자(미자님)

마을 큐레이터 활동을 해보면서!

2021년 8월 27일 1시 첫모임에는 아는
샘들도 많이 계셨지만 처음 뵙는 샘도
여러분 계셨다. 두번째 모임인 9월3일은
내가 4년여 모시던 98세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모님께서서 소천 하셔서 상중이라
참석을 못하였다.

(중략)

9월10일 도시(마을)조건, 도시기본개념,
마을에 대한 각자의 기준이란 주제로
강사진의 이야기를 두 시간 동안 들었다.

9월24일 특강으로 성남도시
유래와 마을 이야기를 윤종준
성남문화원(부설)성남학연구소 상임
연구위원으로 부터 들었다.

10월1일 우리 마을 소개 및 관심구성 워크숍
3개조로 나누었는데 나는 구술기록팀에
합류
되었다.

말하는 사람: 경규남샘

듣는이는: 서종철 신미자샘이다.

제목을 언제나 청춘인 남이님의 이야기로
정했다.

주인공 남이님의 성남에 정착하여 지금 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적었다.

남이남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 1)살의 터전의 변화/새로운 시작
- 2)배움의 길로 입문한 내용.
- 3)우뚝선 기쁨/결실을 맺다.
- 4)30여년을 쉽 없이 배움의 열정을 불태우다.
- 5)과거로의 회상
- 6)앞으로의 여정

이렇게 6개 단원으로 나누어 구술기록 해봤다.

나도 글은 조금 써봤지만 신미자샘께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여 줘서 별 수정 없이 원고대로 전시하기로 하였다.

옆에 팀들도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와 사진 작품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훨씬 좋은 작품에 감탄사와 수고의 박수를 보낸다.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더좋은 작품이 나오리라 생각 된다.

우리성남은 우리나라 최초 인공도시로 탄생하였다. 여기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는 갓은

고생을 하며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함께 판자촌을 시작으로 성남을 명품도시로

발전 시켰다. 유독 성남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성장의 도시로 고품격의 명품도시로 변모한 우리의 제2의고향 성남을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야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번 큐레이터 교육을 통해서 자발적 문화를 만들어가는 자발적인 활동과 연구로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 행복한 이야기와 배려, 도시 주민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남의 풍경을 더 특성 있는 도시로 만들어서 한국을 아 온 세계인들이 꼭 들려가는 관광특구 도시로도 만들어 다시 오고 싶은 동네, 다시 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싶은 큐레이터 가되고 싶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말을 걸어서 더욱 발전시키는 지금보다 더 명품도시로 만들려면 도시가 크고 발전한 만큼 주민의 수준도 명품으로 만들자 우리 큐레이터가!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와 발전된 모습으로...

서종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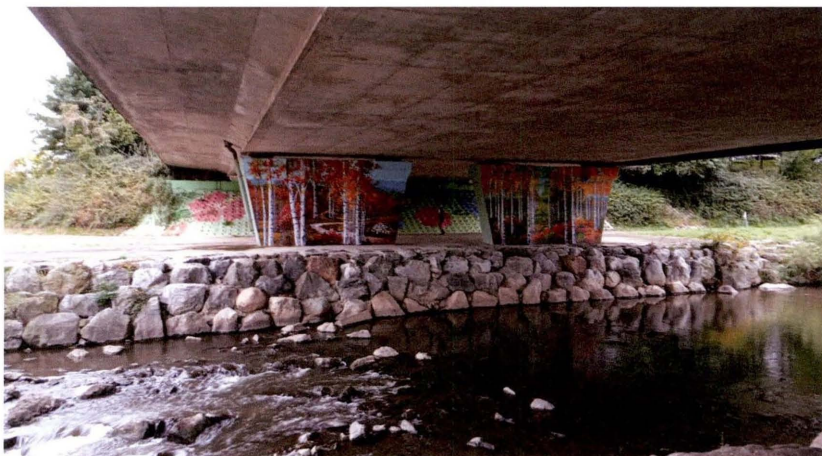
새롭게 보기 3_

탄천팀

문화공간, 또는 각자의 산책길을 소개해준 그린, 엘리할머니, 종철, 필유린 네 명이 한 팀이 되었다. 네 명의 발표에서 공통적으로 소개된 장소가 있었다. 바로, 탄천.
탄천 인근에 살면서 이른바 최애 장소로 꼽은 곳이 모두 탄천이라 팀명도 탄천팀이다.

탄천을 나만의 장소로 꼽은 탄천팀에겐 ‘누군가와 함께 하는 탄천’이라는 미션을 제안했다. 나의 서사, 기억, 감정으로 읽어낸 나만의 장소를 누군가와 함께 간다면 또 다른 관점과 이야기가 중첩될 것이다. 상대의 기분, 관심사, 발걸음, 상태 등을 살피면서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각자 누구와 탄천을 걷고 싶은지 이야기 나눴다.
엘리할머니는 5살, 엘리와 함께 걷고 싶다고 했다.



필유린님도 손주와 함께 산책하는 산책길을 생각했는데 손주가 아주 어려서 유모차를 이용해야 했다. 종철님은 70대 연인과 같이 가기 좋은 데이트 코스를, 그린님은 친구와 걷기 좋은 장소를 찾아보겠다고 했다.

첫 번째 현장 탐방 시간에는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탄천팀이 함께 탄천을 다녀보기로 했다.

탄천팀은 10월 6일 2시에 야탑역에서 만나 여수천~탄천~운중천 산책길을 함께 걸었다.

7차시 모듈별 활동 공유 시간에는 지난 팀별활동 시간에 탄천팀이 무엇을 했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도에 다녔던 길도 표시하고, 걸린 시간과 코스 이름도 붙였다.

정리를 마친 후 팀별로 지난주 팀별활동에선 무엇을 했고, 2차 팀별활동 때는 무엇을 할 것인지 발표했다. 탄천팀은 ‘탄천보기 4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고종철]

탄천을 제가 자전거로 운동한 지가 2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것이 3월에는 양재천에서부터 죽전까지 개나리길이 이어지고요. 4월초에는 또 벚꽃, 4월 말에는 세곡동에서 태평역 사이로 오는 곳이 알아요. 4월 말에는 잉어들이 짝짓기를 하는데 아주 장관입니다. 5월에는 실록이 아름답고, 요즘에 비행기 소리 아주 시끄러죠. 입장료가 1만5천원인데 태평역 쪽에서 나오면은 좀 지대가 높아요, 거기서 보면 공항이 내려다 보여요. 여기가서 보면 아주 비행기가 잘 보여요. 친구하고 에어쇼보시고, 태평역 쪽으로 가면 맛집이 많습니다. 친구하고 비행기 구경도 하고 하세요. 요새 11월달까지는 단풍길을 오르고, 눈 내리는 탄천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제설차로 산책로를 계속 밀기 때문에 자빠질 일 없어요.

저는 다음번엔 운중천 저 매성교서부터 끝나는 길이 무지개교예요. 거기 사이에 다리가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다리들이 많고, 소공원들도 많아요. 그걸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희(필유린 | 必有隣)]

꽃길과 자연 생태 체험길이라고 해서 1시간 정도, 손녀가 두 돌이 안돼서 유모차를 끌고 아이에게 보여줄 코스인데 여수천부터 탄천 아롱다롱 도시농장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멀리 가기도 그래서 적당한 거리로 했습니다.

꽃길을 보여주고 거기에 바람개비가 있어서 운치 있고, 색깔도 빨주노초파남보로 있어서 꽃과 어우러지니까 아주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수천가에서 백로를 봤는데 하얗게 혼자 앉아있는데 그것도 도심 속에서 볼 수 없는 거라 보여주고 싶어요.

도시농장하고 가면 벽화가 있거든요. 도시농장 안에는 무, 배추, 여러 가지 하다못해 봉숭아까지 야탑동 주민들이 가꾸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유모차를 끌고 가니까 안전에 대한 거를 주의 깊게 볼 것입니다.

[유정춘(엘리할머니)]

5살 손녀와 같이 걷는 탄천에 있는 공공미술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미술에게 말걸기’라고 했어요. 탄천하고 운중천 만나는 지점에 벽화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가을에 맞게 단풍 든 자작나무를 굉장히 잘 그려놨어요.

나비와 무궁화, 그네 위에 앉은 것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옛날에는 어린이 수영장이었는데 지금은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아이들 데리고 사진 찍어주기 참 좋게 포토존도 만들어 뒀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쪽 내려와서 탄천의 공공미술로, 탄천 가운데에 돌맹이를 거꾸로 세워서 밸런스를 맞춘 공공미술이거든요. 비가 와서 쓰러지면 없어지는데 또 작가가 와서 세우고 갑니다. 지나가다 보면 너무 예쁘게 개천 안에다 만들어 놔요. 거기서 또 조금 지나서 아트센터 가기 전에 그래피티 그림이 있어요. 또 다리가 밑에 사다리타기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다리를 건너면 여수천이 나오는데 여수천의 꽃길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박화양(그린)]

매일 걷는 탄천인데 친구에게 어떤 것들을 설명할까 하는 생각을 해야해서 머리가 조금 아파요. 늘 봐왔던 건데 그걸 다시 본다는게 제 마음을 갈아엎어야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한참을 걷다 보니까 좋은 글귀가 있었어요. ‘인절미 길’이라는 게 있었어요. 같이 다니는 분들이 말랑말랑한 길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인사를 하면 저절로 미소 짓는 길’이었어요. 친구랑 걸으면서 인절미 같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민병은 퍼실리테이터는 어려워하는 그린 님께 친구랑 같이 가서 친구를 관찰해 보면 어떨까 제안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친구가 어느 지점에서 즐거워하고, 감탄하는지 기록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에 그린 님은 “오케이~”를 외쳤다.

공공미술을 소개한 엘리할머니에겐 5세 아이가 되어서 다시 한 번 걸어보길 권했다. 지나가는 개미를 따라가는 게 더 흥미롭진 않을까? 누구를 위한 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했다. 월별 탄천의 특징을 써준 종철님은 누구에게 소개하고 싶은지 조금만 더 구체적인 상대를 떠올려보고, 유모차를 탄 아기와 함께하는 필유린님은 유모차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서 갔던 길을 다시 한 번 걸어보길 제안했다.

탄천팀은 각자에게 제안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탄천 길을 걸었다. 이번에는 모이지 않고 각자 또는 함께 걷고 싶은 상대와 걸어보기로 했다.

[발표 준비]

9, 10차시는 그동안 관찰하고, 읽어낸 것들을 전시 형태로 보여주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누군가와 함께 걸었던 길과 걸으면서 떠올린 단상, 함께 걸은 이의 반응들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여줄까 고민이 필요하다. 탄천팀은 지도를 활용해 자신이 걸었던 길을 표시하고, 관련된 사진들을 붙이기로 했다. '탄천 즐기기'라는 큰 제목도 정하고, 네 명이 각자 다닌 길의 제목도 정했다.



[팀별 발표/참여 후기]

마지막 수료식 날, 세 팀의 전시를 둘러보며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탄천팀은 각자 걸었던 길에 대해서 소개했다.

‘친구와 즐기기’를 소개한 그린 님은 친구와 함께 탄천을 걸으며 인상깊게 보았던 투망으로 베스잡는 모습, 철새와 탄천의 풍경을 소개했고, 운중천의 다리를 보면서 영화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떠올린 종철님은 탄천 곳곳의 다리 사진을 찍어 각기 다른 다리의 모습을 소개했다. 엘리할머니는 미국에 있는 5살 손녀 엘리가 한국에 오면 함께 걷고 싶은 길을 소개했다. 그림을 좋아하는 손녀에게 탄천에 그려진 그림들을 어떻게 소개할까 미리 연습하는 마음으로 엘리에게 전하는 글을 썼다. 유모차에 탄 아기와 동행길에 나선 필유린님은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에 안전하고, 편리한가?’라는 시선을 담아 탄천 산책길을 소개했다.

실제로 함께 걸어보면서 상대를 살피고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었겠지만 시간적, 물리적 제약들이 있어 함께 걷기를 가정하고 둘러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탄천팀은 이민희 퍼실리테이터가 말했듯, 나만의

공간이었던 탄천이 타인에게도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탄천이라는 곳이 궁금한 이들에게 환대의 마음을 담아 소개했다.



탄천 즐기기



친구와 즐기기

- 성남이라는 마을을 읽는다는 접근으로 시작되어 공간을
 춤춤히 드러다 보게 됨.
 그 중 우리 팀 4명은 탄천팀으로 출발.
 여수천 → 탄천 → 운중천을 따라가게 되다.
- 내가 택한 것은 친구와 더불어 걷기 편.
- 친구는 철따라 바뀌는 천변의 변화를 말하다.

→ 물들기 시작한 붉은, 노란 그리고
여전히 파란 나무들의 조화에 탄성을.

- 걷는 시간대에 따른 물빛, 나무빛,
바람결에도 풍기는 감각이 다른 같은
이름의 탄천.
- 이곳을 걸으며 만나는 즐거움은 지나치는
사람뿐 아니라 다양한 반려견들의 모습도
빠지지 않는다. 저희끼리 좀 놀고 싶은
모양도...
- 걷다보니 투망으로 베스 등 생태계
교란어종을 잡는 모습을 만나다. 다
자라면 60cm 정도로 큰다는데...
10cm 안팎의 치어 6마리 얼마나 효과가
있을런지?
- 천 바닥에는 이끼가 많이 앉아 있다.
강바닥이 얇아 제법 큰 잉어들이 자유로운
유영을 할 수 있을까? 바닥준설은 안하나?
이런 의문을 나누다.
- 흰 백로가 무리지어 있다. 대백, 중백,
가운데 가마우지까지. 곧 날아들 철새들
이름도 들먹여 본다. 물닭, 청동오리, 원앙...
여러 종류의 오리 등, 새들의 낙원이다.

- 탄천의 돌을 쌓은 것일까?
요래조래 절묘하게 돌로 형상을 쌓아올린
돌 행위예술? 이런 이름일까?
어떤 분인지 매년 수고하여 탄천을
꾸며주는 재주꾼 덕에 즐거운 걸음.
- 곳곳에 자리 잡은 농구대, 게이트볼장,
족구장, 파크골프장, 잔디밭에 간이의자를
놓고 악기를 즐기거나 텐트를 치고 차 한잔
나누는 가족들. 잔디밭에 뛰노는 아이들.

친구는 탄천이 없는 분당을 양꼬 없는
찐빵이라고...

나도 동의한다.

2021. 10. 29 박화양(그린)



운중천의 다리들

용인에서 발원하여 성남을 거쳐 한강으로 흘러드는 탄천에는 많은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천의 지천인 운중천에도 다리들이 놓여있습니다. 천변은 계절에 따라 풍광이 뚜렷하게 달라집니다. 봄을 알리는 개나리꽃이 노란 캔버스를 만들고 이어서 세상을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벚꽃이 만개합니다. 그리고는 연록색의 물결이 이어집니다.

곳곳에 있는 소공원에는 원추리, 구절초, 칸나, 작약, 코스모스, 국화가 저마다 “나 좀 봐주세요.”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큐레이터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느리게 걷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 천천히 걷다 보니까 문득 다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아, 예쁜 다리들이 많이 있구나” 매송교 교각에는 빨래가 널려있는 줄 옆에 그네가 늘어져 있는 그림, 호랑나비 그림, 자작나무가 단풍 숲을 이루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인생샷을 건질 수 있습니다.

붓들교는 평범한 일자형 난간이나 길게 꽃장식을 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개나리교는 판교역과 테크노밸리를 이어주어 출근 시간 무렵에는 젊은이들의

행렬이 힘차게 이루어집니다. 다리의 바닥은 마루를 깔아 발바닥의 촉감이 부드럽습니다. 은하교는 한 쌍으로 된 주기둥이 다리의 시작과 끝에 배치되어 양끝이 높고 가운데가 낮아 타원형으로 늘어지게 만들어 부드러운 느낌과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이 교차합니다.

한절교는 주기둥이 타원형으로 왼쪽에서 건너편 쪽으로 넘어가서 몇 개 안되는 로프가 다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독특한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운중교는 난간이 일자형이나 돌난간을 격자로 다듬어서 궁궐의 꽃담을 보는 듯한 품격을 느끼게 해주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다리입니다.

무지개교는 다리의 상단은 난간으로 되어 있고 하부는 좌우 비대칭으로 아치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리의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반대편의 파란 하늘에 무지개가 떠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아름다운 다리 아래를 걷다 보면 젊은 시절에 보았던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의 가슴 아릿했던 느낌이 떠오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사진기자인 로버트 킨케이드가 ‘지붕이 있는 다리’를 찍으러 마을을 찾아옵니다. 프란체스카는 로즈만

다리로 안내를 해주고 둘은 식사를 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 프란체스카는 '나'를 찾게 됩니다. 둘은 함께 마을을 떠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프란체스카는 가족에게 남기로 마음이 바뀝니다. 그동안 일이 있어 집을 떠났던 남편과 아들딸이 돌아와 프란체스카는 남편과 함께 시내로 나갑니다. 역수같이 쏟아지는 교차로에서 로버트의 픽업이 그녀의 차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장 문을 열고 달려가고 싶으나 존재하는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를 억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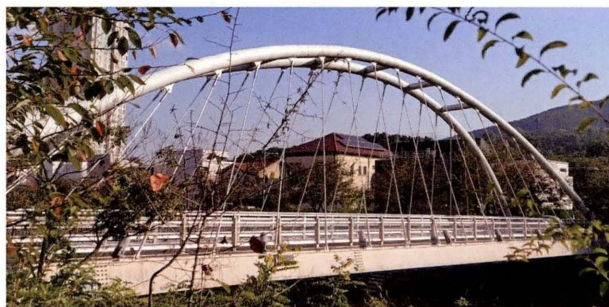
두 사람은 22년 동안 연락 없이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프란체스카는 다리의 사진이 찍힌 내셔널 지오그래피 한권과 로버트의 유품이 든 작은 소포를 받습니다. 프란체스카가 임종한 후 자식들이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를 통해 어머니의 유언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를 따라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동안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아낌없이 가족을 사랑했으므로 죽어서는 그 사내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가족묘지가 있었지만 자식들은 그녀의 유언대로 화장을 하여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위에서 유골을 뿌립니다.

다리는 우리의 삶에서 만남과 헤어짐의

상징입니다. 저기 보이는 다리에는 어떤 사연이 영겨 있을까 상상하며 오늘도 느리게 느리게 걷습니다.

고종철



그림에 말걸기

성남에 삼십여 년 살면서 가장 좋은 게 뭐가 조용히 생각해 봤다. 요즘에 탄천을 친구와 걸으면서 이 성남에 탄천이 없으면 양꼬 없는 찐빵이라고 웃으며 얘기한 생각이 났다. 정말 행복한 나날의 가장 큰 요소는 탄천 걷기이다. 참 좋은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다. 성남의 큰 자산을 탄천과 남한산성이라 하는데 남한산성은 역사성이나 자연환경이 뛰어나지만 접근성이 멀어 탄천을 우선 꼽아본다.

탄천 즐기기!

탄천을 매일 즐기면서 예쁜 가로수, 넓은 잔디 조성, 그림 있는 명소 즐기기, 멋진 현대적 구조의 다리, 아이들과 노약자들을 배려한 경사길, 꽃길....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해본다. 무엇보다 그림이 여러 곳에 설치되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참 좋다.

다리 밑에 가을나무와 낙엽진 단풍의 색깔은 천상의 것이다.

나는 5살난 손녀 엘리를 가지고 있다. 결혼 10년 만에 얻은 귀한 아이다.

어느 집 아이인들 귀하지 않은 아이가 있느냐만 그림을 좋아하는 손녀를 데리고 탄천을 걸으면서 그림 설명하는 꿈을 꾸다. 곧 실현될 수 있을 테!

먼저 도슨트 해설처럼 연습해 본다.

"인제에 가면 굉장히 넓은 산에 나무가 흰 자작나무가 있어. 마치 이 나무처럼 가지가 희단다. 추운 곳에서 잘 자라 산중턱에 주로 자라지.



가을 단풍은 노란빛으로 드는데 너무 아름다워. 마치 요즘 풍경 그대로지?

탄천 가운데는 「밸런스」라는 돌맹이 설치미술이 있는데 외국에까지, 그 작가는 설치품 실현하러 가는 유명작가야. 맥주병도 기울게 세운단다. 불탑을 세우듯 천 중간에 균형잡을 수 없는 특수한 모양으로 돌을 세워.

또 아트센터 앞 지하도에는 그래피티 그림이 있는데 용과 봉황을 스프레이로 그렸어. 외국사람이 그렸는데 용과 봉황의 색깔이 참 멋지지? 무섭게 그리지 않았어.

엘리야 그네 벤치는 어때? 쉬기 좋지? 아이스크림과 떡볶이, 어묵 가게가 가까이 있어 너와 산책할 땐 꼭 들러보고 싶다. 그네 벤치에 앉아 간식 먹는 시간이 제일 좋을거다. 난 네가 맛있게 먹는걸 보면 너무 행복하다.

야탑교 아래 사다리타기 그림도 알아보자.

난 내기 그림인줄 알았는데 착한 언니들이 노력 봉사하여 그렸대. 그래서 그 아래 끝이 포옹하기, 악수하기, 즐겁게 노래하기 등 생각지 못한 예쁜 말이 적혀있구나. 중학생 언니들이 꽃길도 만들고 그림 다리도 만들고, 무, 배추 등 작물도 심었구나. 이름도 인절미 길. 인사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고? 이런 예쁜 마음들이 모여 멋진 탄천과 성남을 만들고 있어.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엘리야 방학마다 오렴. 항상 그림 이야기 해 줄게. 또 그네벤치에서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사줄게. 분당 할미가 쓴다.”

유정춘(엘리할머니)



아기와 즐기기

1. 여수천-꽃길

여수천 꽃길 산책로는 뽁뽁하게 들어선 아파트 사이길로 아기자기하게 다양한 꽃들로 구성된 그리 넓지 않은 오솔길 정도이다. 그래서 보도와 자전거길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부딪히지 않도록 서로 조심히 걸어야한다. 유모차에 타고 있는 손녀와 동행하며 여수 천 꽃길을 걷다보니 빨주노초파남보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형형색색의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데 꽃 속에 파묻혀 눈 안에 가득 담아보고, 마음 속에 저장하면서 사진도 찰칵! 꽃향기와 어우러진 허브향도 맡아보니 오감이 활짝 열리고 절로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여수천 물가에서 한 가족이 여유롭게 물수제비를 서로 번갈아던지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는데 추억 속의 한 장면이 스치듯 정겨웠다. 여수천 한 가운데에서 한가히 노니는 백로가 홀로 자태를 뽐내는 것도 참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2.탄천→ 인절미길, 아롱다롱농장 길

여수천 꽃길과 탄천이 만나는 네거리는 자전거우선멈춤표시와 보행자전용도로표시를 바닥에 해놓아 위험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할 수 있었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책 할 수 있도록 성남시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곳이다. 탄천 곳곳엔 운치 있는 징검다리가 많지만 유모차가 안전하도록 보행교로 건너야 한다. 다리를 건 널 때엔 자전거도 내려서 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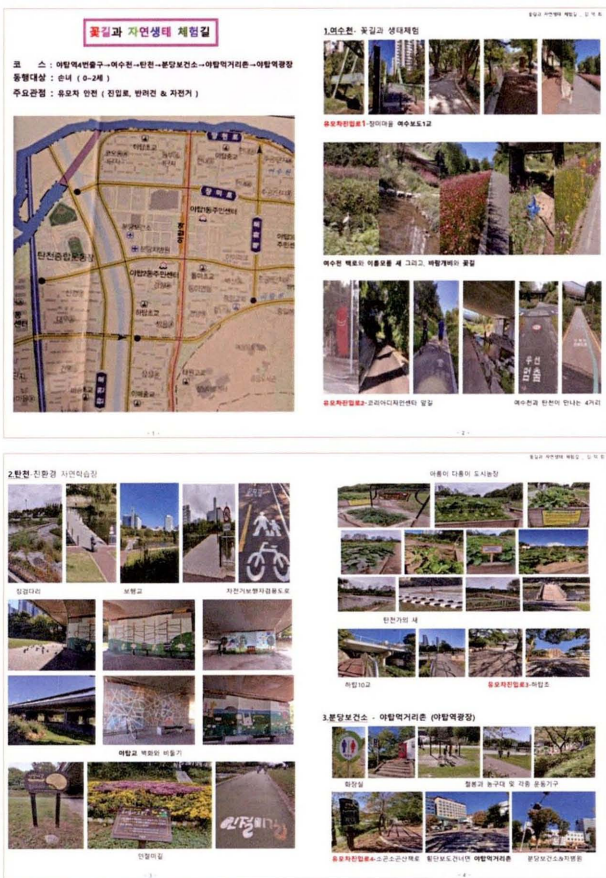
가야한다. 도심 속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보여주는 산책로 곳곳엔 나무의자와 돌 의자, 통나무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어 쉬엄쉬엄 휴식 도 취할 수 있어 좋았다.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과 족구장, 철봉대, 농구대 등 다양한 운동기구가 있어 탄천 산책도 즐기고 운동과 휴식, 건강과 팀웍조성까지 누구에게나 일석이조가 아닌 일석사오조인 것 같다. 탄천 산책로를 걷다보면 테마가 있는 걷고 싶은 우리 동네 초록 길인 인절미길을 지나게 된다. 야탑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17.9. 23에 점점 삭막해져가는 이웃 간의 관계회복과 서로 관심과 정감 있는 마음을 나누기 위해 조성되었는데 "인사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는 의미이다. 산책로도 폭신평신했다. 발이 편안하고 무리가 가지 않아 좋았고 걷다보니 너구리가 나올 수도 있어 주의하라는 표시가 있어 생각지도 못한 세심한 배려에 감동 하며 동물에 대한 보호와 사랑도 함께 느껴진다. 탄천 산책로에 무지개, 풍선, 네잎 크로바, 나무위에 다람쥐, 튼튼 등 동심을 자극하는 벽화가 있는데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다 보니 바로 옆 사다리타기 벽화에서 게임도 하게 되어있었다. 1-6번까지 사다리를 타다가 걸리면 벌칙으로 포옹하기, 토닥토닥, 춤추기, 노래하기, 사랑해,

업어주기 등 심심치 않게 재밌거리가 톡톡 튀는 것 같다. 산책로 잔디엔 한 무리의 비둘기 떼들이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도 날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무언가 모이를 쪼아 먹으며 꼼짝하지 않는다. 그만큼 사람들과 익숙하고, 친해졌다는 느낌이 든다. 조금 걷다보니 아롱다롱농장 길이 펼쳐진다. 텃밭은 주민과 노인정 관내어린이집 등 단체로 구성된 곳에 매년 신청을 받아 분양하고, 수확물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눈다. 도시아이들에게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자연학습장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작은 농장이지만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상치. 파, 무, 깻잎, 고구마, 손톱에 꽃 물들이는 봉숭아꽃 까지 도심 속에서 친환경농작물의 성장과정을 직접 보고 자연을 체험 할 수 있는 귀한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꽃삽으로 화분속의 흙을 이리저리 옮겨보고 꽃에 물도 주면서 우리 집 베란다에서 왔다 갔다 하던 손녀 모습이 떠오르면서 꼭 함께 산책하며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고 싶은 곳이다. 꽃길과 자연생태 체험길 산책은 소곤소곤 산책로에서 마무리하고 올라와 분당보건소 앞 횡단보도를 건너 1~2분 정도 직진하면 야탑 먹거리촌과 NC백화점이 나와 쇼핑과 식사도 가능하다.

여수천에서 시작하여 탄천을 거쳐 야탑먹거리촌 까지 꽃길과 자연생태 체험길은 유모차로 손녀와 함께 1시간정도 가볍게 동행을 하며 걷는 것도 즐거운데 다양한 꽃도 보며 백로와 물새와 비둘기떼 등을 볼 수 있는 생태환경과 농작물이 성장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까지 살아 숨 쉬는 자연을 오감을 열어 체험하기에 멋진 산책길로 강력 추천하고 싶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수천 산책로는 딱딱한 아스팔트길로 발에 쿠션이 없어 쉽게 피로감이 올 수 있고 자칫 잘못하여 넘어지기라도 하면 다치기 쉽다는 것과, 자전거길이 따로 없어 자전거를 보면 긴장하고 서로 부딪치지 않게 피하면서 걷게 된다는 것 또,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다 낯선 사람에게 멍멍 짖을 때도 놀라서 피하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모두 다 서로 공존하는 것이 행복이겠지요.

김덕희(필유린)



새롭게 보기 4_

장소의 관점으로 읽기

이민희 퍼실리테이터는 2차 팀별 장소 찾기가 끝난 9차시에 지금까지 참여자가 발표하고, 활동한 것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짚어주었다. 앞서 ‘공간과 장소’ 좋은 도시(마을)의 조건’에서 설명했던 개념과 연결지어 장소 찾기 활동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민희 퍼실리테이터]

저희가 두 번 강의를 시작 전에 들었었잖아요.
그 강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축약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장소도 정하고, 답사도 가보고 한 것들 떠올리시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 닿을 거예요.

우리가 공간 읽기를 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성남이라는 도시의 공간을 읽었어요.
마을이라는 내가 움직이는 공간에 담긴 ‘나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 즉 나와 관련된 기억, 사람, 사건 등을 찾고 해석을
했어요.

구술기록팀은 경규남(남이)선생님의 긴 시간의 공간들을
들어주시고, 기록하면서 어떤 기억들이 있었나, 어떤

사람들을 만났나,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 또 앞으로 내가 누구와 어떻게 나누고 싶은가, 이걸 가지고 공간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공간을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촌촌히 읽었죠.

예를 들면 모란시장 가서는 모란시장을 책이라고 했을 때 뭐가 있나, 없나 이런걸 읽었어요. 그래서 'ATM기가 없는 것 같아' 하고 가서 다시 읽었더니 있는 걸 발견했죠. 우리가 평소에는 신경 안 쓰고 다녔는데 새롭게 발견했죠.

산책로를 가다 보니까 그래피티 아트를 누가 했는지, 뭘로 했는지 이런 걸 촌촌히 읽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무얼 읽었냐? 눈에 보이는 것들, 이야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읽어나갔어요.

운중천의 기리기였나요? 무엇이 놓였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름다운지, 흉물스러운지 또 과거와 지금의 차이가 어떤지 특히 구술기록팀에서는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뭐가 바뀌었는지, 그런데 그것을 큰 시각으로 본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시각으로 구석구석의 동네 이야기를 우리가 봤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가치판단을

했죠.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려면 뭐가 더 있어야겠구나, 어린아이가 여기 와서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겠구나, 성남이 어떻게 바뀌었구나, 이런 판단들을 하면서 공간을 읽어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간, 장소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겼어요.

우리는 성남이란 공간에 담겨서 살고 있는데 이 공간에 나의 사람, 나의 사건 또 내가 부여한 어떤 의미, 이야기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장소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대원 가는 산책로가 장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모란시장을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남 아트센터 곳곳이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경규남(남이)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성남의 그 많은 곳들, 성남의 많은 이야기들이 구술기록팀에게는 이제 장소가 된 거예요. 나에게 그 기억이 생겼거든요. 그 일들에 대해, 사건들에 대해 알게 됐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공간과 장소라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이 장소라는 게 참 중요하다. 다시 말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도시가 가는 대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도시에서 내

이야기를 찾고, 내 의미를 찾고, 내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다는 건 이 공간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경험했다’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는다’가 곧 장소의 중요성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겐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중에서 한 번 더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람이 되려면 사람이 있을 장소가 있어야 되고, 사회는 사람이 되려는 인간을 받아주어야 되고 환대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장소는 직업, 집 같은 것들이고, 환대는 그 사람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말을 듣고 그와 소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장소’를 찾았어요. 그런데 ‘나’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아이가 오면 어떨까? 모란시장 하면서 어떤 거 생각했냐면 외국인이 온다면 어떨까? 모란시장의 주요 이용객들은 노인들인데 노인들이 사용할 때 편할까?

우리는 ‘나’만 생각한 게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는 이 장소에 또 누가 올 것인가를 같이 고려를 했어요.

그래서 장소의 경험이 인간의 감정, 가치, 정체성까지 형성한다는 것을 경험했죠. 우리는 몇 주간, 그 장소가 나와 무의미하고,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 나의 가치, 나의 정체성이 그 장소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다느 걸 계속 찾고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마을큐레이터 활동을 하면서 내가 공간을 읽었죠,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냈죠. 그래서 찾아낸 장소들을 선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도 나의 장소를 찾아갈 수 있게끔 우리는 10주 동안 그런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장소에서 내 이야기를 찾는 것. 단지 성남에 있는 가장 큰 전통시장, 이게 아니라 모란시장에서 뭔가 의미를 찾는 것. 성남아트센터가 좋은 공연을 보는 대중 장소가 아니라 거기서 나의 구체적인 의미들을 찾는 것. 왜냐면 인간에겐 ‘장소에’라는 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은 어떤 장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장소를 사랑하는 마음, 그 장소와 어떤 유대적 결속을 맺고 싶어 하는 거의 본능적인 마음이 인간에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거에 지나갔던

장소들을 기억하고 있는 걸로 그 증거를 될 수 있어요. 우리
경규남(남이) 선생님은 과거에 꽃꽂이도 배우면서 밤에
택시 타고 가서 신청하시고 했던 이야기들을 해 주셨잖아요.
지나간 일들이 사라지지 않고 내 기억에 남아 있단
말이에요.

남한산성 초입에서 상추 파시는 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가 지나가지 않고 구체적 장소와 언제, 누구를
봤는지가 내 기억에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말하면 인간에게 ‘장소애’가 있다는 거죠.
내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그 경험이 내 경험이라고
선언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소애’예요.

그래서 공간에 내 삶을 녹이고 이야기를 만들고자 하는
욕망, 내가 실존한다, 내가 여기 존재한다, ‘나’라는 사람이
있다 라는 걸 알리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남을 소개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성남에 사니까. 내가 사는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소속이니까. 여기 내
삶이 있으니까, 내 친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장소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자를 만나는 공간을 찾아보세요. 내가
경험이 있는 공간을 찾아보세요. 계속 숙제를 드릴 때
다 하나씩 생각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내 어릴 적 기억도
거기에 맞닿아서 코뚜레 이야기도 해 주시고...
왜냐면 인간에게 장소애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뭘 경험했지, 뭐 했지, 이게 지금 내가

사는 이 현장이랑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다 그러겠죠.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다
 ‘장소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공간과 장소 개념’ 그 다음에 ‘장소애’,
 ‘토포필리아’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2주 차 때
 도시라는 걸 조금 더 봤어요.

농촌 지역에 사는 게 아니라 성남이란 도시에 살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장소들, 장소애를 드러내는 것은
 사실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는 좀
 독특하죠. 언제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어요. 이 도시는
 연령대도 많이 있고, 여러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고요. 또
 성남이란 도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들도 다 달라요.
 그리고 내가 언제부터 성남에 와서 살았는지, 무엇 때문에
 이 도시에 왔는지 개개인마다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팀에서는 산책로를 이야기하시고, 어느
 팀에서는 시장을 이야기하시고, 과거에 성남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남’에 대한 기억은 또 달라요. 세레나 님은 작은
 예수회라는 시설 이야기도 해 주셨고... 그러니까 성남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성남’이 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이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역동적인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내가 움직이는 영역 바깥은 거의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이 도시는 참 재미있는 게 다양한 구성원의,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도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개개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개인의 장소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0대의 비혼 여성인 저도 성남에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아이를 다 키우고 열심히 장사를 하면서 사신 신미자 님도 성남에서 내 장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문화해설사 하시는 종철 님도 이 도시의 역사, 문화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의 성남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우리 개개인은 너무 다양해서 중첩되는 부분들이 없지만 다들 내 맥락에서 이 성남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거꾸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남이 나한테 장소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도 보장이 돼야 되고, 공동체의 장소도 보장이 돼야 한다. 예를 들면 작은 예수회의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성남에 수용이 되죠. 공동체가 성남에 살고 있고,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야기가 포함이 돼야 한다.

엘리할머니는 5살, 6살 어린아이인 엘리의 눈으로 성남을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드셨잖아요. 아이가 돌아다닐 때 뭐가 재미있겠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셨잖아요. 그럼 그 아이에게도 성남은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도시는 사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높은 빌딩이 많고, 인프라 시설이 잘 돼 있고... 물론 그것도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 기억과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때 다른 차원의, 다른 층위의 좋은 도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도시란 도시를 구성하는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장소를

제공하는 도시여야 한다.

조금 더 세밀히 얘기를 해볼게요. 좋은 도시는 모두에게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도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이 도시에 거한다면 내 장소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해볼 수 있나.

첫 번째 도시는 예술성이 있어야 된다.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겉모양이 화려하고 세련된 게 아니라 내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 도시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정당한 노동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거나 내 심신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거, 정규남(남이) 선생님이 배움에는 끝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도시. 그러면 이 도시는 나에게 아름다운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도시를 예찬할 수 있어요. 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시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도시의 좋은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삶에서 느끼는 충만감,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

저는 세 팀에서 산책로가 됐든 시장이 됐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때 느낀 게 이 성남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충만한지, 아름다운지를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걸 느꼈어요. 사계절이 가는 걸 예쁘게 느낄 수 있다, 새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통시장이 있고, 그 안에서 깨끗하게 조직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어떤 충만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걸 예술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성. 도시는 혼자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공유하는 장소이다.

그래서 이건 아까 얘기했죠. 나만이 아니라 누구 데리고 올 수 있을까, 누가 와볼 수 있을까...

제가 모란시장을 주로 누가 사용하시나요?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이 오시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했던 건, 사회 공동체가 공유하는 장소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성. 이 도시에서 무슨 일들이 전개됐는가, 이거를 큰 그림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시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이 도시의

정책들, 무엇이 생기고 없어지는 지, 이런 것과 실제 살고 있는 시민이 어떤 관계를 맺고 무엇을 주고받았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구술기록 팀이죠.

도시의 예술성, 사회성,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가 참 좋은 도시다, 내가 살고 있는 성남 참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나에게 장소가 생겨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한 번 낯설게 보려고 했죠. 익숙했던 도시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갔던 장소들, 익숙한 장소를 또 가서 보고, 사진도 찍으시고, 공유하면서 장소를 나눠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시장은 상업지구죠. 도시를 나누는 기준에는 주거지구, 상업지구 같은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새로운 기준을 드렸던 게 지극히 개인적인 장소, 타자를 들여다보는 장소, 타자와 교류하는 장소, 이렇게 한번 도시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를 낯설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타자’라는 거죠. 개인, ‘나’와 ‘타자’예요.

우리가 강의 시작하는 날, 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건 ‘당사자성’이라고 했어요.. ‘당사자’, ‘나’. ‘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내가 어디 갔나, 뭘 느꼈나, 누구랑 있었나, 난 평소에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 그래서 당사자성에서 ‘나’, 개인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내가 이 도시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도시의 다른 환경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타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남이란 도시를 읽는 게 지역을 읽는 것 같고 지리적인 걸 읽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도시를 읽어가면서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왔어, 뭘 느꼈어, 누구를 만났었어, 어떤 일들이 있었어...

그래서 마을큐레이터를 한다는 것은 첫 번째, 도시를 읽는다는 거, 공간을 읽는다는 것 그래서 내 장소를 찾아간다는 것, ‘나’를 읽는 다는 거예요.

똑같은 소설을 읽어도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읽는 게 다 느끼는 지점이 다르고 내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다 다르잖아요. 장소에 대한 내 감정, 내 감각, 내 경험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나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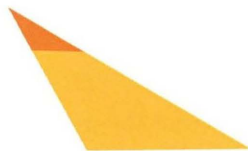
그래서 선생님들이 답사하고 돌아오시면
이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수정 보완을
요청드리고, 여러 의견들을 주고받았던
거예요.

정리하자면, 모든 인간에게는 장소를
사랑하고 장소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장소애가 있다. 그리고 도시를 바라볼 때
예술성, 사회성, 역사성 가지고 도시를 볼
수가 있다.

이 모든 이야기에는 결국, 내 이야기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와서의 관계가 포함이 되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 백

함께 나누는 이야기



함께 나눈 이야기

민병은 퍼실리테이터(이하 민): 10주 동안 애쓰셨습니다. 아까 소감도 같이 발표를 해 주셨지만 혹시 더 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제 발표를 하셨으니까 코멘트 아닌 코멘트를 해야 되겠죠?ㅎ

제가 아마 큐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덜어내기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술팀은 이제 구술팀 대로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핵심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칠까지 하셔서 잘해주셨어요.
모란_스토리팀하고 탄천팀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병렬식 주제이긴 했지만요. 한 분씩 각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제가 병렬식이어서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걸까 라고 조금 궁금했습니다. 정리하면 사람인 것 같다, 만남, 아이라는 단어가 실마리가 되는 것 같기도하구요. 모란팀도 그렇습니다. 섬마을? 섬마을이 어디 있는지 모를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어머, 저런 데도 있네 근데 저기를 어떻게 가야 되지?"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반성 했어요. 종이 한 장만 드릴 걸 ㅎ.

종이 한 장만 드렸으면 어쨌든 덜어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생각을 모으고 팀별로 각자 잘해 주셔서 또 다른 상상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발표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걸을 때 위를 보지 않는다. 사람은 언제부터인가 자꾸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해요. ‘본다’라는 것, 고개를 들어야 보이잖아요.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혹시 내년도에는 이런 걸 더 해보고 싶다고 연장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고종철(이하 고): 제가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종준 박사께서 광주대단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73년도에 성남시가 됐는데 71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광주 대단지 난동 사건, 폭동 사건, 그때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때의 모습과는 지금 다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습을 보관하고 있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제가 가봤어요. 태평4동에 있어요.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거를 아카이브라고 하는데 70년대 초에 지어진 집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딱 한 채 있어요. 이제 지금 상대원 공단 공원 거기에 박물관을 짓고 있어요. 성남 역사박물관입니다. 정식 명칭이. 그 집을 다 쪼개가지고 잘라서 골목이 좁기 때문에 크레인이 들어가서 이걸 못해요. 이걸 톱으로 다 썰어가지고 그걸 다시 그 박물관에 와서 전시할 거예요.

요게 칠십년 대 성남의 모습이다. 화장실이 없어요. 그 집이. 왜 없냐, 공동화장실 쓰는 거예요. 수도도 공동 수도 쓰는 거예요. 보니까 연탄 화덕이 있어요. 70년대 초에 그거니까 방도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그 집이 왜 그대로 보관돼 있었냐 하면은 그 집에서 나온 그 집 아들들이 다 의사가 됐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식 교육을 잘 해가지고 의사를 키운 그런 좋은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못 부수겠다. 그대로 둔 거예요.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자료도 보여드리고 위치가 어디라는 거를 알려드릴 텐데 그 70년대 초에 그럼 성남 사람들이 살던 그 모습, 그 집. 방마다 굉장히 좁아요. 좁은데 그 집 하나를 또 전세를 줍니다. 딴 사람한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조세희 씨가 쓴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또 하나는 윤홍길 씨가 쓴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이 소설책에 그 당시 우리 성남 사람들이 어렵고 그런 것이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그런 장소가 딱 한 군데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가서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느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 말씀드립니다.

오다예 담당자(이하 오): 그리고 저희 이민희 선생님이 성남이라는 도시를 장소적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바라볼 수 있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민희 선생님도 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희 퍼실리테이터: 일단 10주가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고요. 저는 성남에 살지 않으니까 항상 어떤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걸로 성남을 알고 있었는데, 어떤 행정적인 일들에 대해서만 성남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한 분 한 분 이야기 들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경규남 선생님을 비롯한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몇 십 년 전에 여기 와서 자리 잡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큰 테두리 안에, 그런 큰 프레임 안에 결국 다 사람이 사는 거구나, 다 사람 이야기구나, 또 사람 이야기구나라는 건 내가 누구를 만났구나,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즐겁고 재밌었고, 아까도 말씀하시는 거 들을 때에 낯설게 보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나 상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좀 해봤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10주간 했던 것들이 전혀 몰랐던 거 했던 것도 아니고, 너무 어려운 표현들로 어려운 단어들을 이야기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 내 삶에 있었던 거고 근처에 있던 건데 처음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본 거잖아요. 그래서 더 그렇게 해야겠다. 저부터라도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그리고 여기 성남문화원에서 전체적인 우리 장소부터 진행까지 사진도 찍어주시고 또 모든 제반 사항들을 다 준비해 주신 심기환 선생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심기환 담당자(이하 심): 저는 처음에 사업을 받았을 때 조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 단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문화원에서 처음 시도하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수업이 아닌 토론도 하고 같이 나가서 모둠별로 움직이고 하는 수업이 처음이라서 참여자분들이 조금 잘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좀 하다 보면은 제가 어제 1회, 2회, 3회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걸 봤는데 처음에는 되게 어설프게 이렇게 넘어가는 듯했는데 회차가 지나감에 따라서 많이 잘 따라와 주시고 참여율도 높고 되게 잘해주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같은 사업을 맡게 돼서 더 나아가서 발전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팀들이 참여를 해서 세분화해서 개인적인, 역사적인 이런 거 일반적인 역사적인 이런 걸 조금 배제하고 개인적인, 사소한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더 세분화돼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사실 저희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이기 때문에 3년을 얘기하긴 했지만 저희는 어쨌든 타지역의 사람들이고, 여기 성남 분들과 그리고 문화원이 지역을 함께 고민하고 또 어떻게 주민들과 함께 갈지를 고민하셔야

될 텐데 오늘이 아니면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하게 되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싶으신지 또는 문화원에서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든지 어떤 제안도 좋습니다.

경규남 선생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다음엔 성남에 관한 내 이야기를 책으로도 내고 싶으시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경규남(이하 경): 아니, 이번에는 한 가지만 했지만 제가 이제 문화 생활한 거를 했지만 또 다른 걸로 해서 시리즈로다 책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걸 하면서 보니까. 이게 에세이 아마 그거는 각자가 다 다르지만은 그렇게 이 기회에 이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박화양(이하 박): 자서전 형식으로 하시면 되겠네.
문화 행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옛날에는 의식주였는데 요새는 식 위주로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남의 맛집 기행이라고 그럴까 맛집을 한번, 이렇게 숨겨져 있는 오래된 집들을 가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전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 한번

진행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 했는데 의외로 재미있게 진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뭘 해야 될까 다음 후속 프로그램을 생각하실 때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 :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다음에 또 이런 어떤 거, 우리 말고 다른 분한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탄천이면 탄천 팀만 몇 번에 걸쳐서 거기 갈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탄천 팀이 포인트로 잡는 대로 가보자 다 같이 가서 느껴보고 소개를 들어보고 또 예를 들어서 또 여수동이라 그러면은 그 여수동에 잘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느껴보세요. 느끼는 포인트는 뭡니다. 그럼 설명을 들으면서 다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 모란시장도 가보고, 다 같이 섬마을도 한번 가보고. 저도 동의합니다.

고: 그 주제, 가장 큰 주제별로 다 같이 찾아가서.



민: 네,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이 큐레이터 과정이 해설사 과정이 아니어서 잘하는 분이 잘 하시는 대로 설명하는 건, 해설사분을 (필요하다면) 초청해서 들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큐레이터 과정은 내 이야기, 내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거든요. 내가 본 것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느낀 것을 얘기하는 거여서 방향의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사라고 하는 거는 역사학자분들이 다 해석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역사 해설사분들도 계시고 문화 해설사분들도 계시고 관광 해설사분들도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해설사라고 하지 않고 우리 군이 따지자면 안내자라고 얘기하자. 나의 경험을 안내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각으로 한번 마을을 보고자하는 것이 사실은 주요 초점입니다.

내 감각, 내가 주인으로서, 주체로서 우리 동네를 보는, 남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래서 내가 해석해서 말해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발표하신 내용은 있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지만 내가 직접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가 나만의 해석을 했는가에 대한 것들이 다음번 주제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의미 부여하는 방식이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봅니다. 엉뚱하더라도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 상상력을 촉발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진행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팀 중에서 꼭 고맙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다는 분이 있으시면 공식적으로

얘기해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경: 난 이거 큐리에이터 이런 기회를 주신 선생님이 제일 고마워.

민: ㅎ 우리 진행팀 빼고 말씀해주세요

경: 아니 어쨌거나 너무나 고마워요.

민: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다 고맙지만 신미자님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술 기록 팀은 생각지도 않게 팀이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다 함께 동행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규남 님이 오래 걸을 수 없는, 동네를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 구술팀이 급하게 꾸려졌는데, 서종철 님하고 같이 이 한 팀을 정말 잘 이끌어주셔서 저는 되게 고맙다는... 이 말씀을 오늘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김정자_세레나(이하 김): 우리 모란 스토리 팀은요, 저는 이제 그 스케일을 짜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단장님이 나서서 그림 그리는 분도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밑그림을 그려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지.

민: 반칙이에요ㅎㅎ

신미자(이하 신): 저는 이번에 아까 민병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이런 분야를 접해봤잖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볼 시간도 없고 제 인생에 있어서 여태까지 누구 말을 그렇게 경청해서, 그걸 또 녹음까지 해서 이렇게 옮겨졌고, 또 다시 한 번 들어보고 내가 혹시 빠뜨린 거 없나...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서종철 님하고 여기 남이 언니하고 팀웍이 진짜 이번에 너무 잘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자기의 이야기를 나부터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남이 보는 그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지, 내 내면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안 하거든요. 또 내 약점도 말하고 싶지 않고 그런 거 밝혀서 뭐 하겠어요.
그냥 그런데 그런 거를 허심탄회하게 동심으로 돌아가서, 아주 그런 얘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하고 정말 목소리도 막 떨리고... 그리고 남이 언니가 그때로 돌아가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도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거를 남이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까지, 거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또 그다음에 이렇게 작품 전시할 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책을 만들려는데 이게 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이 멘토도 해 주시고 여기 강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여기 서종철님이랑 또 남이 언니가 막 색깔도 칠하고, “요거는 요렇게” “그냥그냥 도로 빼!” 다시 붙이고, 막 지끈에다가 묶었다가 이 끈에다 붉은 끈에다 묶었다 가는 끈에다 묶었다가 이렇게 하니까 진짜 우리 팀이 제일 늦었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너무 그러니까 좀 사실은 굉장히 상당히 유치해요. 다른 팀들에 비해서 우리 팀이 굉장히 좀 유치하고 좀 촌스럽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 그냥 유치하자 좀, 이번에 좀 유치해 보자 이렇게 하니까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나 이런 마을큐레이터가 제2차가 또 생긴다면 이렇게 새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또 우리 퍼실리테이터 강사님께서 좀 많이 만드셔가지고요, 새로운 걸 많이 도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 얘기만 들으신 게 아니고 표정까지도 다 보셨네요. 기뻐하고 떨리고 하는 것들 다 느끼셨다고 하는.... 예, 저는 그 부분이 아주 좋네요.

이: 저희는 그냥 무심코 압정이나 풀이나 스티커나 이런 거를 붙였잖아요. 오늘 구슬팀 보면서 느낀 거는 네 가느다란 끈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으셨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역시 남이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부분도 있었네’, 무심코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냥 저희는 압정만 찾을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하신 거도 저는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심: 저는 탄천 팀의 고종철 님! 사실 제가 운중동에 살아요. 운중동에 사는데 판교 전 모습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개발되기 전에 제가 거기 살았어요. 지금 39살인데 30년 전으로부터 살았어요. 9살까지. 근데 거기 사진을 찍어 오셨더라고요. 다리를. 제가 주말마다 거기를 산책을 해요. 아들이랑 근데 그 밑에 천이 하나 흐르잖아요. 거기가 예전에 운중천. 그쪽에서 애들이랑 많이 놀고 고기도 잡고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

옆으로 2번 버스가 다니고 그 옆으로 식당이 되게 큰 게 하나 있고 그 앞쪽으로 낙생고등학교가 있고 이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기억이 생각이 나면서 옆에 아들이랑 손잡고 걷는 그런 모습까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예전에는 시골 논밭 있던 그 시절에 내가 여기서 놀았는데 그 다리를 보면서 애랑 이렇게 걷는, 30년 지났을 때 그 모습이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김: 저도요, 그때 탄천 팀이 조금 허접해가지고 막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고종철 님께서 보기보다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세요. 낙엽을 다 모아갖고 오셨어요. 거기서 주워 갖고 오시고 부족하면 또 주워 갖고 오시고 그래서 이번에 그 틈을 또 메꿀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팀에서 또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 있죠. ‘날마다’ 저희가 이거를 또 이렇게 이쪽에 오셨는데 꼬아서 저희도 ‘날마다’ 그거를 썼어요. 그래 갖고 참 두 분께 감사를 드려요. 너무 그래서 좀 풍성해졌는데 낙엽이 세월이 가니까 말라서ㅠ.

오: 저도 마지막으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 영상이랑 이렇게 편집하면서 카톡이랑 제출해주신 자료... 다 보면서 한 분 한 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매주 숙제가 있었어요. 참 숙제가 많았는데, 굉장히 충실하게 열심히 해주셨고, 듣다보면 또 재밌게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성남이라는 곳,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할 이야기들이 많으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나 기회가 많이 없었구나 라는 것도 좀 느끼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재밌어 하시고 즐거워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희 쌤이랑 병은 쌤이랑 같이 기획 회의하면서 민희 쌤이 얘기해 주셨던 게 요즘은 도시에 대해서 부동산 얘기만 한다는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성남 마을큐레이터 되기 과정에서 선생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도시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가 사는 장소에 대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각자의 관심사들이 굉장히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 저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프로젝트를 마치며

사소한 개인의 추억이 역사가 된다

심기환 성남문화원 사원

성남문화원과 함께 시작한 ‘마을큐레이터 되기’ 참가자 분들의 열정은 어느 여름 무더위보다 뜨거웠다. 1년차 프로젝트를 실시한 성남문화원의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는 총 11명이 참가하였다.

우리 문화원 측에서도 아카데미 강좌, 민속놀이, 역사, 공연 등 과거 풍습에 치중한 사업을 위주로 했던 터라 ‘어떻게 프로젝트를 풀어 가야할까?’라는 고민을 하며 부담감으로 다가왔던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 시국에 참여자가 있을까? 단발성 한방향 수업이 아닌 정기적으로 모여 토론, 발표를 하는 수업방식을 수강생들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까? 등의 걱정부터 앞섰다. 그러나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첫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면서 부담감은 기우에 불과하였다.

우리는 11명을 3팀으로 나눠 각자의 추억 속 장소를

끄집어내 가시화하였고, 개인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기록 하였다. 우리가 찾아낸 성남은 어느 역사책에도 나와 있지 않은 살아있는 기억 속의 산물인 것이다. (각 팀의 매핑내용은 참가자들의 에세이에도 잘 나와 있으니 저는 제가 수업에서 느낀 점을 쓰겠습니다)

구술기록팀(경규남, 서종철, 신미자) - 나의 추억, 이야기가 역사가 된다.

발표자는 경규남 님이, 청취·기록자는 서종철 신미자 님이 맡아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개인의 30년 전 흐릿한 기억 속을 더듬어 이야기로 풀어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에 따르면 80~90년대 성남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정이 있는 곳이었다고 한다.

모란시장, 종합시장, 성호시장 등 각종 물건들을 파는 시장들은 사람들로 북적이며 하나를 사면 두 개를 주고, 외상도 일상처럼 자연스러운 그런 정이 넘치는 곳이었다.

요즘 세대 사람들은 ‘외상’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을까? ‘외상’이라는 단어가 있긴 할까? 요즘은 외상이라고 하면 ‘빚’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을까?

발표자가 약국에서의 외상을 떠올리며 발표하는데, 불현 듯 내 어릴 적 기억 속, 우리

할머니의 구멍가게 외상이 생각났다. 타인도 잊고 살아온 추억을 꺼내 주는 구술의 힘은 이런 것이 아닐까.. 이야기를 꺼내놓기 전엔 한낱 개인의 추억이지만, 이것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과정이야말로 사소한 역사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는 인터넷의 발달과 각종 교육기관들의 인프라 확대로 편리한 삶을 지내고 있다. 그에 비해 80~90년대 교육은 어땠을까? 경규남 님은 그 시절 온라인 신청은 다른 세상 이야기였으며, 최소 수강 신청 전날 12시간 전에는 줄을 서야 밤을 새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배움의 열망 하나로 밤을 지세며 수강신청을 하고 그 열정 하나로 ‘성남여성 기예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자랑스러움이 묻어있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빨라져가고 편리해져가는 현대사회를 돌이켜보며, 가끔은 ‘이런 시절도 있었구나’ 라고 되새겨 보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모란시장팀(김광열, 이점분, 유정애, 김정자)
- 개인적인 시각으로 공공의 불편함까지 찾는다.

전국 최대 전통 5일장인 모란시장은 그야말로 재래시장의 모습을 간직한 곳이었다. 전국각지에서 모란에 있던 성남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해 농작물을 이고지고 판매, 구매를 하러 사람들로 인산인해였다. 현재 그런 모란시장은 현대화로 모든 것이 신식으로 바뀌었다.

국적불문의 농산물이 판 치는 시장을 아쉬워하며, 깨끗하진 않지만 정이 있었던 예전 모란시장을 그리워하는 모란시장팀이다. 비위생적이라며 각종 매스컴에서 못매를 맞았던 오명도 그 또한 추억이 된지 오래이다. 30년간 한자리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사장님, 농장을 운영하며 손수 재배한 작물만 판다는 시장상인, 한결같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며 장이 서는 날이면 나타나는 각설이. 세월이 지났지만 모란시장을 지키는 내 기억속의 터줏대감들이다.

현대화 되면서 깨끗해지고 정리정돈이 잘 됐지만 아쉬운 점, 불편한 점들이 있기 마련이다.

모란시장팀은 현재 시장의 불편한 점을 개인의 시선으로 해결할 수 있을만한 개선점들을 고민해 보았다. 이정표도 없고 각 블록마다 어떤 점포가 있는지

안내판을 만드는 것은 지자체에 건의해야할 사항이지만 기관들이 모르는, 판/구매자만이 알 수 있는 자그마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이 예산을 들여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지만 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시선으로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까?' 것이 공유된다면 지금까지 느껴온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공유의 힘이랄까?

탄천팀(유정춘, 고정철, 박화양, 김덕희) - 걷고 싶은, 소개하고 싶은 나만의 길 분당 중심지로 탄천이 흐른다. 탄천 외에도 서판교 쪽에서 흘러 들어가는 운중천, 도촌동 쪽으로 흘러 가는 여수천 등 탄천팀은 본인이 걷고 싶은,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은 길을 느껴보았다.

30여년전 1기 신도시 분당이 개발되고 새롭게 정비된 곳이 탄천이다. 지금의 탄천은 산책로, 자전거 드라이브 등으로 성남시민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쉼터 중 한 곳이다. 막 분당이 들어선 90년대 중학교 때, 친구와 낚시대를 가지고 초립역(현 수내역)에서 고기를 잡던 시절이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방법은 다르지만 탄천의 쓰임은 휴식의 공간으로 통한다.

이렇게 여유롭고 힐링 되는 곳을 소중한 가족, 친구와 걷는다면..탄천은 각박한 도심의 좁디 좁은 도로에서 마음껏 뛰어 놀지 못하는 손자, 손녀들을 가진 조부모들의 워너비 공간이 아닐까? 복잡한 머릿속을 식혀가며 친구와 음료수를 한잔 할 수 있는 고민상담의 공간이 아닐까?

산책 중 만나는 물가의 오리들, 길가의 꽃들을 보면서 이름도 알려주고, 서로 사진 찍어주며 기쁨을 느끼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옛 추억이 공유되는 듯하다. 친구와 함께 퇴근 후 저녁노을을 배경으로 산책을 하며 하루의 고단함을 잊는 수다의 공간이 펼쳐지는 것 같다.

운중천. 나에게도 익숙한 곳이며,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하다. 어릴 적 물고기를 잡고 물놀이도 하던 곳, 지금은 내 아이와 산책로로 걷고 있는 곳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볼 수 있게 해줬다. 내가 물장구를 치며 물고기를 잡은 곳에서 내 아들과 손잡고 걷는 모습을 그려보니 감회가 새롭기까지 하다.

근처에 살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사계절의 운중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동, 식물들, 벽면의 그래피티,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들. 매번 아무 생각없이 지나는 곳이지만 타인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 됐다.

이처럼 사소하지만 본인만의 추억이 하나의 역사가 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가 공유됨으로써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 ‘마을큐레이터 되기’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개인이 모여 우리가 되는 것처럼 소소한 추억은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커다란 역사가

된다. 일상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도 하고,
그것을 구체화하여 다른 이와 공유한다면
그거 또한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올 해 하반기부터 성남문화원은 1년차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성남, 도시에
말 걸기>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다.
개인의 경험, 이야기를 공유하고 우리라는
유대감으로 이어 나감으로써 작지만 소중한
한편의 역사를 읽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아직은 서툴고 구체화하는 방안이
더 연구되어야하겠지만 이 또한 아마추어의
매력이 아닐까? 조금은 미숙하고 미흡하지만
다음 2년차를 기대하게 만드는 사업이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프로젝트에 임한 11명의 참가자분들과
이민희 퍼실리테이터, 민병은 컨설턴트,
윤종준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상임위원, 오다에 도연합회 담당자
그리고 뜻깊은 사업의 기회를 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 감사드린다.

2021 문화원과 함께하는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성남, 도시에 말걸기

발행일 | 2021년 12월 31일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 소 |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전 화 | 031-239-1020

이메일 | kccf-kg21@hanmail.net

주 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 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성남문화원

총 괄 | 최영주

기획·퍼실리테이터 | 민병은

강의·퍼실리테이터 | 이민희

특 강 | 윤종준

진 행 | 오다예, 심기환

참여자 | 경규남, 고종철, 김광열, 김덕희, 김정자, 박화양,

서종철, 신미자, 유정애, 유정훈, 이점분

편 집 | 민병은, 이민희, 오다예

디자인 | 글그림



9 791189 046224

03090

ISBN 979-11-89046-22-4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성남문화원